



2016년 상고사 토론회

한국 상고사의 쟁점
고조선과 연의 경계,
만변한은 어디인가?

2016.9.29 **목** 13:30~18:00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2016년 상고사 토론회

일 정	시 간	내 용
【개회식】 사회 : 이성제 (한중관계연구소 고종세연구실)	13:00~13:30	등록
	13:30~14:00	<p style="text-align: center;">〈환영사·기념촬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영사 :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기념촬영
【발표·토론】 사회 : 박선미 (한중관계연구소 고종세연구실)	14:00~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 사고전서로 살펴 본 연나라와 고조선의 경계
	14:30~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 박준형 (연세대)
	15:00~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이후석 (송실대) 고고학을 통해 본 만변한 -고조선과 연나라의 경계 변화-
	15:3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 김종서 (한국과 세계의 한국역사 교육을 바로잡는 사람들의 모임)
16:00 ~ 16:20 휴식		
【종합토론】 사회 : 윤용구 (인천도시공사)	16:20~18:00	•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목 차

• 환영사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02
• 발표 1	사고전서로 살펴 본 연나라와 고조선의 경계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	09
	「사고전서로 살펴 본 연나라와 고조선의 경계」 토론문 박준형 (연세대)	51
• 발표 2	고고학을 통해 본 만변한 -고조선과 연나라의 경계 변화- 이후석 (송실대)	61
	「고고학을 통해 본 만변한-고조선과 연의 경계 만변한-」 토론문 김종서 (한국과 세계의 한국역사 교육을 바로잡는 사람들의 모임)	85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호섭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한국 상고사 연구에 있어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상고사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후기 고조선 중심지에 대하여 “왕검성과 한군현”이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6월에는 고조선의 서쪽 경계인 패수의 위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조선과 한의 경계, 패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시대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고조선과 연나라의 경계인 만번한의 위치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만번한은 문헌사료에 의하면 고조선과 연나라의 경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지』에 인용되어 있는 『위략』에는 “전국시대 연나라가 장수 진개를 보내 고조선을 공격하여 서쪽땅 2천여 리를 빼앗았으며, 만번한으로 경계를 삼은 이후부터 고조선은 점차 약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번한의 위치에 대한 고증은 고조선이 서쪽영토를 상실하기 이전의 세력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만변한의 위치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두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심백강 선생님께서는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연나라와 고조선의 경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후석 선생님께서는 고고학자료를 중심으로 만변한의 위치를 밝혀주시겠다고 합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토론회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사회를 맡아주신 윤용구 선생님, 토론을 맡아주신 박준형, 김종서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재단의 활동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우당장학회 이종찬 이사장님께서도 참석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 주의하시고 풍성한 가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29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호 섭

〈일러두기〉

* 이 자료집은 동북아역사재단 2016년 상고사토론회 "한국 상고사의 쟁점: 고조선과 연의 경계 만변한은 어디인가?" 의 발표문을 모은 것입니다. 각 발표문에서 제시된 해당 주제에 대한 관점과 연구결과, 제안 등은 발표자 개인의 견해이며, 재단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발표 1〉

사고전서로 살펴 본 연나라와 고조선의 경계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

사고전서로 살펴 본 연나라와 고조선의 경계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

1. 머리말

한국의 강단사학은 광복 후 일본의 식민사학과 중국의 동북공정이 내세운 고고학에 기대며 그 이론과 관점을 맹신하고 『사고전서』와 같은 문헌사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이론과 관점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 오늘 한국의 강단사학이 생기를 잃은 채 죽어가고 있는 요인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2000년 전 서한시대의 학자 유향劉向에 의해, 황실도서를 정리하던 중 발견되어, 4천 년 전 하나라 우왕시대 백익伯益의 저술로 평가된 『산해경』에는 “발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을 조선이라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¹⁾ 고조선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면 왜 4000년 전의 기록에 “발해의 모퉁이에 고조선이 있다.”라고 나오는가.

서한시대의 회남자淮南子是 “갈석산 동쪽에 고조선이 있다”라고 했다.²⁾ 갈석산이 어디인가. 하북성 동남쪽에 있던 산이다. 고조선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면 왜 2000년 전 유방의 손자인 회남자가 고조선을 말하면서 갈석산을 들먹였겠는가.

1500년 전 남북조시대의 대표적인 문인이었던 유신庾信이 쓴 두로 영은豆盧永恩의 비문에는 하북성 동쪽 선비족의 발상지 시라무렌강 유역에서 고조선이 최초로 건

1) 『산해경』 「해내경」 “東海之內 北海之隅 有國 名曰 朝鮮”

2) 『회남자』 「시축훈」 “東方之極 自礪石山 過朝鮮 貫大人之國”

국되었다고 적혀 있다.³⁾ 고조선이 대동강 유역에서 건국되었다면 1500년 전 선비족 두로 영은의 비문에 왜 “조선건국”이라는 네 글자가 쓰여 있는 것인가.

송나라 때 국가에서 편찬한 『무경총요武經總要』에는 “북경을 지나서 고북구를 가는 중간에 조선하가 있다”라고 말하였다.⁴⁾ 고조선이 대동강 유역에 있던 초라한 변방 국가였다면 왜 1000여 년 전 중국의 사서에 조선하가 북경 북쪽을 흐르는 강으로 등장하는가.

1000년, 2000년, 4000년 전의 중국 기록에 나오는 갈석산, 조선하는 어디로 갔는가. 왜 우리의 역사교과서에는 갈석산과 조선하는 보이지 않고 청천강, 대동강, 압록강만 보이는 것인가.

우리의 조상들이 손수 쓰신 『고조선비사』, 『고구려유기』, 『백제서기』 이런 책들이 오늘날에 전해졌다면 갈석산 동쪽에서 발해를 깔고 앉아 대륙을 지배한 우리 민족의 찬란한 역사를 보다 실감나게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중국의 고대 문헌에 나타나는 고조선 기록은 위대한 고조선사의 편린에 불과할 뿐이다. 이는 고조선을 미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중국 역사를 기록하면서 고조선이 대륙에 남긴 발자취가 워낙 장대하다보니 마지못해 한마디씩 던져놓은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강단사학은 우리민족의 긍지를 보여주는 이런 기록들은 덮어두고 못 본척하면서 자료가 부족하다는 투정만 하고 있다.

한국의 강단사학은 갈석산과 조선하를 우리의 고조선사에서 지웠다. 갈석산과 조선하는 한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는 모두 중국의 연나라 영토에 편입시켰다. 고조선을 말살하는데 동원된 주요 무기가 전국시대의 연나라요 그것의 이론적 근거가 『위략魏略』의 ‘만번한滿潘汗’ 기사인 것이다.

이제 아래에서 하북성 서남쪽에 등지를 둔 연나라는 건국 후 멸망할 때까지 그 강역이 하북성 동남쪽을 넘어본 일이 없는 약소국가였으며 고조선은 하북성의 갈석산 동쪽 발해만을 깔고 앉아 대륙을 지배한 강대한 국가였는데 그동안 이 양자의 역사가 그 진상이 완전히 뒤집히게 된 내막을, 『사고전서』를 통해서 실증하고자 한다.

3) 『유자산집庾子山集』 권14 「豆盧公神道碑」 “朝鮮建國 孤竹爲君”

4) 『무경총요』 권 16 「北番地理」에 “過朝鮮河 九十里 北至古河口”라고 보인다. 송나라 王曾의 『行程錄』에는 古河口가 古北口로 기록되어 있다.

『사고전서』는 청나라 건륭시대에 근 8만권으로 편찬되어 만리장성, 경항京杭운하와 함께 3대기적의 하나로 평가되는 사료의 보고이다.

다만 명, 청시기 이후의 자료는 민족주의가 강화된 탓으로 역사에 대한 자의적 왜곡이 많아 사료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료의 오염도가 비교적 적은 당, 송시대 이전의 사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웅대한 고조선 역사를 재인식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연燕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1) 연나라의 중심지

연나라는 중국 서주 왕조의 분봉을 받은 희성姬姓 제후국이다. 소공召公의 분봉으로부터 진왕秦王 영정嬴政 25년(서기전 222년)에 멸망하기까지 43대 군왕을 배출했고 823년 동안 존속했다. 서주시대에 건국되어 전국시대까지 존속한 연나라의 중심지는 과연 어디였는가.

사마천 『사기』 「화식열전」에 “대저 연나라는 또한 발해와 갈석의 사이가 하나의 도회지이다. 남쪽으로 제나라, 조나라와 통하고 동북쪽으로는 호와 변경을 마주하고 있다.(夫燕亦渤海之間 一都會也 南通齊趙 東北邊胡)”라고 하였다.

이는 연나라의 전체 강역 중에서 발해와 갈석산의 중간지대가 연나라의 도회지, 즉 중심지대였음을 말해준다. 또 연나라의 도회지는 “남쪽으로 제나라, 조나라와 통한다”라는 사실도 언급하였다.

반고의 『전한서』 「지리지」에는 “계는 남쪽으로 제나라, 조나라와 통한다. 발해, 갈석의 사이에 있는 하나의 도회지이다.(薊南通齊趙 渤海之間一都會也)”라고 하였다. 다음은 이에 대한 당나라 안사고의 주석이다. “계현은 연나라의 도읍지이다. 발은 발해이고 갈은 갈석산이다. (薊縣 燕之所都也 渤海也 碣碣石也)”

사마천은 발해와 갈석산의 사이가 연나라의 중심지대라고 말하고 그 지역의 구체적인 지명은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한서』에는 연나라의 중심지가 발해와 갈석산의 사이에 있는 ‘계’라고 지명을 꼭 집어서 말하고 있다. 전국시대에 제나라는 산동성 동쪽에, 조나라는 하북성 남쪽에 있었다. 그리고 하북성의 동북쪽에는 산융, 동호가 있었다. 그런데 발해와 갈석산의 사이에 위치한 연나라의 도회지 즉 중심지가 남쪽으로 “제나라, 조나라와 통했다.”라고 『사기』, 『전한서』에서 말한 것을 본다면 연나라의 중심지는 하북성 남쪽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나라의 중심지 즉 수도가 하북성 남쪽 역수 유역에 있었다는 것을 『태평환우기』의 다음 자료가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 “연나라가 왕을 자칭한지 10대 되던 진시황시대에 이르러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36군을 설치했다. 연나라의 도읍지와 연나라의 서쪽 강역을 상곡군으로 삼았다. (燕稱王十葉 至始皇滅燕 置三十六郡 以燕都及燕之西陲 爲上谷郡)”⁵⁾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후 봉건제를 군현제로 바꾸고 총 36군을 설치했는데 이때 연나라의 수도가 위치했던 지역과 연나라의 서쪽강역을 합쳐서 상곡군으로 만들었다. 진나라의 상곡군은 어디인가. 현재의 하북성 서쪽 탁록 일대로부터 그 남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사기』와 『전한서』가 모두 발해와 갈석산의 사이를 연나라의 도회지, 즉 중심지로 보았는데 『태평환우기』에서는 그곳이 진제국시대에 상곡군이 되었다고 말했다. 진시황시대의 상곡군은 하북성 서남쪽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갈석산은 하북성 서남쪽에 있던 갈석산을 가리킨 것이며 현재의 하북성 동쪽 창려현의 발해변에 있는 갈석산이 아니다.

현재의 하북성 동쪽에 있는 창려현 갈석산은 발해와 딱 붙어 있어 발해와 갈석산 사이의 도회지가 형성될만한 공간지대를 찾기 어렵고 진제국시대 북경시 서남쪽에 설치했던 상곡군과는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갈석산은 한족과 동이족, 연나라와 고조선을 가르는 분계선으로 동서로 길게 뻗어 천연적인 경계를 이루었다. 그런데 창려현의 갈석산은 발해 변에 우뚝 치솟은 경관이 수려한 산일뿐 동서로 길게 뻗은 경계를 이루는 산과는 거리가 멀다.

5) 『태평환우기』 「하북도 유주」 조항에 나오는 내용이다.

현대 중국에서는 요녕성 호로도시 수중현에 갈석궁 유적을 만들어 놓았다. 중국학계는 이곳을 진시황의 행궁行宮 터로 본다. 그러나 당송시대 이전의 중국 문헌에서 요녕성에 갈석산이나 갈석궁이 있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전한서』, 『통전』, 『태평환우기』에서 말한 갈석산, 갈석궁, 갈석관은 바로 『사기』 「소진열전」의 “연나라 남쪽에 갈석산과 안문산이 있다.”라고 말한 그 갈석을 가리킨다. 이 갈석은 오늘날의 호타하, 역수 부근에 있었다. 현재의 하북성 보정시 역현, 서수현 부근의 백석산白石山이 바로 이 전국시대 역수유역의 갈석산이라고 본다. 이곳 역수유역의 백석산, 즉 갈석산으로부터 동쪽으로 발해까지의 중간지대가 연나라의 도회지, 즉 중심지대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연나라의 전체 강역 중에서 서쪽으로 백석산, 동쪽으로 발해의 중간지대에컨대 현재의 하북성 남쪽 역현, 내수현, 용성현, 신성현, 고안현 일대가 연나라의 중심에 위치한지역이었으며 특히 연나라의 국토 ‘계’는 역현 부근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2) 연나라의 토착민

『서경書經』 「순전舜典」에 “만이활하蠻夷猾夏”라고 나온다. ‘만이’는 『서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고시대에 서쪽의 화하족이 동남방의 만이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였다. 연나라는 서주의 화하족이 동남쪽의 만이족을 공격하여 그 땅을 빼앗아 지금의 하북성 서남쪽에 세운 나라이다.

이 지역은 서주가 연나라를 세우기 이전까지는 화하족의 땅이 아니라 만이족의 땅이었다. 만이는 ‘만’은 남쪽의 만족, ‘이’는 동쪽의 이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동북과 동남방에 거주하던 우리 동이민족의 통칭이었다.

“과인은 만이족이 사는 궁벽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寡人蠻夷僻處)” 이것은 연 소왕이 자기 입으로 직접 한 말로서 『전국책』 「연책」 소왕 조항에 나온다. 연 소왕시대는 연나라가 건국된 지 700여년이 지나 완전히 한족의 지배체제가 정착된 시기이다. 그런데도 소왕은 자신이 한족의 땅이 아니라 만이의 땅에 살고 있다고 꾸밈을 하였다.

여기서 소왕이 말하는 ‘만이’는 다음의 『사기』 「조선열전」에 나오는 ‘만이’와 동일한 ‘만이’이다. “위만이 망명하여 무리 1000여명을 모아 상투를 틀고 만이의 옷을 입고 동쪽으로 도망쳐 변경을 빠져나갔다. (滿亡命 聚黨千餘人 魍結蠻夷服 而東走出塞)” “점차 진번 조선 만이족 및 연나라, 제나라에서 망명한 자들을 복속시켜 왕으로 되었다. (稍役屬眞番朝鮮蠻夷及燕齊亡命者王之)”

위만이 고조선으로 갈 때는 한족 옷을 벗어버리고 만이족의 옷으로 갈아입고 갔다. 또 패수를 건너서 고조선지역으로 와서는 진번 조선 등 만이족 국가와 연나라, 제나라 등 한족지역에서 망명 해온 사람들을 복속시켜 나중에 고조선 제후국의 왕으로 되었다. 『사기』에 나오는 이런 기록을 본다면 연나라 소왕이 언급한 ‘만이’는 사실 우리 고조선 민족과 그들의 동족을 가리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해경』 「해내북경」에 따르면 고조선은 “해북산남海北山南” 즉 발해의 북쪽, 갈석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서주의 제후국 연나라가 건국되기 1000여 년 전부터 갈석산 남쪽과 발해의 북쪽에서 터전을 이루고 살아온 나라가 고조선이다.

연나라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갈석산 서쪽 만이족의 땅에 등지를 틀고 고조선과 경계를 마주한 이웃나라가 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 지역에는 원래 고조선과 동족인 산용족이 살았을 것인데 연나라의 침략으로 인해 더 북쪽으로 쫓겨 갔을 것이다.

뒤에 연나라가 산용족의 침략을 받아 위기에 처하자 제환공이 연나라를 구제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산용, 고죽을 정벌한 기록이 『관자』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때의 전쟁은 산용족의 입장에서 보면 연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이 아니라 빼앗긴 고토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으킨 전쟁이었던 것이다.⁶⁾

우리는 지금 연나라라고 하면 한족 국가를 떠올린다. 그러나 연나라의 대다수 토착민은 만이족이고 이들은 우리와 뿌리를 같이하는 동이민족이었다. 연나라가 건국한 갈석산 서남쪽은 서주가 연을 건국하기 이전까지는 본래 고조선의 형제들이 살던 우리 동족의 땅이었던 것이다.

6) 이와 관련된 기록은 『관자』 「소광」, 『국어』 「제어」 등 여러 문헌에 나온다.

3. 연나라의 전성기 소왕시대

1) 연 소왕은 누구인가

소왕(서기전 335-서기전 279)은 중국 전국시대 연나라의 제 39대 임금이다. 쾌왕의 아들로 태어나 서기전 312년부터 서기전 279년까지 33년 동안 재위했다. 그 아버지 쾌왕은 무능한 군주로서 요순의 양위를 흉내 내다가 국가가 혼란에 빠졌고 이웃 제나라는 그 혼란을 틈타 연나라로 쳐들어 왔다.

『맹자』에는 이때 제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불과 50일 만에 연나라를 완전히 점령하여 “연나라의 조상을 모신 사당인 종묘를 헐어버리고 국가가 소장한 국보급의 중요한 물건들을 제나라로 가져갔다(毀其宗廟 遷其重器)”라고 적혀 있다.⁷⁾

국가가 존망의 기로에 선 위기의 시대에 아버지 쾌왕을 이어 왕위에 오른 소왕은 즉위 초기 내란으로 기울어진 국가를 바로세우고 제나라의 침략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 몸을 낮추고 폐백을 후하게 하여 훌륭한 현자를 초빙하고 유능한 인재를 받아 드리는 정책을 시행했다.

금빛 찬란한 호화로운 궁전을 지어 현명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맞아들여 거기서 거주하도록 했고 풍경이 아름다운 물가에 높고 아름다운 누각을 지어 황금 수천 냥을 가득 쌓아놓고 이를 현자들에게 예우하는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⁸⁾

이때 모여든 인재들이 곽외郭隗, 추연騶衍, 소진蘇秦, 극신劇辛 등이다. 악의樂毅 역시 이 시기에 위魏나라에서 연나라로 왔다. 소왕은 이들 유능한 인재들을 중용하고 내정을 개혁하여 국가가 차츰 부강해져 갔다.

이에 소왕은 악의를 중용하여 상장군으로 삼아 제나라의 공격에 나섰다. 진秦,

7) 『맹자』 「양혜왕 하」 “今燕虐其民 王往而征之 民以爲將拯己於水火之中也 簞食壺漿 以迎王師 若殺其父兄 系累其子弟 毀其宗廟 遷其重器, 如之何其可也”

8) 이와 관련된 기록은 『태평환우기』 「하북도 易州」 易縣 조항에서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초楚, 조趙, 위魏, 한韓 5국과 연합군을 형성하여 제나라를 공격했고 단숨에 제나라의 70여성을 점령했다. 제나라는 그 넓은 강토가 단지 거함, 즉묵卽墨 2성만 남고 모두 함락되는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소왕은 제나라가 멸망하기 일보직전인 서기전 279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뒤를 이어 아들 혜왕이 즉위하였다.

혜왕은 평소 악의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제나라에서는 연나라에 간첩을 들여보내 악의를 모함했다. 악의는 얼마 뒤 면직되었고 그 자리에는 무능한 기겁驕劫이 임명되었다. 연나라로의 귀국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악의는 부득이 조나라로 망명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기겁은 제나라와의 전투에서 대패하여 전사했다. 악의 없는 연나라 군대는 제나라의 상대가 되질 못했다. 얼마 후 제나라는 다시 잃었던 70여성을 모두 회복하였다. 소왕은 제나라를 쳐서 대승을 거두었으나 그의 갑작스런 죽음과 아들 혜왕의 어리석은 처사로 인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⁹⁾

동호를 공격하여 동방의 영토를 개척한 것을 소왕의 업적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국시대라는 당시의 전체판도로 볼 때 미미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다. 소왕은 연나라를 강대하게 만든 임금이 아니라 제나라에 대한 복수를 감행했던 임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2) 소왕시대 이전의 연나라 강역

『전국책』 「연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연나라는 동쪽에는 조선, 요동이 있고 북쪽에는 임호, 누번이 있고 서쪽에는 운중, 구원이 있고 남쪽에는 호타하, 역수가 있는데 지방이 2000 리쯤 된다. (燕東有朝鮮遼東北有林胡樓煩西有雲中九原南有滹沱易水地方二千里)”

소진이 연나라 군주인 문후(서기전 361-서기전 333)에게 한 이 말 속에는 오늘날 문후시대 연나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의 내몽고

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기』 「연소공세가」, 「악의열전」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치구 호화호특시呼和浩特市 탁극탁현托克托縣 고성촌古城村 서쪽에 전국시대 운중군의 옛 성터가 보존되어 있다.

구원군은 운중군에서 좀 더 서쪽에 위치한 지역이다. 지금의 내몽고 호화호특시 서쪽에 있는 포두시包頭市 일대가 그 지역으로 오납특전기烏拉特前旗 부근에 유적이 보존되어 있다. 이는 서기전 300년 전후 춘추전국시대에 조나라가 흉노의 땅을 빼앗아 쌓은 군청의 청사 유적으로 중국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연나라의 남쪽 국경선에 위치했던 호타하와 역수는 현재 하북성 보정시 부근에 있는 강으로 북경시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¹⁰⁾

연나라의 강역이 2000 리였는데 그 서쪽 국경이 지금의 내몽고 서쪽 포두시 부근이고 그 남쪽 국경이 호타하, 역수부근이었다면 문후 당시에 연나라의 강역은 현재의 내몽고 서쪽, 산서성 동쪽, 하북성 서남쪽에 걸쳐 2000 리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대 중국인의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은 완성된 숫자를 기록하는 것이 하나의 상례처럼 되어 있었다. 예컨대 연나라의 강역이 1700 리였을 경우 이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2000 리로 기록한다. 1700이라는 미완의 수보다는 거기에 300을 채워서 2000이라는 완성의 수자를 기록하는 특성이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문후시대 연나라의 강역은 소진은 비록 2000 리쯤 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2000 리가 채 안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만일 2000 리를 초과했다면 성수를 말하기를 좋아하는 저들의 원칙에 따라 2000 리가 아닌 3000 리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 소왕은 문후가 퇴위한지 불과 21년 후에 왕위에 오른 인물이다. 소진의 다소 과장이 섞인 표현가운데도 문후시대의 강역이 2000 리쯤 된다고 말한 것을 본다면 소왕시대 이전의 연나라 강역은 1000 리는 넘었지만 2000 리가 채 안 되는 작은 나라였던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10) 金景芳, 『戰國七雄』, 『中國奴隸社會史』, 상해인민출판사, 1983, 361쪽, 조운전, 「진한시기의 북방」, 『북강통사』, 중주고적출판사, 2002, 45-47쪽 참조

2) 전성기 소왕시대의 연나라 강역

연나라는 소왕시대에 국력이 다소 신장되고 강역이 확대되었다. 『한서』 「지리지」 에는 연나라의 확대된 강역의 넓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서주무왕이 은나라를 평정한 후 소공을 연 땅에 봉했다. 그 뒤 36대에 이르러 다 른 6국과 함께 왕을 자칭하였다. 동쪽에는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이 있고 서쪽에는 상곡, 대군, 안문이 있다. 남쪽으로는 탁군의 역, 용성, 범양을 얻었다. 북쪽으로는 신성, 고안, 탁현, 양향, 신창 및 발해의 안차가 다 연나라의 분야이다. 낙랑, 현도 역시 여기에 속해야한다. (武王定殷 封召公于燕 其后三十六世 與六國俱稱王 東有漁陽 右北平 遼西 遼東 西有上谷 代郡 雁門 南得涿郡之易 容城 范陽 北新城 故安 涿縣 良鄉 新昌 及渤海之安次 皆燕分也 樂浪 玄菟 亦宜屬焉)”

『전국책』 에 나오는 연 문후시대의 기록에는 “연나라의 동쪽에 조선과 요동이 있다”라고 되어있다. 이는 요동이 연나라의 영토가 아니라 강역밖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서』 「지리지」 에는 요동군이 연나라의 5군 중의 하나로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문후시대에는 보이지 않던 상곡군, 어양군, 우북평군 등이 연나라의 강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곡군, 어양군, 우북평군, 요서군, 요동군 이 5군은 소왕시대에 진개가 동호의 땅 1천리를 빼앗아 설치한 군이다. 그래서 문후시대의 강역을 설명한 『전국책』 에는 이 5군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한서』 「지리지」 에는 연나라의 강역에 5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내용은 연나라가 소왕시대에 이르러 북방으로 강토를 넓힌 전성기시대의 강역을 설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동방의 5군을 뺀 나머지 지역, 즉 소왕시대 이전의 연나라 강역으로 거명된 지명들은 오늘날에도 중국지도상에서 그 대부분의 확인이 가능하다. 하북성 탁주시 남쪽에 용성, 신성, 고안현 등의 『전한서』 에 나오는 연나라의 옛 지명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전국책』 「연책」 , 『전한서』 「지리지」 의 기록을 통해서 본다면 연나라는 소왕 이전에는 내몽고 서쪽과 산서성 동쪽, 하북성 서남쪽 탁주시, 보정시 사이에 걸쳐서 동서로는 길고 남북으로는 짧은 왜소한 강역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때까지는 하북성 북쪽의 북경시 일대는 연나라 강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소왕시대에 이르러 진개의 간교한 계략에 의해 동호 땅 1000 리를 탈취하여 여기에 장성을 쌓고 상곡군, 어양군, 우북평군, 요서군, 요동군을 설치하여 동방으로 영토를 확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때 연나라의 진개가 동호 땅을 빼앗아 설치한 5군이 모두 현재의 하북성 서쪽과 북쪽,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가령 상곡군은 군청 소재지가 하북성 장가구시張家口市 회래현懷來縣 부근에 있었다. 큰 산골짜기 위에 군청의 청사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상곡군이라고 하였다.

어양군은 군청 소재지가 지금의 북경시 동북쪽의 밀운현 일대에 있었다. 어수漁水 즉 현재 백하白河의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어양군이라고 하였다.

우북평군은 군청 소재지가 지금의 내몽고 영성현 서남쪽에 있었고 요서군, 요동군은 하북성 당산시, 천진시, 보정시 부근에 있었다. 진개가 동호의 땅을 빼앗아 설치한 5군이 모두 오늘날의 북경시 서쪽, 북쪽, 동쪽 지역에 위치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진개가 동호의 땅을 빼앗기 이전에는 오늘날의 하북성 서북쪽의 장가구시로부터 북경시 동남쪽에 이르기까지 발해만 유역일대가 모두 연나라의 땅이 아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연나라는 소왕시대 이전에는 지금의 내몽고자치구 서쪽, 산서성 동쪽, 하북성 서남쪽에 걸쳐 1000여리의 강토가 있었고 그 전성기인 소왕시대에 이르러 동방으로 강역을 넓혀서 북경시를 중심으로 그 서쪽, 동쪽, 남쪽 땅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연나라는 그 이전은 물론 전성기인 소왕시대의 강역도 오늘날의 하북성 동남쪽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발해는 한나라 때 설치한 행정구역으로서의 발해군을 가리킨다. 하북성 동남쪽 발해만 지역에 있었다. 『한서』 「지리지」에 의하면 발해군에 안차현이 소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발해군은 한 고조시대에 최초로 설치하여 부양浮陽 즉 현재의 하북성 창주시滄州市 창현滄縣을 치소로 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북성 창주시 동부, 산둥성 덕주시 동북부 (악릉, 경운일대) 산둥성 빈주시 북부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한서』 「지리지」의 기록을 통해서 연나라 때는 한의 발해군 전체가 아니라 발해군 중에서 안차현 1개 지역만이 연나라의 강역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서』 「지리지」는 “낙랑, 현도도 연나라에 속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낙랑, 현도 역시 연나라에 속해야한다.(樂浪 玄菟 亦宜屬焉)”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의宜’자를 사용하여 강조한 것을 보면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기사임을 알 수 있다.

한나라의 발해군은 현재의 하북성 창주시 동부, 산둥성 덕주시 동북부 (악릉, 경운 일대) 산둥성 빈주시 북부에 있었고 낙랑군은 그 동북쪽의 진황도시, 당산시, 천진시, 보정시 일대에 있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연나라 소왕 때 낙랑군과 현도군 전역이 모두 연나라에 소속되었을 수는 없고 다른 문헌 기록과도 맞지 않다. 아마도 발해군 중의 안차현 하나가 연나라에 소속되었던 것처럼 발해군과 이웃해 있던 낙랑군 지역도 그 중의 1, 2개현이 연나라 땅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다.

3) 연나라는 강대국이 된 적이 없다.

『전국책』 「연책」 문공 조항에 “연나라는 약소국이다.(燕弱國也)”라고 보인다. 소진이 연나라의 봉양군奉陽君 이태李兌와 나눈 대화 가운데 나오는 말이다. 봉양군은 연나라의 고위관료다. 연나라가 약소국이었다는 것은 위로는 임금과 관료, 아래로는 일반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로서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야기였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이를 전혀 거북하게 여기거나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과인의 나라는 약소국이다. 서쪽으로는 강한 진나라와 마주했고 남쪽으로는 제나라, 조나라와 가깝다. 제나라, 조나라는 강대국이다.(寡人國小 西迫強秦 南近齊趙 齊趙強國也)” 이것은 연나라 문후가 한 말이다. 『전국책』에 나온다. 연나라의 최고 통치자의 뇌리에는 항상 진나라, 제나라, 조나라는 강대국이고 연나라는 약소국이라는 관념이 박혀 있었음을 보여준다.

“무릇 천하에 7개의 전국이 있는데 연나라는 약소국에 속한다.(凡天下之戰國七而燕處弱焉)” 이것은 『전국책』 「연책」의 쾌왕嚳王(서기전 320-서기전 312) 조항에

나오는 내용이다. 쾌왕은 소왕의 아버지로서 역왕의 뒤를 이어 9년 동안 재위하였다. 그러나 쾌왕시대에도 국력은 크게 신장되지 않았다. 전국 7웅 중에서 가장 약소 국가로 머물러 있었던 사정을 이 기록이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전국책』 쾌왕 조항에서는 또 연나라는 약소국이라 “강대한 나라를 잘 섬기는 것이 국가가 영원히 안녕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책이다 (事強可以令國安長久 萬世之善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가 연나라는 약소국이므로 강대국을 잘 섬겨서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믿었던 것을 본다면 소왕의 아버지 쾌왕시대의 연나라가 강대국이 아니었던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 쾌왕의 뒤를 이어 망해가던 연나라의 왕에 취임한 인물이 바로 소왕이다.

사마천은 『사기』 「연소공세가」에서 서주의 소공이 연에 분봉된 이후 연 희왕시대에 이르러 진시황에 의해 멸망하기까지의 연나라 800년 역사를 다루고 그것을 총평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연나라가 밖으로는 만맥과 인접하고 안으로는 제나라, 진나라 중간에 끼어 있었다. 기구하게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던 가장 약소한 나라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간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燕外迫蠻貊 內措齊晉 崎嶇強國之間 最爲弱小 幾滅者數矣)”

사마천의 이 총평은 연나라가 시종일관 약소국가로 존재했으며 강대국이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연나라가 만일 소왕시대에 강대국으로 부상했다면 사마천이 왜 그 점을 대서특필하지 않고 “강대국들 사이에 낀 가장 약소한 나라였다”는 사실만을 부각시켰겠는가.

연나라는 서기전 222년에 진시황에 의해 멸망했다. 이것이 소왕 사후 불과 50여년 뒤의 일이다. 잠시 반짝했던 소왕의 업적은 소왕의 갑작스런 죽음과 함께 물거품이 되었고 그 뒤 다시 약소국으로 전락했다가 진시황에 의해 멸망한 것이다.

그래서 사마천은 제나라 역사를 다룬 「제태공세가」에서는, 총평에서 “거룩하도다. 대국의 풍모이다.洋洋哉 固大國之風也”라는 찬사를 남겼지만 연나라 역사를 다룬 「연소공세가」에서는 “기구하게 강대국들 사이에 낀 가장 약소한 국가였다(崎嶇強國之間 最爲弱小)”라는 총평을 하였던 것이다.

4) 연나라를 강대국으로 오인하게 된 배경

약소국가였던 연나라에 대해 뒤에 강대국으로 오인을 하게 된 배경이 있다. 그 빌미는 바로 『위략魏略』에 나오는 연나라의 고조선 정벌기사가 제공했다. 배송지裴松之는 『삼국지』 주석에서 『위략』을 인용하여 “진개가 고조선을 정벌하여 서쪽 땅 2000 리를 빼앗고 만변한을 경계로 삼았으며 조선이 드디어 약화되었다.”라고 말했다.¹¹⁾

사실 『위략』의 이 기사는 『사기』 「흉노열전」의 “진개가 동호의 땅 1000 리를 빼앗아 장성을 쌓고 거기에 또 5군을 설치했다.”라는 기록과 같은 내용이다. 동일한 사건을 소재로 다룬 것인데 단지 동호를 조선으로 명칭을 바꾸어 표기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를 각기 다른 두 가지 사건으로 간주하다보니 진개가 동호의 땅 1000 리와 고조선의 땅 2000 리를 빼앗아 모두 3000 리 영토를 넓힌 것으로 되어 연나라가 5000 리 강역을 소유한 강대한 나라로 오인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사기』 「흉노열전」의 동호와 어환 『위략』의 고조선은 서로 다른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동일한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사기』 「흉노열전」에서 사마천은 진개가 동호의 땅 1천리를 빼앗았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고조선 땅 2천리를 빼앗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진개가 동호의 땅 1000 리를 빼앗은 것과 별도로 고조선 땅 2000 리를 빼앗았다면 이는 사건의 중요도로 볼 때 동호에서 거둔 성과를 훨씬 능가한다. 그런데 동호의 땅 1천리 빼앗은 것은 언급하면서 그보다 배나 많은 고조선 땅 2천리를 빼앗은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전국책』에 “연나라 동쪽에 산융, 동호가 있고 산융, 동호를 지나서 조선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연나라 동쪽에 조선, 요동이 있다(燕東有朝鮮遼東)”라고 하였다. 『사기』 「연 소공세가」에서는 “연나라가 밖으로 산융, 동호와 마주하고 산융, 동호를 지나서 만족, 맥족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연나라가 밖으로 만족, 맥족과 마주하고 있다(燕外迫蠻貊)”라고 하였다. 『사기』 「화식열전」에는 “연나라가 동쪽

11) 『三國志』 「魏志」 東夷傳의 “爲燕亡人衛滿 所攻奪”에 대한 裴松之의 주석에 삼국시대 魏나라 사람 魚豢의 『魏略』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后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 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潘汗 爲界 朝鮮遂弱”

으로 산융, 동호의 이익을 관장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연나라가 동쪽으로 예맥, 조선, 진번의 이익을 관장한다.(東縮濊獯朝鮮眞番之利)”라고 하였다. 이는 고조선이 산융, 동호지역을 지나서 별도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연나라 동쪽에 고조선과 예맥족이 바로 붙어 있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¹²⁾

선비족 모용은의 비문에서는 “조선건국”을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비족의 뿌리가 고조선에 닿아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오환, 선비는 삼국시대의 동호이고 예맥, 고조선은 전국시대의 동호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조선과 고구려가 직접 호, 또는 동호로 표기된 경우도 다른 여러 문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¹³⁾ 사마천이 『흉노열전』에서 동호의 일만 언급하고 고조선은 빼놓은 것은 고조선이 곧 동호로서 이 양자가 실체는 하나였기 때문이다.

둘째 연나라 진개가 동호 땅 1000 리와 고조선 땅 2000 리를 빼앗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약소국인 연나라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사마천이 『사기』 「흉노열전」에서 실수로 고조선 문제를 빠뜨렸다면 연나라의 역사를 총 정리한 글인 「연소공세가」에서 다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연소공세가」에 진개가 고조선을 정벌하여 2000 리 땅을 빼앗아 만번한을 경계로 삼았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셋째 사마천은 『사기』 열전에서 각국의 유명한 장수들의 열전을 실고 있다. 연나라 장수로는 소왕시기 장수 「악의樂毅열전」을 실었다. 진개가 동호 땅 1천리를 빼앗고 또 고조선 땅 2천리를 빼앗아 본래 2천리였던 연나라의 강토에 3천리를 더 하여 5000 리로 넓혔다면 연나라에서 진개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같은 존재로서 그가 거둔 공로는 악의에 내리지 않는다. 당연히 「진개열전」을 썼어야 옳다. 그러나 사마천은 「진개열전」을 쓰지 않았고 사마천 『사기』 어디에서도 진개가 고조선 서쪽 땅을 공격하여 2천리를 빼앗아 만번한을 경계로 삼았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넷째 진개의 고조선 정벌 기사는 사마천 『사기』에만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12) 노태돈과 송호정은 동호와 고조선을 별개의 실체로 보았다. 연의 동북쪽에 동호가 있고 동호의 동쪽에 고조선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노태돈, 「고조선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11, 85쪽, 송호정, 「기원전 5-4세기 ‘연’의 동진과 조선연맹체의 형성」, 『한국고대사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245쪽 참조

13) 『한서』 「지리지하」 현도군 조항 주석에는 “應劭曰 故眞番朝鮮胡國” “應劭曰 故句驪胡” 라는 기록이 인용되어 있다. 이것은 고조선과 고구려가 모두, 호 또는 동호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전국책』에서도 그러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전국책』은 전국시대초기부터 진시황제가 동방의 6국을 멸망시키기까지 약 240년 동안의 역사를 다룬 책이다.

『전국책』은 전국시대를 전문적으로 다룬 책으로 여기에는 당연히 연나라 역사를 기록한 「연책」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 「연책」안에 연나라가 고조선을 정벌하여 2000 리를 빼앗고 만변한을 경계로 삼았다는 기록은 없다.

진개가 고조선 땅을 빼앗은 일이 동호의 땅을 빼앗은 일과 별개의 사안이라면 사마천이 실수로 「홍노열전」에서 빠뜨렸더라도 이 기록은 마땅히 『전국책』에는 실려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국책』 「연책」에 진개의 고조선 정벌과 관련된 기사는 단 한 줄도 없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사마천이 「홍노열전」에서 진개가 동호를 공격하여 1000 리 땅을 빼앗아 거기에 장성을 쌓고 5군을 설치했다고 말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이 동호는 곧 고조선을 가리킨 것이다. 그래서 사마천은 진개가 고조선을 공격하여 땅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별도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삼국시대에 이르러 어환이 『위략』을 저술할 때 이 사건을 기술하면서 「홍노열전」의 동호를 고조선으로 바꾸어 표기한 것이다. 『위략』에는 진개가 빼앗은 땅의 넓이가 1천리에서 2천리로 된 것은 필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자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오류라고 본다.

그리고 진개가 동호의 땅 1천리를 빼앗은 것과 고조선의 땅 2천리를 빼앗은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이때 진개가 빼앗은 동호의 땅이 바로 고조선 땅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요동군이다.

요동은 연 소왕시대 이전 문후 당시만 하더라도 연나라의 강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진개가 동호의 땅을 빼앗아 거기에 5군을 설치하고 장성을 축조했는데 이때 요동군이 연의 강토에 포함되었다. 본래 동호의 땅이었던 요동이 연의 5군 중에 맨 동쪽에 위치한 요동군이 되어 고조선과 접경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이 연나라의 요동군이 진제국이 설치한 요동군, 한나라에서 설치한 요동군과 그 위치가 다르다면 진개가 공격한 동호와 고조선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체인 것이 맞다. 그러나 진개가 동호 땅을 빼앗아 설치한 요동군, 진제국이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설치한 요동군, 한나라때 설치한 요동군은 동일한 고조선 접경 지역이었다.

이는 동호 땅을 빼앗아 설치한 5군은 바로 고조선 땅을 빼앗아 설치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본다. 진개가 동호를 공격하여 그 땅을 빼앗아 청천강을 경계로 요동군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면서 동호와 고조선이 다르다고 강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4. 연 소왕시대 연나라와 고조선의 경계

1) 소왕시대 연나라의 동쪽 경계 양평襄平

약소국이었던 연나라는 소왕시대에 이르러 남쪽의 강역은 변동이 없었지만 동쪽으로 강역이 확대되었다. 그러면 소왕시기에 연나라의 동쪽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였을까. 이를 알아보는데 가장 중요한 참고가 되는 것은 『사기』 「흉노열전」이다.

사마천은 『사기』 「흉노열전」에서 “연나라에 어진 장수 진개가 있어 동호에 인질로 가게 되었는데 동호가 매우 신임하였다. 진개는 연나라로 돌아와 동호를 습격하여 격파하고 1천리를 퇴각시켰다. (...) 연나라는 또한 장성을 쌓아 조양으로부터 양평까지 이르렀으며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군을 설치하여 동호를 방어하였다. (燕有賢將秦開 爲質於胡 胡甚信之 歸而襲破走東胡 東胡却千餘里 (...)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置上谷 漁陽 右北平 遼西 遼東郡 而拒胡)”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사마천이 말한 연 장성의 서쪽 출발지점인 조양과 동쪽의 끝나는 지점인 양평의 위치가 밝혀지면 소왕 때 확대된 연나라의 동북방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연은 동쪽으로는 고조선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으므로 연 장성의 동단인 양평의 소재지가 현재 어느 지점인지 확인할 수 있다면 연나라가 전성기를 구가했던 소왕시대에 연과 고조선의 경계가 어디였는지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조양의 위치에 대해서는 『사기집해』에 위소韋昭의 말을 인용하여 “지명이다. 상곡에 있다.(地名在上谷)”라고 말하였다. 위소(204-273)는 중국 삼국시대의 저명한

역사학자이다. 연나라 소왕 때 쌓은 장성의 서쪽 출발지점은 상곡군 조양, 현재의 북경 서쪽 탁록 일대에 있었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연 장성의 동쪽 끝나는 지점인 양평의 위치가 과연 어디냐 하는 것이다.

『사기색은』은 당나라시대 사마정司馬貞이 지은 책이다. 『사기색은』에서는 양평은 “지금 요동의 치소이다.(今遼東所理)”라는 위소가 한 말을 간단히 인용하고 있다. 연장성의 동단 양평이 요동군의 치소라고만 짚막하게 언급하고 당나라 당시에 양평이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 다른 일체의 상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어 안타깝다. 그러면 당나라 때 요동군의 치소였던 양평의 실체를 찾기 위해서는 다른 문헌의 기록을 뒤져보는 수밖에 없다.

2) 연 소왕시대의 양평은 당나라시대의 안동부安東部

당나라 때 유명한 학자인 두우杜佑가 쓴 『통전通典』을 살펴보면 거기에 연나라 때 설치한 5군과 5군 중에 가장 동쪽에 위치했던 요동군의 양평현에 관해 비교적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것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연나라 장수 진개가 동호를 습격하여 격파하고 1000 여리를 퇴각시켰다. 연나라는 또한 장성을 축조하여 조양으로부터 양평까지 이르렀다 조양은 지금 위천군의 북쪽에 있다. 양평은 바로 요동군의 치소이다. 지금의 안동부이다. (燕將秦開 襲破東胡 却千餘里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造陽 在今爲川郡之北 襄平即遼東所理 今安東府)”

두우는 연나라 때 설치한 요동군의 치소 양평현은 당나라시대 안동부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다. 당나라시대의 안동부가 연나라시대의 양평으로서 이 양자가 동일한 지역일 경우 안동부의 위치가 밝혀지면 양평의 위치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당나라 때 안동부가 어디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두우의 『통전』 「주군」 10, 고청주古靑州 조항에 안동부가 나온다. 이 기록에 따르면 옛 청주 즉 오늘날의 산둥성 지역에 당나라 때 6개의 군과 1개의 부를 설치했는데 그 군과 부는 다음과 같다. 북해군北海郡, 제남군濟南郡, 치천군淄川郡, 고밀군高密郡, 동래군東萊郡, 동모군東牟郡, 안동부安東部

당나라 때 동래군은 액현, 교수현, 즉묵현, 창양현 4현을 관할했는데 즉묵은 지금

도 중국지도상에 나온다. 산둥성 청도시 동쪽에 있다. 당나라 때 동모군은 봉래현, 문등현, 황현, 모평현을 관할했다. 현재의 중국 지도상에서 위해시 남쪽에 문등시와 모평현, 봉래현 등의 지명을 찾아볼 수 있다.

두우의 『통전』은 당나라 때 설치한 동래군과 동모군이 오늘날의 산둥성 동쪽 청도시, 문등시, 연태시, 위해시 일대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면 동모군 옆에 설치한 안동부는 어디쯤에 있었을까. 지금 중국지도상에서 안동부는 흔적조차 나타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다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래군이나 동모군의 위치로 볼때 당나라시기에 설치한 안동부가 대동강 유역의 평양지역이 될 수는 없다. 산둥성의 동모군과 이웃하여 안동부가 산둥성 북쪽 하북성 남쪽 어딘가에 있었다는 것은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나라 때 산둥성 동모군 부근에 설치한 안동부가 바로 연나라시대 진개가 동호의 땅을 빼앗아 쌓은 장성의 동단인 요동군 양평현이라고 말한 『통전』의 저자 두우는 과연 누구인가.

두우(735-812)는 당나라 때의 유명한 정치가요 군사가이자 역사가였다. 36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통해 『통전』 200권을 편찬했다. 그야말로 일생정력을 여기에 바친 셈이다. 그런데 두우가 태어나서 활동한 시기는 당 현종시기부터 당 헌종시대로 77세까지 살았다.

당 고종은 668년 고구려를 공격하여 평정하고 그 수도 평양성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했다. 두우가 『통전』에서 말한 안동부는 바로 이 연나라시대의 양평, 고구려시대의 평양성, 당나라시대의 안동도호부를 가리킨 것이다.

두우는 고구려가 망한 후 67년 뒤에 태어난 인물이다. 그러므로 두우가 직접 고구려 전쟁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는 고구려에 참전한 사람들이 아직 생존하여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일제시대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위안부문제를 생존자들을 통해 생생한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우도 당과 고구려의 전쟁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생존자를 통해서 생생한 증언을 듣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기였다.

또 두우는 재상을 지내기도 했지만 절도사의 직도 여러 차례 역임했다. 때로는 조

정에서 국정을 논단하는 대신이었고 때로는 칼을 잡고 나가 전쟁터를 누빈 용감한 장수이기도 했다. 두우는 백면서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출장입상의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세상물정에 어두운 백면서생이라면 모르되 출장입상한 두우가 40년 가까이 공 들여 쓴 저서 『통전』, 그것도 시간적으로 불과 70년 전의 일을 기록하면서 한반도 대동강 유역 평양에 설치한 당나라의 안동도호부를 산동성 부근에 있다고 말했을 이는 만무하다.

더구나 안동도호부의 위치가 대동강 유역이나 산동성 북쪽이나 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당나라가 새로 확보한 동쪽의 만리 강토가 걸린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제대로 자료 검증도 하지 않고 경솔하게 한반도 대동강 유역에 있던 안동도호부를 산동성 쪽으로 끌어다 놓는 일은 두우가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두우의 『통전』 뿐만 아니라 송나라의 낙사가 쓴 『태평환우기』에도 안동도호부는 하북도 조항에 실려 있다. 이는 안동도호부가 대동강 유역이 아니라 하북성 남쪽에 있었다고 말한 당나라 두우의 설명이 오류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3) 당나라시대의 안동부는 서진시대의 평주平州

두우는 당나라시대의 안동도호부가 있던 곳이 연나라시대의 양평지역이라고 말했다. 양평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당나라시대에 안동부가 있었던 위치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우가 『통전』의 「주군」 안동부 조항에서 안동부의 위치를 설명 한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두우는 안동부를 설명하는 서두에서 먼저 안동대도호부라는 명칭을 언급한다. 이는 당나라 고종시기 안동부를 승격시켜 고구려의 평양성에 안동대도호부를 설치한 사실을 가리킨 것이다. 이어서 두우는 “안동대도호부는 요수의 동쪽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요수의 동쪽에 안동도호부가 있다고 말한 두우의 관점은 대동강 유역에 안동도호부가 설치되었다고 보는 한국 강단사학의 관점과 크게 다르다.

그리고 “안동도호부는 춘추전국시대에는 연나라에 속했고 진제국과 서한, 동한시대

에는 이 지역을 요동군이라 하였으며 동쪽으로 낙랑과 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¹⁴⁾ 이는 진제국, 양한시대에는 이 안동도호부가 있던 지역이 요동군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우의 다음 문장에 주목하게 된다. “진인지 겸치평주(晉因之 兼置平州)”. “진인지”는 서진시대에 진제국과 양한시대처럼 여기에 요동군을 그대로 설치했다는 의미이고 “겸치평주”는 “아울러 평주를 설치했다”는 뜻이다.

서진시대에는 본래의 요동군이 있던 지역을 창려, 요동, 현도, 대방, 낙랑 5개의 군과 국으로 분할한 다음 상부기구로 평주를 설치하여 이 5개의 군,국을 관할하도록 했다. 두우는 서진시대에 요동군의 행정구역이 하나의 요동군에서 5개의 군,국으로 분할되고 또 평주가 새로 설치된 사실을 “진인지 겸치평주(晉因之 兼置平州)”라는 7자로 요약한 것이다.

요동군 양평현은 서진시대에 평주의 치소이기도 하였다. 양평현이 평주의 치소였다는 사실은 북위시대 역도원의 『수경주』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상흠은 대요수가 “요동군의 양평현 서쪽을 경유한다(過遼東襄平縣西)”라고 말했는데 역도원은 이 상흠이 말한 양평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진시황 22년에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요동군을 설치하여 이곳을 치소로 했다. 한고제 8년에 기통을 봉하여 후국으로 삼았고 왕망시대에는 창평이라고 하였다. 옛 평주의 치소이다.(秦始皇二十二年 滅燕置遼東郡治此 漢高帝八年 封紀通爲侯國 王莽之昌平也 故平州治)”

역도원의 『수경주』와 두우의 『통전』에 따르면 연, 진, 한시대의 요동군 양평과 위, 진시대의 평주는 동일한 지역이다. 특히 양평은 서진시대 평주의 치소로서 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전국시대 양평의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하는데 있어 위진시대 평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작업이 매우 유효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서진시대의 행정체계는 주가 군보다 상위 기구로 존재했다. 그러나 당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제도가 바뀌었다. 군 밑에 주와 현을 거느리게 되었다. 그래서 당나라 때는 북평군 산하에 평주가 소속되어 있다.

14) 이와 관련해서는 두우의 『통전』 180권, 주군10, 古靑州, 안동부 조항에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두우의 『통전』 「북평군 평주」 조항에 보면 당나라 때 평주는 현재의 하북성 진황도시 노룡현을 치소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가 “은나라 때는 고죽국 땅이었고 진제국, 한나라시기에는 우북평군, 요서군, 2군, 진나라, 후위시대에는 요서군 지역이었으며 수당시대에는 북평군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두우의 『통전』 에 의하면 오늘날의 산동성 서북쪽 하북성 동남쪽 일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의 하북성 진황도시, 당산시 일대가 당나라 때 평주가 있었던 지역이다.

요동군 양평현이 평주에 있었다는 것은 두우의 『통전』 , 역도원의 『수경주』 뿐만 아니라 『후한서』 「원소열전」 의 주석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양평현은 요동군에 소속되어 있다. 옛 성이 지금의 평주 노룡현 서남쪽에 있다.(襄平縣屬遼東郡 故城在今平州盧龍縣西南)”

이 기록은 특히 양평현의 옛 현성이 “평주 노룡현의 서남쪽에 있다”라고 하여 노룡현이라는 구체적인 지명과 서남쪽이라는 구체적인 방향을 적시하여 말함으로써 오늘날의 하북성 동남쪽 진황도시 노룡현의 서남쪽에 요동군 양평현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다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다.

범엽이 쓴 『후한서』 의 「기전紀傳」 부분은 당 고종의 아들 장희태자章懷太子 이현李賢이 주석을 냈다. 「원소열전」 에 보이는 이현의 주석은 연나라 전성기 소왕 시대에 고조선과 연나라의 경계가 지금의 하북성 노룡현 서남쪽 일대였다는 것을 실증해주는 결정적인 자료라고 하겠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고종의 아들 이현이 고조선의 강역을 늘이기 위해 연나라의 동쪽 경계 양평을 진황도시 노룡현으로 조작했음을 만무하기 때문이다.

4) 하북성 노룡현 서남쪽이 소왕시대 연과 고조선의 경계였다

『사기』 , 『통전』 , 『수경주』 , 『후한서』 등 지금으로부터 1500년, 2000년 전의 기록을 검토할 때 연의 전성기 소왕시대에 5군의 설치와 함께 축조한 연 장성의 동단은 양평이고 그 양평은 지금의 하북성 진황도시 노룡현 서남쪽에 위치해 있

있던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이 지역이 연과 고조선의 경계였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소왕시대 연과 고조선의 경계가 하북성 노룡현 서남쪽이었다는 것은 비단 『통전』, 『수경주』, 『후한서주』 등에 의해서만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 전국시대에 고조선이 발해만과 갈석산 부근에 강역이 있었다는 다른 여러 문헌의 기록들도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예컨대 『산해경』에 “발해의 모퉁이에 조선이 있다” “발해의 북쪽, 갈석산 남쪽에 조선이 있다.” 『회남자』에 “갈석산을 지나서 조선이 있다.” 『전한서』에 “한 무제가 동쪽으로 갈석산을 지나서 낙랑, 현도군을 설치했다.” 두로 영은의 비문에 “조선이 요서에서 건국했다.” 『무경총요』에 “북경과 고북구 사이에 조선하가 있다.” 『태평환우기』에 “하북성 노룡현에 조선성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런 『사고전서』의 사료에 따르면 고조선은 전국시대에 발해만 북쪽, 갈석산 남쪽, 현재의 북경시 서남쪽에서 연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다가 연 소왕시대에 진개가 갈석산 동남쪽의 고조선 서쪽 땅 일부, 현재의 북경시 부근을 빼앗아 거기에 상곡군, 어양군, 우북평군, 요서군, 요동군을 설치하자 본래 하북성 서남쪽에서 국경을 마주했던 연과 고조선은 다시 하북성 동남쪽을 경계로 국경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역사학계는 요녕성의 요양현이 연나라시대의 양평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요동군 양평 관련 모든 기록에는 ()를 하고 그 안에 요양이란 글자를 적어 넣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15)

현대 중국의 학계에서 이처럼 지금의 요녕성 요양현을 고대의 요동군 양평현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요양현에서 연나라시대 유물이 몇 점 나왔다는 것이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의 전부이다. 문헌기록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연나라시기 유물이 몇 점 발굴되었다고 그곳을 모두 양평으로 간주한다면 중국에 아마 양평이 수 백 군데가 될 것이다.

15) 한 두 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趙雲田, 「전한시기의 北疆」, 『北疆通史』, 중주고적출판사, 2002, 46쪽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燕國從造陽(今河北懷來)至襄平(今遼寧遼陽)修築長城”. 李治亭, 「燕在東北首次設郡」, 『동북통사』, 중주고적출판사, 2003, 601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北長城 自造陽至襄平 造陽即今河北省赤城以北之獨石口 襄平即今遼寧省遼陽市北”. 『북강통사』와 『동북통사』는 중국변강통사총서로서 중국의 동북공정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들이다.

그러면 『통전』, 『수경주』, 『후한서주』를 비롯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여러 고대 문헌에서 이미 양평은 하북성 동남쪽 당나라 때의 북평군, 현재의 노룡현 부근에 있었다고 분명한 기록이 나오는데도 현대 중국에서는 굳이 기를 쓰고 이를 요녕성의 요하동쪽으로 끌어다 놓으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중국이 동북방의 역사주권을 탐내는 데 요인이 있다. 연나라의 동쪽 경계 요동군 양평이 요하동쪽의 요양이라면 청천강 서쪽이 모두 연나라 요동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논리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역사침탈을 시도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 역사학은 고고유물을 빙자한 중국학계의 이런 주장들을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되며 그것이 고대의 문헌기록과 정확히 부합될 때에만 이를 수용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5. 『위략』의 ‘연과 고조선의 경계가 만번한滿潘汗’ 이라는 기사의 문제점

1) 『위략』의 사료적 가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수경주』, 『통전』, 『후한서주』와 같은 권위 있는 사료에 의거해 검토할 때 연의 전성기 소왕시대에 고조선과 연의 경계가 하북성 동남쪽이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 통하지 않는 것이 또한 오늘의 현실이다. 연과 고조선의 경계가 만번한이었고 만번한은 지금의 청천강 부근의 지명이었다는 것이 중국과 한국 학계의 통설처럼 되어 있다.

연과 고조선의 경계를 논하는데 있어 중국은 『수경주』, 『통전』, 『후한서주』와 같은 사료는 다 제쳐두고 『위략』의 만번한 기록만을 근거로 삼는다.¹⁶⁾ 한국의

16) 이치정, 「商周封侯于東北」, 『동북통사』, 2003, 중주고적출판사, 55-59쪽 참조.

강단사학은 사료의 비판적 검토 없이 중국의 견해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략』은 사료적 가치로 볼때 문제가 많은 책이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연과 고조선의 경계가 한번한이었다고 최초로 주장한 『위략』의 사료적 가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위략』은 삼국시대 사람 어환이 편찬한 책이다. 그의 생졸 연대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그의 글 『위략』 가운데 가평嘉平 6년(254)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다. 이것은 그가 서기 254년을 전후해서 활동한 사실을 말해준다.

연 소왕시대는 서기전 311년-서기전 279년으로 본다. 그러면 『위략』의 저자 어환과 전국시대의 연 소왕시대와는 약 500여년의 시차가 있다. 진개의 만번한 기사가 연나라 당시의 기록인 『전국책』이나 한나라 때 기록인 『사기』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5백 여 년 뒤 삼국시대 어환의 『위략』에 갑자기 튀어나온 다는 것은 분명 사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둘째 진개의 만번한 기사는 『전국책』, 『사기』, 『한서』, 『후한서』에는 보이지 않고 『삼국지』에 처음 나타난다. 그러나 진수의 『삼국지』에도 원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북조시대 송나라 사람 배송지가 쓴 『삼국지』 주석에 보인다. 『삼국지』 원문에는 만번한이라는 세 글자가 안 보이는데 주석에서 나오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사료적 가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셋째 배송지가 인용한 『위략』은 지금 원본이 전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으로선 당연히 어환의 『위략』에 실재 그런 기록이 있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단지 배송지가 인용한 주석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위서』를 인용하여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강단사학은 현재 전하는 『위서』에 단군 관련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신하고 단군조선을 실재하지 않은 신화로 취급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어환의 『위략』이 현존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략』의 만번한 기사도 사료적 가치가 당연히 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조선을 정벌하여

2000 리 땅을 빼앗고 만변한을 경계로 삼았다는 『위략』의 기록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한국 강단사학의 고조선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메뉴이다.

넷째 『삼국지』 주석이외에 그 이전의 『사기』, 『한서』, 『후한서』, 그 이후의 『진서』, 『위서』, 『수서』, 『당서』, 『송사』 등 중국의 정사 원문 어디에도 진개가 고조선을 정벌하여 2000 리를 빼앗아 만변한을 연과 고조선의 경계로 삼았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왜 중국의 역대 사관들이 역사상에서 그것을 다루지 않았겠는가. 만변한 기사는 『삼국지』 주석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청나라 때 편찬된 『흙정성경통지』에 인용된 것이 유일할 것이다. 청나라 이전의 다른 중국의 고대 사서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만변한 기사의 사료적 가치를 의심케 하는 중요한 단서인 것이다.

2) ‘만변한’이라는 기사의 내용적 문제점

‘만변한’이라는 지명은 『위략』 이외의 『전국책』, 『사기』, 『한서』, 『후한서』 등 다른 중국 고대 사서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한서』 「지리지」에 살펴보면 한나라의 군현 가운데 문현, 변한현은 있지만 만현이나 또는 만변한현은 없다. 그렇다면 이 ‘만변한’이라는 세 글자 가운데는 분명 빠진 글자가 있거나 아니면 한 글자가 틀렸든지 어떤 오류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실수의 주인공은 『위략』의 저자 어환의 착각일수도 있고 아니면 배송지가 인용하면서 범한 오류일 수도 있다. 아니면 후인이 일부러 필사하는 과정에서 하북성 동남쪽에 있던 요동군의 위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혼동을 주려고 글자를 바꾸어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연 소왕시대의 요동군 양평이 어환의 남북조시대엔 만변한으로 변경된 지명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만변한이라는 지명은 역사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후인들이 『수경주』에서 글자를 자의적으로 고친 실례를 한 예로 들어보

겠다. “南逕遼隊縣 古城西 王莽更名之曰順陸也” 이는 『수경주』 권14 「대요수」 조항에 나오는 문장이다.

그런데 『사고전서』의 편자는 다른 판본에서는 ‘남南’자가 ‘동東’자로, 대‘隊’자가 ‘수隧’자로, ‘목睦’자가 ‘육陸’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⁷⁾ 글자 17자 가운데 3자가 오자이다. 이것은 혼동을 주기위해 필사하는 과정에서 모양이 비슷한 글자와 바꿔치기 한 것으로 의도적인 오류로 볼 수 밖에 없다.

‘남’자를 ‘동’자로 바꿔놓으면 남쪽으로 흐르던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이 된다. 지명을 ‘요대’를 ‘요수’로, ‘순목’을 ‘순륙’으로 바꾸면 그러한 지명은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 볼 때 만번한이라는 세 글자는 후인의 조작에 의한 의도적인 오류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겠다.

지금 만번한이 오류가 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실제 지명으로 인정하여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고증해내기는 어렵다. 다만 연과 고조선의 경계는 양평이고 그 지역은 오늘날의 요하동쪽 요양이 아니라 하북성 진황도시 노룡현 서남쪽이었던 것이 두우의 『통전』과 『수경주』, 『후한서주』 등을 통해 분명히 밝혀졌다.

그러면 만번한은 오늘의 산동성 북쪽, 하북성 동남쪽에 있던 요동군 산하의 어떤 지명이 분명해 보인다. 굳이 그 지명의 소재를 찾는다면 만번한의 번은 하북성 장가구시 회래현으로 비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태평환우기』 「하북도 회용현」 조항에 “회용현이 본래는 한나라의 변현으로 상곡군에 소속되어 있었다(懷戎縣 本漢潘縣 屬上谷郡)”라고 말하고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나라의 장성이 있다. 『사기』에 연나라가 장성을 축조하여 조양으로부터 양평까지 이르렀다고 했는데 조양이 바로 그곳 지명이다. (燕長城 史記 燕築長城 自造陽至襄平 造陽卽其地名)”

이 기록에 따르면 진개가 조양으로부터 양평까지 쌓았다는 연장성의 서쪽 출발지점이 바로한나라 때의 상곡군 변현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홍노열전」에서 말한 조양과 『위략』에서 말한 변현은 동일한 지역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번

17) 『사고전서』 「사부」, 지리류, 河渠之屬, 『수경주』, 권 14, 大遼水 조항 참조

현이 연 장성의 서쪽 출발지점이라면 한현은 하북성 동쪽 끝나는 지점이 될 것이다.

『위략』의 변현과 한현은 「흉노열전」의 조양과 양평을 어환 당시의 지명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 앞으로 보다 정확한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의 출현을 기대하는 수 밖에 없다.

3) 고조선의 강역을 연나라 강역으로 뒤바꾸는데 이용된 ‘만변한’ 기사

『위략』의 만변한 기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료적 가치나 내용상으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 중국의 역사학계가 요녕성의 요하 동쪽까지를 모두 연나라의 영역으로 간주하면서 고조선과 연나라가 청천강 유역에서 국경을 마주했다고 주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이 『위략』의 만변한 기사이다.

『위략』의 만변한 기사는 중국이 고조선의 강역을 연나라의 강역으로 바꿔치기하는데 이용, 내지는 악용된 결정적인 사료라고 말할 수 있다. 아래에서 이 『위략』의 만변한 기사가 연의 강역을 확대하고 고조선의 영역을 축소하는데 있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해 보기로 한다.

한국의 역사학은 광복 후 역사지리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큰 결함으로 지적된다. 현대 중국에서는 일찍이 역사지리학을 발전시켰으며 이 분야에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다. 특히 고대 역사지리학의 기초를 닦은 개척자로는 고힐강顧颉剛 (1893-1980)과 담기양譚其驤 (1911-1992) 등이 손꼽힌다.

고힐강은 『중국강역연혁사』, 『중국상고사연구강의』 『고사면古史辨』 등 고대사 관련 주요저술을 남겼다. 『중국역사지도집』의 고대사 부분은 바로 고힐강이 중심이 되어 집필 한 것이다.

담기양 (1911-1992)은 고힐강의 제자로서 중국의 역대 강역과 민족의 이동 등을 주로 연구했다. 중국을 통일한 후 모택동의 지시에 의해 새로 편찬된 『중국역사

지도집』은 그가 주편主编으로 참여하여 편찬한 책이다. 중국인들은 이를 지금까지 나온 『중국역사지도집』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지도집으로서, 신중국 사회과학의 가장 중대한 성과중의 하나로 평가한다.

그런데 이 『중국역사지도집』은 제1책에서 전국시대 연나라의 강역을 그리면서, 연의 상곡군 조양 즉 현재의 하북성 서쪽 장가구시 부근으로부터 출발한 연의 장성을 동쪽으로 길게 늘어뜨려 북한의 청천강 유역까지 연장시켰다. 북경시 서쪽에서 한반도 쪽으로 향하는 연 장성라인은 압록강을 건너 청천강 부근에서 멈추고 여기에 만변한이라 표기하였다.

길게 뻗은 연장성의 라인을 따라 그 안쪽에 상곡군, 어양군, 우북평군, 요서군, 요동군 5군을 배치했는데 5군의 맨 동쪽에 위치한 요동군의 경계는 요하동쪽에서 청천강까지, 요동군의 치소 양평현은 현재의 요녕성 요양시로 표기되어 있다.

연나라의 장성을 청천강까지 끌고 온 이런 지도가 무엇을 근거로 작성된 것인가. 바로 “진개가 고조선을 침략하여 2000 리를 빼앗아 만변한을 경계로 삼았다.”는 『위략』의 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위략』에서는 현재의 요녕성 요양시가 연나라 요동군의 치소 양평현이라거나 또는 만변한이 현재의 청천강 서쪽에 있는 지명이라고 직접 말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중국역사지도집』 제작자는 진개의 기사를 바탕으로 상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요동군 양평현을 요양시로, 연장성의 동쪽 끝을 청천강으로 임의로 비정하여 연나라를 만리강역을 소유했던 강대한 나라로 그린 것이다.

역사상의 연나라는 사마천이 「연소공세가」에서 800여년 동안 하북성 서남쪽에 쭈그리고 있던 왜소한 나라였다고 말했는데 담기양이 편찬한 『중국역사지도집』에는 고조선은 청천강 이남의 왜소한 나라로 쭈그리뜨려 놓고 연나라는 만리강토를 소유한 강대한 나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중국은 근거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거기에 자국의 역사를 미화하려는 의지와 상상력을 더해서 연나라 강역도를 그림으로써 고조선의 드넓은 강역을 연나라의 강역에 포함시켰다. 이것이야말로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수천년 동안 지켜 내려온 우리민족의 역사영토를 강탈해 간 것이다.

4) 요동군 양평현과 ‘만변한’을 보는 한국 강단사학의 시각

자국의 역사를 미화하고 다른 나라의 역사를 추화하려는 것은 중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문제는 요동군 양평현이나 만변한을 보는 중국의 관점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학계가 이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먼저 노태돈의 견해부터 살펴보자.

“(…)BC 4세기 말에서 BC 3세기 초반인 연의 소왕대에 연에게 패해 그 서쪽 영역을 크게 상실하고 만변한으로 경계를 삼았다. 이어진의 요동군과 국경을 접했는데, 그 경계는 앞장에서 말했듯이 청천강이었다.”¹⁸⁾

“(…) BC 3세기 초반 연의 세력이 고조선을 공략하여 그 영토의 상당 부분을 빼앗아 청천강을 경계로 삼게 되었다.”¹⁹⁾

“『위략』에 의하면 고조선이 연에게 그 서쪽 영토 2천리를 상실하고 만변한으로 경계를 삼게 되었다고 하였다. (…) 그런데 한 대의 요동군과 낙랑군의 경계가 청천강이었고, 연과 후기 고조선과의 경계도 청천강이었으니, 자연 만변한 즉 문, 변한 두 현의 위치도 청천강 유역 언저리에서 일단 찾아야 될 것 같다.”²⁰⁾

노태돈은 여기서 연나라 소왕시대에 고조선이 연에게 패해 그 서쪽 강역을 크게 상실하고 만변한을 경계로 삼았는데 그 경계는 청천강이었다고 말한다. 마치 『중국역사지도집』 연나라 강역도의 설명문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런데 그 근거를 『위략』에 두고 있다. 그리고 연과 고조선의 경계를 청천강이 아닌 하북성 노룡현 서남쪽으로 설명한 두우의 『통진』, 『수경주』, 『후한서주』 등은 아예 거론조차하지 않고 있다.

다음은 송호정의 견해를 알아본다.

송호정은 『수경주』 대요수 조항에 나오는 “요동의 양평현”이라는 기록을 인용하

18) 노태돈, 「고조선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1, 73쪽

19) 노태돈, 「고조선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1, 81쪽

20) 노태돈, 「고조선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1, 90쪽

여 번역하면서 “양평현(현 요양시)”라고 표기하였다.²¹⁾ 그리고 양평현이 현재의 요양시가 아니라 옛 평주의 치소라는 내용은 바로 이 기록 안에 나오는데도 못 본척 지나쳐 언급을 피하고 있다.

“전국시대 이후 연은 요령 남부지역에 진입하였고 연속해서 두 가지 중요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하나는 군을 설치하여 관리를 두고 동북지방에 대한 정치적 통치를 강화한 것이고, 다음으로는 장성을 수축하여 군사적 방어를 강화한 것이다. (...) 고조선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요동군은 요하 유역에서 한반도 북부에 이르는 지역을 포괄하는데, 군의 치소는 양평, 곧 지금의 요양시 부근에 있었다.”²²⁾

“문헌 기록상 연북장성은 ‘조양에서 양평에 이른다(自造陽 至襄平)’고 하는데, 이는 하북성 회래에서 요령성 요양을 말한다.”²³⁾

송호정은 『통전』, 『수경주』, 『후한서주』의 양평=노룡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현대 중국의 역사학계가 주장하는 양평=요양설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있다.

공석구는 지난해 2015년 12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한국상고사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할때 ‘연·진장성의 동단과 관련된 논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그는 담기양이 『중국역사지도집』에서 연·진 장성의 동단을 청천강까지 끌어다 놓고 그 부근에 만번한이라 표기한 내용을 아무런 비판 없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연의 요동군 양평현을 현재의 요양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일언반구의 반론이 없다.

한편 다음과 같은 찬사에 가까운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 책은 이제까지의 역사지도집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속에 나타난 중국 역대 왕조의 영역을 표현하였다. 역사상의 중국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중국의 관점에서 역사상의 영역도를 제시한 것이다. 제작에서 출판까지 국가적인 역량을 기울여 30년 가까운 세월 만에 완성된 『중국역사지도집』의 발간은 당시 학계의 역량을 보여준 획기적인 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²⁴⁾

이는 연의 요동군의 치소 양평현을 현재의 요녕성 요양시로 보고 연과 고조선의 경계 만번한을 현재의 청천강 유역으로 간주하는 『중국역사지도집』과 견해를 같이

21) 송호정, 「초기고조선의 위치와 사회 성격」, 『한국고대사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58쪽

22) 송호정, 「초기고조선의 위치와 사회 성격」, 『한국고대사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245-247쪽

23) 송호정, 「초기고조선의 위치와 사회 성격」, 『한국고대사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304쪽

24) 공석구, 「연진장성의 동단과 관련된 연구」, 『한국상고사의 쟁점』, 동북아역사재단, 2015, 45-47쪽 참조

하는 공교수의 인식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중국역사지도집』의 연나라 강역도는 사료적 가치가 빈약한 『위략』의 만번한 기사와 노골화된 현대 중국의 영토야욕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것은 광복 후 우리가 바른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역사학이 『통전』, 『수경주』, 『후한서주』와 같은 권위 있는 사료를 바탕으로 연과 고조선의 경계가 하북성 동남쪽이라는 논리를 일찍이 바르게 세웠다면 중국의 이런 영토리주장이 설자리를 잃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도가 나왔다면 국제적 망신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사료적으로 문제가 많은 『위략』의 만번한 기사, 연나라의 장성을 청천강까지 끌어와 고조선의 역사영토를 연나라의 강역에 모두 포함시킨 『중국역사지도집』, 연의 요동군 양평현을 요양현으로 비정하는 현대 중국 역사학계의 시각은 『사고전서』 사료로 점검해보면 그 오류와 조작상이 여실히 드러난다. 단지 그러한 역량과 의지를 갖추지 못한 우리 역사학계의 현실이 서글플 뿐이다.

지금 시점에서 연과 고조선의 경계를 청천강 유역으로 보든, 하북성 동쪽지역으로 보든 그것은 어차피 완전무결한 이론은 될 수가 없다. 2000여 년 전의 역사를 완벽하게 재생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략』의 만번한 기사에 의한 청천강 설 보다는 『통전』, 『수경주』, 『후한서주』에 의한 하북성설이 사료적 가치로 볼 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왜 지금 한국의 역사학계는 중국적 관점을 따라 청천강 유역을 만번한으로 보는 시각은 존재하는데 『통전』, 『수경주』, 『후한서주』에 근거해 하북성 동남쪽을 연의 동쪽 경계 양평으로 보는 독자적 시각은 없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의 역사학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이다. 언제까지 남의 눈을 빌려 우리 역사를 바라볼 것인가. 이제는 우리도 중국의 눈, 일본의 눈이 아닌 우리 눈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아야하지 않겠는가.

맺는 말

흔히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한다. 영광과 치욕을 함께해온 민족의 바른역사가 서술되어 거기서 소중한 경험을 얻을 때 분명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밝은 거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대한 역사는 은폐하고 부끄러운 역사는 부각시켜 민족의 역사가 심각하게 왜곡되었을 경우 그러한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의 역사학이 걸어온 길을 돌아켜보면 우리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 영광의 역사보다는 우리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치욕의 역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일제가 식민통치를 위해 조작한 반도사관이 광복 이후 제대로 청산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고조선의 강역을 살펴하는데 있어 두 가지 유형의 자료가 있다. 하나는 『통전』, 『수경주』, 『후한서주』 등에 나오는 기록이다. 이들 기록은 연나라와 고조선의 경계가 양평이고 그 양평은 현재의 하북성 동남쪽으로 설명하고 있다. 발해를 깔고 앉아 대륙을 지배했던 고조선의 웅대했던 모습을 전해주어 우리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준다.

다른 하나는 진개가 고조선을 정벌하여 2000리 땅을 빼앗아 만변한을 경계로 삼았다는 『위략』의 기록이다. 유일하게 『삼국지』 배송지 주석에 나오는 만변한은 『통전』이나 『수경주』나 『후한서주』에 비해 사료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고조선의 패배를 내용으로 다뤄 우리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에 상처를 준다.

그런데 우리 강단사학의 고조선 연구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진개의 만변한 기사에 주로 의존해 왔다. 『통전』, 『수경주』, 『후한서주』를 인용하여 연과 고조선의 경계를 설명한 경우는 내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의 강단사학은 실증사학을 내세우며 자료의 인용에서 주석이나 원문이나 당시의 기록이나 후대의 기록이나를 까다롭게 따진다.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고

갈석산이 만리장성의 기점이다”라고 말한 『태강지리지』는 고조선의 대륙지배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자료이다.

이런 기록에 대해서는 온갖 핑계를 갖다 대며 억지로 트집을 잡는다. 그런데 『삼국지』 배송지 주석에 나오는 만번한 기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시의 기록이 아닌 후대의 기록이고 원문에는 보이지 않는 주석에만 나오는 기록인데도 이를 트집 잡는 강단사학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희한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강단사학의 역사연구가 우리의 수치스러운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구체적인 실례를 한 두 가지 더 들어 보겠다. 『산해경』은 지리를 다룬 동아시아 최고의 고전이다. 여기에 고조선의 위치를 밝혀주는 중요한 기록이 있다.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을 조선이라 한다.”가 그것이다.

이 기록은 고조선이 한반도 변두리에 있던 왜소국이 아니라 발해만을 끼고 앉아 대륙을 지배한 강대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료이다. 그런데 노태돈은 ‘고조선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에서 『위략』의 만번한 기사는 길게 인용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산해경』은 사료적 가치를 문제 삼아 이 대목을 빼놓고 있다.²⁵⁾

노태돈은 자신의 입으로 『산해경』은 “춘추말기에서부터 전한대에 걸치는 여러 시기에 여러 곳에서 작성된 기사들을 모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산해경』이 춘추시대 말부터 전한시대 기록이라면 남북조시대 배송지 주석에 등장하는 『위략』의 기록보다 최소한 수백년 앞선 기록이고 사료적 가치가 『위략』 보다는 월등히 뛰어난다. 그런데 고조선의 대륙지배를 알려주는 이런 자랑스러운 자료는 이런 저런 엉뚱한 이유를 갖다 대며 노출을 꺼린다.

송호정은 『산해경』 「해내북경」에서 말한 “조선이 해북산남海北山南에 있다”라는 기록에 대하여 해는 발해, 산은 의무려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²⁶⁾ 그러나 『전한서』에 한무제가 “갈석산을 지나서 낙랑, 현도군을 설치했다”라고 말하였고 『회남자』에 “갈석산을 지나서 조선이 있다”고 하였다.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러 나서며 직접 쓴 「조서詔書」에는 “문죄요갈問罪遼碣” 즉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고구려의 죄를 묻겠다고 말하였다.

25) 노태돈, 「고조선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1, 71-72쪽 참조

26) 송호정, 「초기고조선의 위치와 사회 성격」, 『한국고대사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55-56쪽

고조선, 한사군, 고구려를 말할 때는 고대 중국 기록에 의례히 갈석산이 등장한다. 의무려산은 요녕성에 있고 갈석산은 하북성에 있다. 고조선이 갈석산 부근에 있었다면 고조선의 영토가 중국 대륙 깊숙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의무려산 남쪽에 고조선이 있었다고 하면 고조선의 역사영토를 요녕성 안으로 축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산해경』의 “해북산남”을 의무려산 남쪽에 고조선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송호정이 말하는 다음의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또한 해내경에서 ‘동해의 안쪽, 발해의 모퉁이 (東海之內 北海之隅)’라고 한 것은 넓게 보아 조선이 동해의 범위안, 즉 동해에 면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해북부의 한쪽 가에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²⁷⁾

『산해경』에서 말하는 동해는 산둥성 동쪽의 동해를, 북해는 발해를 가리킨다. 발해는 중원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북해는 발해의 다른 이름으로 쓰였다. 『산해경』에서는 분명히 “동해의 안쪽, 발해의 모퉁이에 고조선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송호정은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라는 말을 “동해북부의 한쪽 가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이런 해석은 “동해지내 북해지우”를 “동해지내 부부지우”로 자의적으로 문장을 바꾼 것이다. 북해의 ‘해海’자를 북부의 ‘부部’자로 바꾸는 모험을 감행한 것이다. 그가 이런 모험을 감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민족의 왜소한 역사를 위대한 역사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이런 모험을 감행한 것인가. 아니다 우리민족의 대륙을 지배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반도안의 초라한 역사로 전락시키기 위해 이러한 모험을 자행한 것이다.

일본은 임나일본부설을 사실로 조작하기 위해, 저들의 왜소한 역사를 강대한 역사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석회를 발라 광개토대왕 비문의 글자를 변조했다. 여기에는 왜소한 일본의 역사를 비문의 글자를 변조해서라도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고 싶어하는 저들의 간절한 바람이 숨어 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글자를 바꿔가면서까지 왜소한 역사로 전락시키려는 이런 행위와 심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처럼 역사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

27) 송호정, 「초기고조선의 위치와 사회 성격」, 『한국고대사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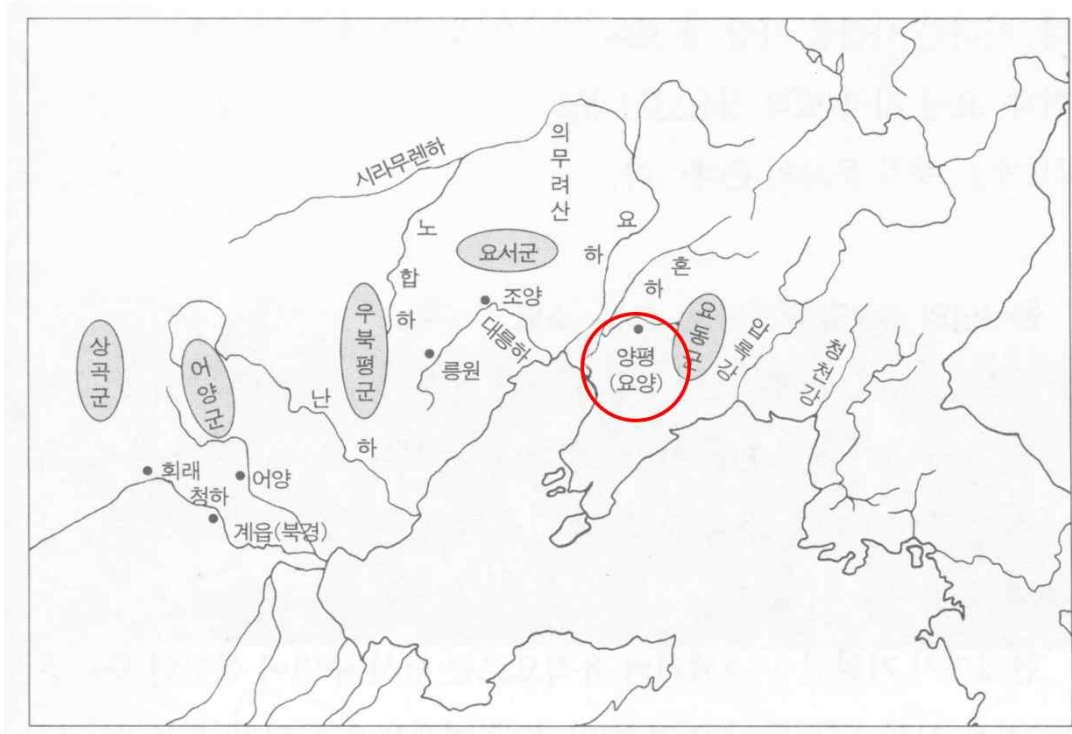
는 현실을 타개하지 않고서는 한국은 희망이 없다. 국부國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
혼國魂이다. 역사가 바로 서야 국혼이 바로 선다. 국혼의 중요성을 깨닫는 지도자가
나와서 뒤틀린 역사를 바로세우고 땅에 떨어진 국혼을 진작시키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첨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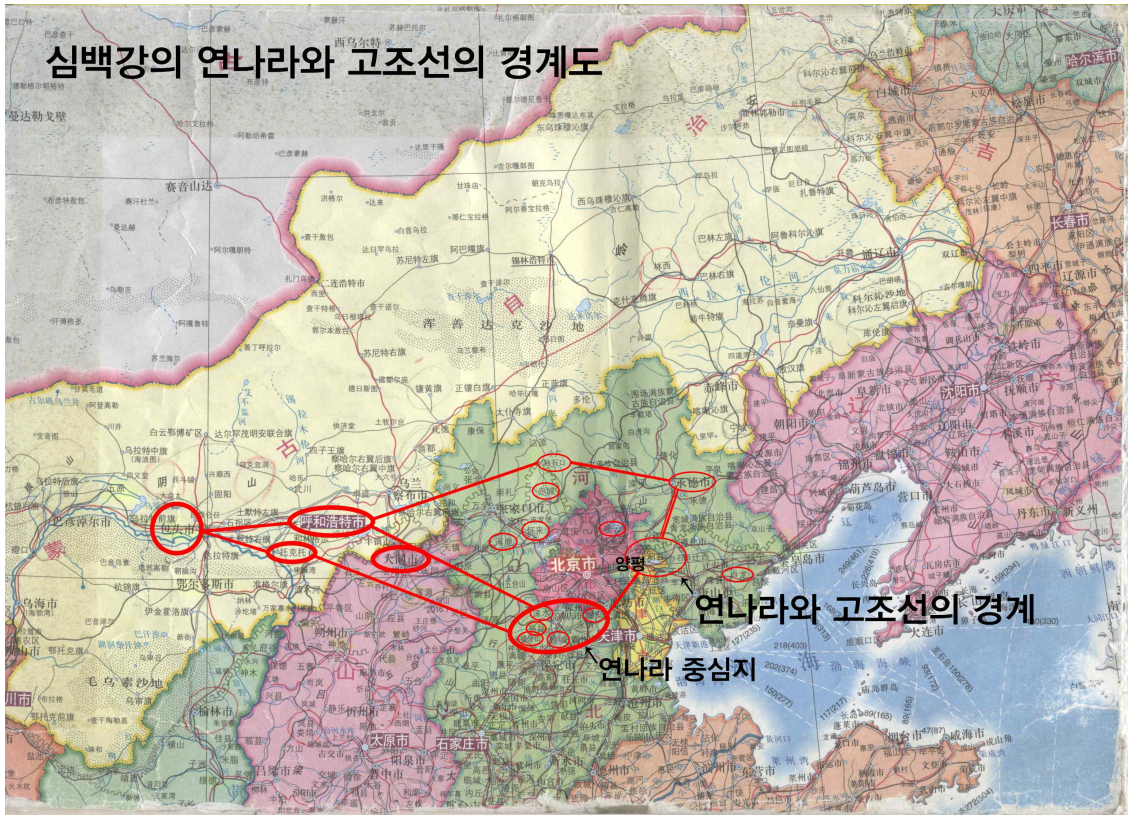




송호정의 전국시대 연 5군 위치도







〈토론문〉

사고전서로 살펴 본
연나라와 고조선의 경계

박준형 (연세대)

「사고전서로 살펴 본 연나라와 고조선의 경계」 토론문

박준형 (연세대)

1. 제목의 적절성

발표문의 제목이 「사고전서로 살펴 본 연나라와 고조선의 경계」이다. 주지하듯이 『四庫全書』는 청 건륭제 때 그 이전까지의 3,503종, 79,337권의 전적을 모은 대형 叢書이다. 『사고전서』는 어느 한 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내용을 어떠한 하나의 입장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그 책의 대부분은 이미 알려진 것들이다. 따라서 발표 제목을 ‘사고전서’로 연나라와 고조선의 경계를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2. 연나라의 중심지와 영역

발표자는 발해와 갈석산 사이에 연나라의 중심지가 있다고 보고 연의 중심지인 薊를 하북성 남쪽 易水 유역의 易縣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계는 역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경 근처에 있다. 역현에 있는 것은 燕下都이다. 『수경』 易水조에는 “武陽. 蓋

燕昭王之所城也”라고 하여 연소왕이 세운 도성이다. 계는 소왕 이후 옮긴 연의 도성이다. 발표자는 이 둘을 혼동하고 있다.

발표자는 진이 연의 도읍과 서쪽 강역을 상곡군으로 삼았는데 하북성 서쪽 탁록 일대가 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탁록 일대는 진대에 廣陽郡이 설치되었던 지역이다. 전체적으로 발표자는 연의 영역을 축소해 보는데 이는 요서·요동군을 하북성 동쪽에 비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은 史實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일례로 요서군의 서부도위치인 유성현성이 조양에 있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바이다.

3. 연나라 토착민 蠻夷

발표자는 연나라 지역의 토착민을 蠻夷族으로 보고 이를 고조선과 같은 종족으로 보면서 이 지역을 고조선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근거는 『전국책』 연책에 연이 만이족에 사는 궁벽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기록의 蠻夷와 『사기』 조선열전의 蠻夷(“魍結蠻夷服”;“(稍役屬眞番朝鮮蠻夷及燕齊亡命者王之)”)를 같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기』 仲尼弟子列傳에는 “월나라 왕이 ... 자공에게 말하기를, 여기는 오랑캐[蠻夷]의 나라인데 대부께서 어인 일로 외람되게 오셨소(越王除道郊迎, 身御至舍而問曰 此蠻夷之國, 大夫何以儼然辱而臨之)”라고 되어 있고, 『사기』 남월열전에도 조타는 스스로를 “만이의 대군장인 이 늙은이(蠻夷大長老夫臣佗)”라고 되어 있다. 만약 만이를 고조선으로 본다면 남월, 월도 모두 고조선으로 보아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만이는 특정한 종족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민족[오랑캐]라고 하는 이민족을 지칭하는 일반명사이다.

4. 산융, 동호, 고조선의 관계

발표자는 5쪽에서 “아마도 이 지역은 원래 고조선과 동족인 산융족이 살았던 것인데”라고 하여 고조선과 산융족을 同族으로 보고 있다. 또한 10~12쪽에서는 東胡와 고조선이 같은 종족으로 보고 있다. 즉, 산융, 동호, 고조선을 모두 같은 종족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산융은 戎族이고, 동호는 임호, 루변과 함께 북방 胡族의 하나로 고조선과 구분되는 종족이다. 그러면서 『사기』 흉노열전의 동호와 『위략』의 고조선은 동일한 존재라고 보았다. 그러나 『사기』 흉노열전에서는 흉노가 동호를 공격하여 북쪽으로 몰아내자 고조선과 경계를 이루었다고 되어 있다. 즉, 고조선과 동호가 전혀 별개임을 알 수 있다. 발표자의 견해처럼 만약 동호가 고조선과 같은 종족이었다면 『사기』 조선열전에 동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산해경』에도 동호와 고조선을 엄연히 구분해서 기술하고 있다(“東胡在大澤東 夷人在東胡東 貊國在漢水東北 地近于燕 滅之”, “朝鮮在列陽東 海北山南 列陽屬燕”).

5. 秦開의 동호·고조선 공격의 진위

발표자는 3장 5절 ‘연나라를 강대국으로 오인하게 된 배경’에서 “진개의 고조선 정벌 기사는 사마천 『사기』에만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국책』에서도 그러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고 “사마천이 「흉노열전」에서 진개가 동호를 공격하여 1000 리 땅을 빼앗아 거기에 장성을 쌓고 5군을 설치했다고 말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이 동호는 곧 고조선을 가리킨 것이다. 그래서 사마천은 진개가 고조선을 공격하여 땅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별도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삼국시대에 이르러 어환이 『위략』을 저술할 때 이 사건을 기술

하면서 「홍노열전」의 동호를 고조선으로 바꾸어 표기한 것이다. 『위략』에는 진개가 빼앗은 땅의 넓이가 1천리에서 2천리로 된 것은 필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자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오류라고 본다.”라고 하였다. 즉, 연이 고조선을 공격한 사실을 언급한 사료가 없다고 하면서 『위략』의 기록을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前漢 宣帝代(B.C. 73~49) 桓寬이 편찬한 책 『鹽鐵論』 伐功篇에는 “大夫曰 齊桓公越燕伐山戎 破孤竹 殘令支. 趙武寧王踰句注 過代谷 略滅林胡樓煩. 燕襲走東胡 辟地千里 度遼東而攻朝鮮”라고 하여 연이 동호를 공격하고 다시 요동[요수]를 건너 고조선을 공격한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연이 고조선을 공격했다고 하는 『위략』의 기록을 부정할 수는 없다. 발표자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전서』에도 『염철론』의 위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6. 『武經總要』의 朝鮮河

발표자는 “송나라 때 국가에서 편찬한 『무경총요武經總要』에는 “북경을 지나서 고북구를 가는 중간에 조선하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고조선이 대동강 유역에 있던 초라한 변방 국가였다면 왜 1000여 년 전 중국의 사서에 조선하가 북경 북쪽을 흐르는 강으로 등장하는가.”라고 하여 조선하를 언급한 『무경총요』의 사료적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발표자는 이 사료의 원문을 각주 4번에서 “『무경총요』 권16 「北番地理」에 “過朝鮮河 九十里 北至古河口”라고 보인다.”라고 인용하였다. 그런데 『무경총요』 권16에는 「北番地理」의 내용이 없다. 『무경총요』는 前集과 後集으로 이루어졌는데 「北番地理」는 권16이 아니라 전집 권22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北番地理’가 아니라 ‘北蕃地理’이다. 더 심각한 것은 권22 北蕃地理에 朝鮮河의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권22는 北蕃地理·燕京州軍十二·關口·幽州四面州軍 등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조선하 관련 내용은 ‘燕京州軍十二’에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료 원문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해당 문구만 인용하였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오류이다.

『무경총요』에 수록된 朝鮮河의 朝鮮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왜 燕京[현재 北京]에서 古北口로 가는 사이에 조선하라는 명칭이 있었는지는 앞으로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고조선 멸망 이후에도 조선이란 명칭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樂浪僑郡과 관련하여 파생된 지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문구만으로 고조선이 하북성 북부지역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발표자의 견해대로 『무경총요』라는 책의 사료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면 『무경총요』에 나오는 고조선 관련 다른 내용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무경총요』 전편 권22 幽州四面州軍 平州조에는 “平州盧龍郡. 漢屬遼西郡”이라고 되어 있다. 발표자는 전국시대 연이 세운 요서·요동군과 秦漢代 요서·요동군이 같은 위치에 있다고 했다. 『무경총요』에는 송대 평주 노룡군이 현재의 난하 유역의 노룡현 지역이자 漢代 요서군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또 『무경총요』 幽州四面州軍 東京조에는 “東京. 卽安東都護治所. 州城卽古之燕郡城是也”라고 되어 있다. 송대 동경은 안동도호부 치소가 있던 오늘날 遼陽이다. 『무경총요』의 저자는 분명하게 연의 요동군 郡城[郡治]이 있던 곳을 오늘날 요령성 遼陽이라고 했다. 3) 또 高州에 이어서 東京조에 “東京遼東安市城也. 城之東卽大遼河, 城之南卽小遼河, 秦屬遼東郡, 漢屬幽州, 唐太宗平高麗 因名所幸山爲駐蹕山”이라고 되어 있다. 즉, 동경 요동 안시성이 있으며 성의 동쪽에는 대요하[현재의 요하]가 있으며 성의 남쪽에는 소요하[현재 혼하]가 흐른다고 했으며, 이 지역은 진나라 때에는 요동군에 한나라 때에는 유주에 속했으며 당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했을 때 行幸했던 곳이라 하여 주필산이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다. 4) 또 碣石山조에는 “碣石山. 地理志 碣石山在右北平驪城縣西南. 漢武帝登之以望巨海…”라고 되어 있다. 『한서』 지리지 우북평군 驪成조에는 “大碣石山在縣西南, 莽曰碣石”이라고 되어 있다. 이 여성현은 오늘날 창려현에 비정된다. 즉 창려현에 갈석산이 있으며 한무제가 올라갔다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만약 한무제가 창려현에 있던 갈석산에 올라갔다면 고조선과 한나라의 경계는 灤河유역이 될 수 없다. 창려현은 난하와 산해관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무경총요』에는 전국~진한대 요동군이 요하 이동에 있었다는 기록이 많이 있다.

발표자의 견해대로 『무경총요』의 사료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이 책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고조선과 연의 경계는 현재 요동군치가 있던 현재의 요양 이동에 있어야 한다. 발표자의 견해대로 『무경총요』에 언급된 조선하는 중요한 사료이다. 그러나 그 사료 하나만 보고 『무경총요』 전체의 역사인식을 무시하면 곤란하다. 사료 전체의 문맥을 보고 다시 생각하기를 바란다.

7. 「豆盧公神道碑」의 ‘朝鮮建國’의 문제

발표자는 「豆盧公神道碑」에 보이는 ‘朝鮮建國’을 근거로 “하북성 동쪽 선비족의 발상지 시라무렌강 유역에서 고조선이 최초로 건국되었다고 적혀 있다.”(2쪽)고 하고, “두로 영은의 비문에 “조선이 요서에서 건국했다.”고 보고 있다.

이 비문은 庾信이 쓴 『庾子山集』(권14)에 실려있는데 정식 명칭은 「周隴右總管長史贈太子少保豆盧公神道碑」이다. 현재 전하는 『유산자집』은 『隋書』, 『唐書』, 『宋史』에 기록된 원형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며, 남아 있는 것 중에 가장 이른 것은 明代에 편찬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사고전서』에 수록된 『유산자집』도 명대 이후의 것을 수록한 것이다. 따라서 『유산자집』의 내용이 원본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실사 『유산자집』에 수록된 「豆盧公神道碑」가 원본 그대로의 모습을 전한다고 해도 ‘朝鮮建國’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고조선이 선비족의 발상지인 시라무렌강유역에서 건국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내용은 선비족이 자신들의 조상을 고조선에서 유래한다고 인식한 것이지 실제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豆盧公神道碑」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여기에서 언급된 ‘조선건국’ 관련 내용을 한국고대사학계가 주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발표자는 「豆盧公神道碑」 전체 비문 내용을 살펴보지 않은 듯하다. 비문을 인용해 보면, “君諱永恩字某, 昌黎徒河人, 本姓慕容, 燕文明帝皝之後也. 朝鮮微(當作箕)子之封孤竹伯夷之國, 漢有四城秦為一侯 ... 乃為銘曰 朝鮮建國, 孤竹為君 ...”와 같다. 그 내용은 두로공

은 창려 도하인으로 본래 성은 모용으로 연 문명제 (모용)황의 후손이며, 朝鮮의箕子가 孤竹伯夷의 나라에 분봉되었다 ... 조선이 건국되고 고죽을 임금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발표자는 비문 전체를 보지 않고 ‘조선건국’이라는 문구에만 집착하여 요서 지역에 고조선이 성립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비문의 내용은 조선은 기자가 고죽백이의 나라에 분봉되면서 건국되었다는 것이다. 즉, 기자동래설을 인정하고 고조선이란 국가는 기자에 의해 건국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남북조시기에 중국에서 고조선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이지 고조선의 건국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유신이 쓴 위 비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중국학계에서 주장하는 기자동래설, 즉, 동북공정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발표자는 민족주의사학을 외치면서 현재 한국고대사학계가 식민사학의 연장이며 동북공정의 논리를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발표자는 중국학계에서 고조선의 역사를 왜곡하려고 주장했던 기자동래설, 동북공정의 논리를 아주 충실히 대변하는 사료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발표 2〉

고고학을 통해 본 만반한
-고조선과 연나라의 경계 변화-

이후석 (승실대)

고고학을 통해 본 만변한

- 고조선과 연나라의 경계 변화 -

이후석 (송실대)

1. 머리말

‘만변한(滿潘汗 또는 滿番汗)’은 戰國燕이 古朝鮮을 공략하고 나서 획정했던 양국 간의 경계이다. 『三國志』 東夷傳(韓)에 인용되어 있는 『魏略』에는 전국연과 고조선이 ‘왕’을 칭하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였으며, 양국간의 전쟁 결과 고조선은 서방 2천여리를 상실하고 만변한을 경계삼아 연과 대치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¹⁾ 이는 『史記』 匈奴列傳에서 확인되는 전국연의 東胡 습격 기사와도 맞물리는 내용인데, 당시 연은 동호의 내부 사정을 파악한 후 기습 공격하여 1천여리를 물러나게 하였으며, 造陽에서 襄平까지 장성을 축조하고 5군(상곡군·어양군·우북평군·요서군·요동군)을 설치하였다고 한다.²⁾

한편 전국연이 ‘동호’와 ‘조선’을 공략하여 요동 방면으로 진출했던 것을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는 『鹽鐵論』 伐功篇을 보면 이 두 사건은 연의 장수 秦開가 주요하게 활약했던 순차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다.³⁾ 즉, 연은 전성기인 昭王 시기(기원전 311~279년) 동북 방면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동호’는 장성 이북으로, ‘조선’은 만변한 이동으로 각각 물러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 所引『魏略』,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裏 至滿潘汗爲界 朝鮮遂弱”.

2) 『史記』 卷110 匈奴列傳 第50, “其後燕有賢將秦開 爲質於胡 胡甚信之. 歸而襲破走東胡 東胡卻千餘里. 與荊軻刺秦王 秦舞陽者開之孫也. 燕亦築長城自造陽至襄平 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

3) 『鹽鐵論』 卷8 伐功 第45, “燕襲走東胡 辟地千里 度遼東而攻朝鮮”.

이에 만번한의 위치를 찾는 것은 고조선의 영역 변천 과정이나 전국연의 요동 방면 진출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연은 요수를 건너 고조선을 공격하였으며, 연의 요동군은 ‘양평’을 거점으로 하였다고 했으므로 만번한은 그 이동 또는 이남 지역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당시 고조선과 전국연의 전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위치 관계는 ‘연↔(동호)↔요수↔양평↔만번한↔조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고조선 중심지의 위치 논쟁과 관련시켜 보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한데, 먼저 ‘평양설’의 시각으로 보면 고조선은 요하 방면의 서쪽 영역을 상실하고 만번한의 남쪽 지역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된다. 다음으로 중심지 이동설의 입장에서 보면 고조선은 서쪽 영역뿐만 아니라 중심지도 잃은 것이 되어 요하 방면에서 한반도의 서북 방면으로 이동하여 중심지가 바뀐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쟁 이후 고조선과 전국연의 경계를 청천강 일대로 보는 것이 전자의 주장이며, 천산산맥 일대로 보는 것이 후자의 견해이다.

또한 만번한이 등장하기 이전 고조선이 잃은 서쪽 영역이 어디이며 또한 전쟁 이전 고조선과 전국연의 경계가 어디인지 규명하는 것도 초기 고조선의 발전 과정을 복원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문헌 기록에는 구체적인 지명 기술조차 없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요동으로 가서 고조선을 공격하였다는 『염철론』의 기사를 존중하면 요하 하류 일대라고 할 수도 있고, 고조선이 2천여 리를 잃었다는 『위략』의 기록에 주목하면 하북-요서 접경지역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문헌 사료만으로는 ‘만번한’의 등장 무렵을 전후하여 고조선과 전국연의 경계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고학적 물질문화의 분포권을 통해 문화 경계를 파악하여 문헌 사료 중에 어느 것이 신빙성이 높은 내용인지 추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고조선과 전국연의 전쟁(이하 조연전쟁) 등과 같이 시기와 지역이 한정되는 특정사건으로 고고학적 물질문화의 경계를 찾는 것은 편년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는 조연전쟁이 연 소왕 재위시기 후반 벌어졌던 사건임을 고려하여 전쟁 전후 관련 자료들을 기원전 4세기대 전후와 기원전 3세기대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동북아시아 청동기문화의 연대를 올려보는 일본학계 연

구자의 견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⁴⁾ 이에 따르자면 한반도의 초기철기시대에 해당되는 야요이시대 중기의 개시 연대를 약 100년가량 올려보며, 이와 관련되는 하북지역과 요령지역의 유적·유물 연대 역시 함께 올려본다. 얼핏 보면 한반도와 요령지역의 물질문화 연대가 상향 조정되어 한국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도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중원세력이 일찍부터 요동지역과 한반도의 서북지역으로 진출하였음을 강조하며, 중원문화를 일본열도로 전달해준 주체로서 고조선의 역할을 애써 무시하려 한다. 또한 이에 따라 고조선의 발전 단계와 시공간이 축소되는 것도 문제이다. 최근에는 중국학계 일각에서 이에 동조하는 경향까지 감지된다. 그러므로 만변한과 관련되는 고조선과 전국연의 문화 경계를 찾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역시 필요하다.

2. 조 · 연전쟁 이전 고조선과 전국연의 경계

1) 전쟁 이전 하북지역과 요서지역의 물질문화와 그 담당자

『魏略』에는 전쟁 전에 고조선과 전국연이 서로 ‘왕’을 칭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교류하였다고 하며, 『史記』 흉노열전에는 전쟁 전에 진개를 인질로 파견하는 등 전국연이 동호(또는 胡)와도 교류하였다고 되어 있다. 두 사서에는 공통적으로 전국 중기(기원전 4세기 후반) 무렵 고조선 또는 동호가 전국연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전쟁 이전 고조선과 동호, 그리고 전국연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선결요건이다.

먼저 전국연은 북경 이남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지만 역현 일대에 燕下都(武陽城)를 건설하여 부국강병을 달성했던 것은 전국 중기 이후이다. 그 이전에는 ‘易市’ 명문 토기 등이 출토되어 ‘臨易’ 또는 ‘易’일 가능성이 높은 용성 일대

4) 春成秀爾今村峯雄 編, 2004, 『彌生時代の實年代』, 學生社. 小林青樹 編集, 2016, 『季刊 考古學』135(東アツアの青銅器と彌生文化), 雄山閣.

(남양촌-고현촌)가 거점으로 논의되며,⁵⁾ 그 이후에는 燕上都(薊城)가 중심지로 기능했다. 이때를 전후하여 전국연은 하북 북부 방면으로 진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물질문화 확산 이후 단계에야 영역화가 진행되는 점에 있다. 이를테면 전국연의 물질문화는 전국 초기(기원전 5세기 후반)의 경우 경진당 일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전국 전기(기원전 4세기 전반)에야 연산산맥 일대의 난하 중류까지 확산되나,⁶⁾ 그 영역화는 전국 중기(기원전 4세기 후반) 이후에야 진행된다.

이때 연산산맥 일대의 옥황묘문화는 전국연문화로 대체되며, 옥황묘, 호로구, 서량광 등의 관련 유적에서 토착 계통의 주축 동서방향 분묘들은 사라지고 전국연계의 주축 남북방향 분묘들이 대거 조영되기 시작한다. 또한 이때에는 북방식 동검이 사라지고 전국연계 토기류가 대거 확산되어 부장유물 역시 전국연계 일색으로 변모한다. 오도하자 등과 같은 일부 분묘에서 토착 유물들이 일부 보이지만 늦더라도 전국 중기(기원전 4세기 후반)에는 토착문화가 완전 사라지고 전국연계 물질문화가 전면 확산되는 양상으로 보아 난하유역까지 전국연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조연전쟁 이전 요서지역의 물질문화는 과거 산융이나 동호 같은 북방계통 주민집단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고조선과 관련되는 토착집단으로 보는 견해들이 증가하고 있다. 원래 요서지역의 물질문화를 동호와 관련시켜 본 것은 앞서 언급했던 『사기』 흉노열전의 5군 설치 기사 때문인데, 같은 흉노열전에서 그에 앞서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동호는 연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을 따름이다.⁷⁾ 동호가 임호와 누번의 동쪽에 있으면서 함께 3胡로 불렸다는 것도 동호의 위치를 요하 상류 방면으로 볼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서지역 물질문화의 담당자를 동호로 인식했던 것은 과거 중국이나 일본 학계의 조사연구 전통에 기인한 바 크다. 이를테면 1930년대 일본인이 적봉 홍산후 유적(東亞考古學會 編 1938)을 조사한 후 이를 동호의 유적으로 지칭한 이래로 1958년 영성 남산근 유적(李逸友 1959, 1964)과 조양 십이대영자 유적

5) 배진영, 2010, 『고대 북경과 연문화』, 한국학술정보.

6) 滕銘予·張亮, 2011, 「玉皇廟文化的發現與研究」, 『北方文物』2011-4.

7) 『史記』卷110 匈奴列傳 第50, “而晋北有林胡樓煩之戎, 燕北有東胡山戎”.

(朱貴 1960)에서 특징적인 청동기군이 확인되자 중국 조사자는 각기 동호의 유적이
라 주장했다. 이후 적봉 하가점 유적(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74)이 정
식으로 조사된 후 하가점상층문화로 불렸으며,⁸⁾ 자료가 증가하자 현재의 십이대
영자문화를 하가점상층문화로 귀속시켜 이해하고 이를 동호의 담당문화라고 하
는 견해들이 대세를 이루었다.⁹⁾ 더 나아가 일본학계는 남산근 유적과 십이대영
자 유적의 문화 성격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십이대영자문화로 구분
되는 요령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를 동호의 것이라고 했다.¹⁰⁾ 십이대영자문화를
동호의 것이라고 하는 설은 현재에도 일본학계에서 가장 많이 지지받고 있다.¹¹⁾
전쟁 이전 고조선의 서쪽 경계를 요하 하류 방면으로 보는 ‘평양중심설’의 경
우¹²⁾ 대체로 이와 관련되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중국학계에서 하가점상층문화와 십이대영자문화의 이질적인 면이 부각되
고 난 후¹³⁾ 여러 연구자에 의해 십이대영자문화의 독자성이 강조되어 독립된 고고
문화로 설정되었으며¹⁴⁾ 1958~1965년 심양 정가와자 유적이 확인되고 난 후에는
요중지역도 함께 거론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는 국내학계에도
발전적·비판적으로 수용되어 하가점상층문화는 공병식동검과 삼족력을 표지유물로 하
여 기원전 11~7세기경 노로아호산 이북에서 유행했던 북방계 청동기문화이며, 십이
대영자문화는 요령식동검(또는 비파형동검)과 이중구연점토대토기를 표지유물 하
여 기원전 9~4세기경 노로아호산 이남에서 요서지역과 요동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유행
했던 토착계 청동기문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¹⁵⁾ 이에 따라 최근에는 요서
지역의 물질문화는 십이대영자문화이며, 이를 예맥이나 고조선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8) 劉觀民·徐光冀, 1981, 「內蒙古東部地區青銅時代的兩種文化」, 『內蒙古文物考古』1981-1.

9) 靳楓毅, 1987, 「夏家店上層文化及其族屬問題」, 『考古學報』1987-2; 林幹, 1989, 『東胡史』, 內蒙古人民出版社.

10) 秋山進午, 1968-1969, 「中國東北地方の初期金屬器文化の様相-考古資料とくに青銅短劍を中心として-(上) / (中)/(下)」, 『考古學雜誌』 53-4, 54-1, 54-4.

11) 宮本一夫, 2000, 「戰國燕の擴大」, 『中國古代北疆史の考古學的研究』, 中國書店; 加藤謙一, 1998, 『匈奴「帝國」』, 第一書房.

12) 송호정, 2003,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13) 朱永剛, 1987, 「夏家店上層文化的初步研究」, 『考古學文化論集』1, 文物出版社.

14) 朱永剛, 1997, 「大,小凌河流域含曲刃短劍遺存的考古學文化及相關問題」, 『內蒙古文物考古文集』2,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劉國祥, 2000, 「夏家店上層文化青銅器研究」, 『考古學報』2000-4; 烏恩岳斯圖, 2007, 『北方草原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15) 오강원, 2004, 「中國 東北地域 세 青銅短劍文化의 文化地形과 交涉關係」, 『선사와 고대』20; 이창규, 2008,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연구 성과」,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동북아역사재단; 조진선, 2010,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의 발전과정과 성격」,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친선행, 2010, 「비파형동검문화 성립 전후 요서지역 토기문화의 전개」,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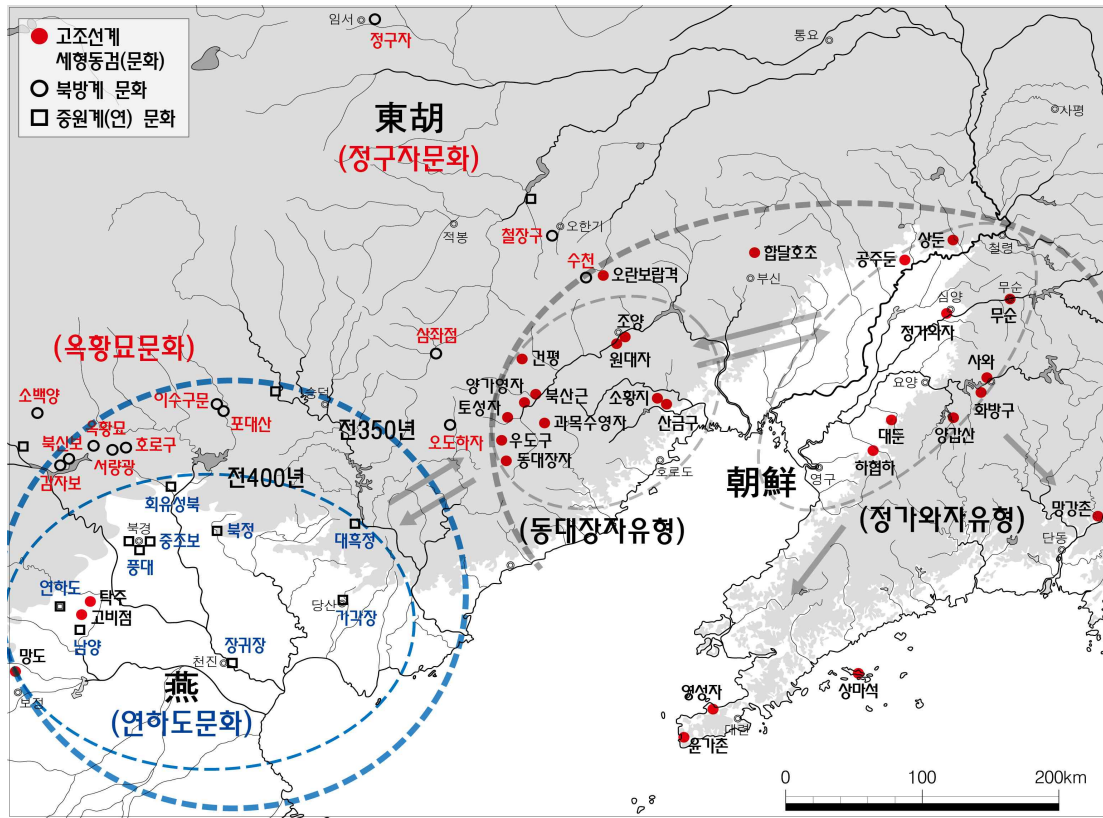
정치체로 보는 견해들이 증가하고 있다.¹⁶⁾ 고고학계에서 제기되는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은 대체로 이와 관련되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요서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동호의 위치와 물질문화는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1990년대 이후 서요하 상류역을 중심으로 확인된 바 있는 북방계의 분묘 유적들이 주목된다. 임서 정구자 유적(王立新 外 2010), 오한기 철장구 유적(邵國田 1992)과 수천 유적(郭治中 2000) 등의 정구자문화(또는 수천문화)로 지칭되고 있는 이와 같은 유적들은 하가점상층문화를 파괴하고 조영됐다던지 전국연계 물질문화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원전 6~4세기로 편년되며, 동물순생이 일반적인 반면 농경 흔적은 거의 확인되지 않아 유목민적 성향이 강한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주로 전국시대이며, 지역적으로는 하가점상층 문화 분포권과 비교되는 서요하유역이란 점을 고려할 때 정구자문화(유형)는 동호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문화라고 평가된다.¹⁷⁾ ‘북아시아 몽골인종’이란 인골 감정 결과가 선바오환 계통 인골 감정 결과와 일치하는 점도 참고된다.¹⁸⁾ 만약 요서지역의 물질문화 담당자가 동호라면, 전쟁이전 요서지역에는 북방 유목문화 요소들이 증가해야 하나 오히려 그 반대로 거의 소멸하며, 요서지역 집단들이 전국연의 요서 진출 과정에서 서요하의 상류 방면으로 대거 이동하였다면 그 지역에는 십이대영자문화 요소들이 다수 확인되어야만 하나 그와 같은 증거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16) 李清圭, 2005, 「青銅器를 통해 본 고조선과 주변사회」, 『北方史論叢』6; 박준형, 2012, 「대릉하~서북한지역 비파형 동검문화의 변동과 고조선의 위치」, 『한국고대사연구』66; 吳江原, 2013, 「청동기~철기시대 요령·서북한 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고조선」, 『東洋學』53; 趙鎭先, 2014, 「中國 東北地域의 青銅器文化와 古朝鮮의 位置 變動」, 『東洋學』56; 이후석, 2015,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문화변동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28,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7) 王立新, 2005, 「探東胡遺存的一新線索」, 『邊疆考古研究』3. 姜仁旭, 2009, 「內蒙古 동남부 시라무렌하 유역에서 발견된 새로운 유목문화에 대한 이해」, 『韓國青銅器學報』9.

18) 朱泓, 2006, 「東胡人種考」, 『文物』2006-8.



도면 1. 조·연전쟁 이전 고조선과 전국연의 물질문화 범위와 경계

이와 같이 요서지역의 물질문화와 그 담당자에 대해서는 과거 중국학계와 일본학계를 중심으로 동호 등의 북방계 종족집단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국내학계를 중심으로 고조선과 관련되는 주민집단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요서지역의 물질문화가 고조선과 얼마만큼 깊이 관련되어 있는지는 십이대영자문화를 시기별·지역별로 따져 보아야만 하며, 또한 그 중심지가 어디인지와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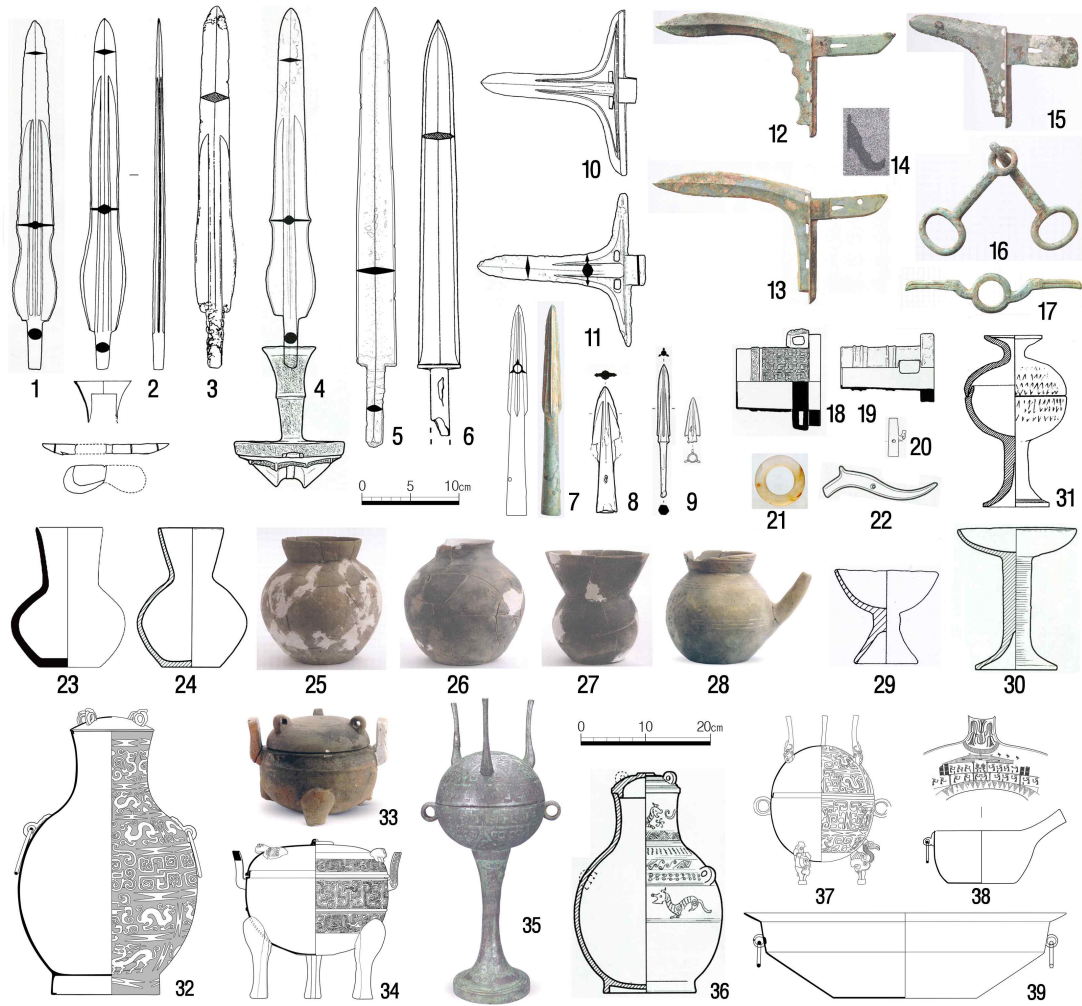
2) 전쟁 이전 고조선과 전국연의 물질문화 범위와 경계

조연전쟁 이전 기원전 4세기대의 십이대영자문화는 요서지역의 동대장자유형과 요동지역의 정가와자유형으로 분화되어 있었으며, 각기 요서 남부지역의 건창 일대와 요충지역의 심양 일대를 거점으로 하여 주변 지역과 교류하며 성장했다. 두 지역에

는 적석목관묘형 분묘, 요령식의 초기 세형동검, 점토대토기옹과 평저장경호 등이 함께 확인되고 있어 문화적인 유사성이 상당부분 확인되나, 요서지역에는 다뉴경이 없는 대신 건창 일대를 중심으로 중원계 무기류와 예기류가 부장되며, 요중지역에는 중원계 무기류와 예기류가 없는 대신 심양 일대를 중심으로 토착계 다뉴경이 부장되고 있어 차이점도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대장자유형과 정가와자유형의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적인 상사성과 상이성이 일정하게 나타내는 것은 두 지역의 지배층이 서로 교류하면서도 권력기반을 달리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동대장자유형의 수장층은 대외 교섭권을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권력을 강화시켜 나갔으며, 정가와자유형의 수장층은 제의권을 행사하며 주변 집단과의 유대 의식을 바탕으로 점차 권력을 강화시켜 나간 것으로 이해된다.¹⁹⁾ 이와 같은 문화 양상을 문헌사료와 접목했을 경우, 한때 전국연과 교류하며 전쟁까지 불사하였다는 『魏略』의 기사에 집중하면 고조선은 요서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전국연이 동호를 축출하고 난 후 요동지역의 고조선을 공격하였다는 『鹽鐵論』의 기사를 중시하면 고조선은 요서지역의 정치체와 일정하게 교류하며 정치적인 관계망을 형성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요동지역(요중지역)에 중심지를 두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9) 이후석, 2015,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문화변동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28,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도면 2.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 물질문화(동대장자유형)의 출토유물

두 사료 모두 당시 중국인의 입장에서 본 것이므로 고조선의 국가 구조 또는 정치 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세형동검문화 단계 고조선의 정치 체제가 여러 지역정치체가 연맹체적 관계망에 결속되어 있는 초기국가로 설명되는 점을 고려할 때²⁰⁾ 요서 남부지역의 정치체(동대장자유형)도 요중지역의 정치체(정가와자유형)와 함께 고조선에 포함시켜 보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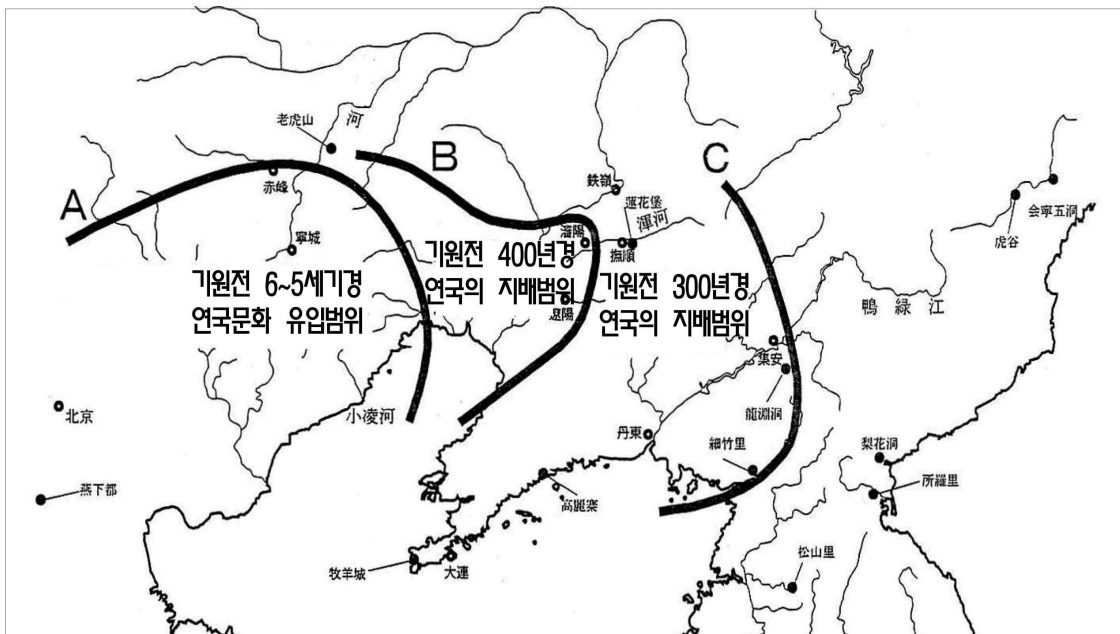
한편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국연은 기원전 4세기 전반에는 난하유역까지 진출하였으며, 이때부터 문화 범위가 동쪽으로 더욱 확산된다. 물론 기원전 4세기 전반 이전에도 요서지역에는 북방계나 중원계로 볼 수 있는 유물들이 간혹 보이지만 묘제와

20) 박대재, 2005, 「古朝鮮의 王과 國家形成」, 『北方史論叢』7; 박준형, 2014, 「古朝鮮의 稱王과 연맹체의 형성」,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장법, 청동유물과 토기 등의 물질문화 거의 전반에서 전국연계 문화요소들이 확인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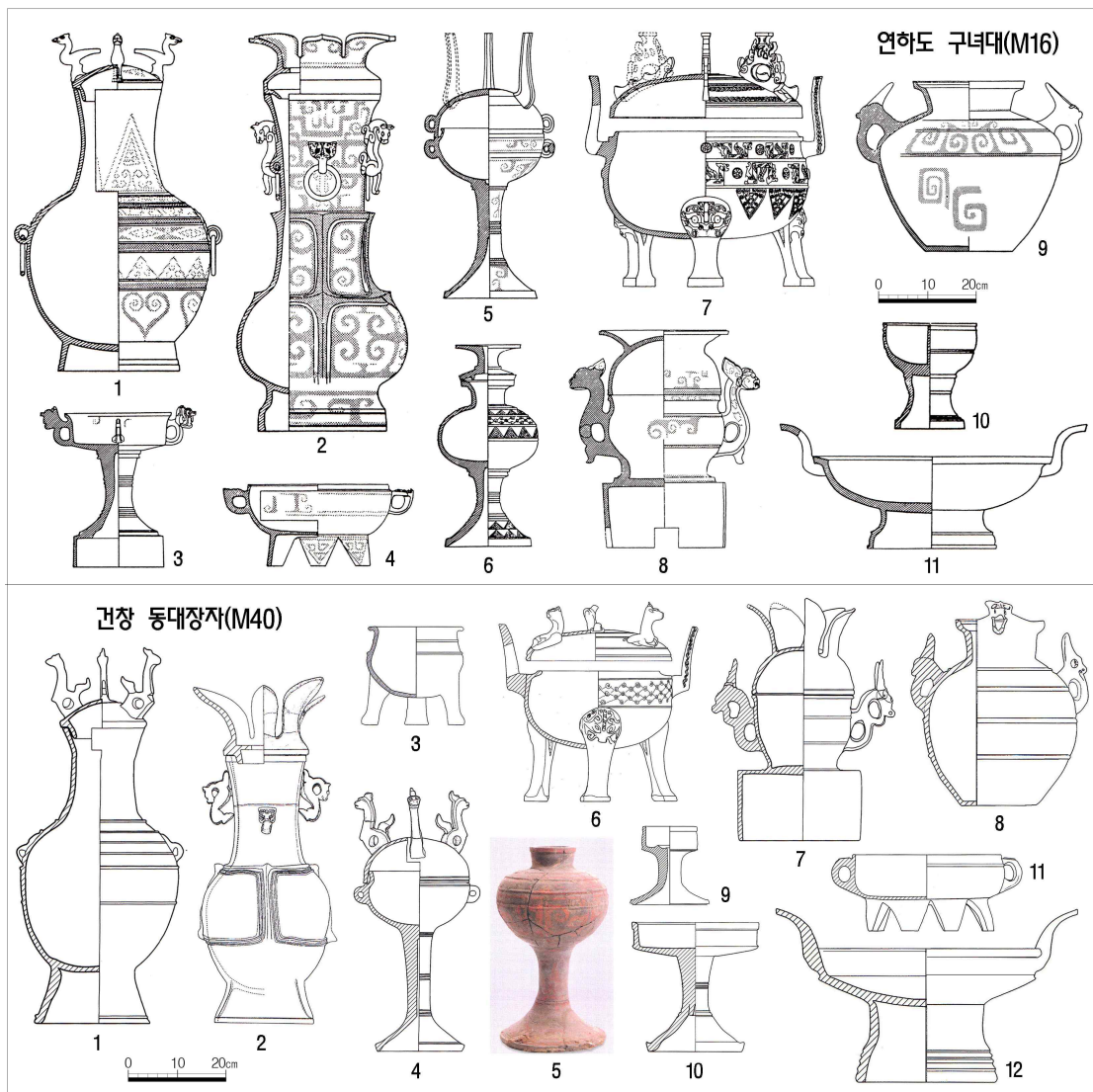
그렇지만 요서지역에서 확인되는 전국연계 물질문화는 대릉하 상류 일대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중하류나 소릉하유역에서는 관련 문화 요소들이 부분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국연계 무기류와 예기류는 거점으로 판단되는 건창 일대(동대장자-우도구 유적)에만 밀집되어 있어 전국연계 물질문화는 제한적으로만 파악되었으며, 토작유물들과 공반되는 예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유적 조영집단은 전국연계 유이민이 아닌 예맥 또는 고조선계 토착민이라고 알 수 있다. 이는 하북-요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능원 서부 일대(오도하자 유적)에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대부분의 부장유물이 중원문화 유물들로 변화되었지만 토착문화 요소들이 아직 뚜렷하게 남아 있어 전국연의 물질문화는 확산되었지만 아직 영역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기원전 4세기 후반까지 전국연은 요서지역으로 직접 진출하지 못했으며,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물질문화가 대거 확산됐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조선과 전국연의 물질문화는 하북-요서 접경지역에서 만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조선과 전국연의 경계 역시 이 일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면 3. 일본학계의 연의 영역지배 확산과정 모형(石川岳彦·小林青樹 2012 수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학계의 야요이 연대 상향론자들은 요서지역 건창 동대장자(M40)와 조양 원대자(戊類墓)의 전국연묘 뿐만 아니라 요중지역의 요양 서왕자와 심양 열애리의 전국연묘를 기원전 4세기 전반 무렵으로 편년하여 늦더라도 이때에는 전국연이 요중지역까지 진출하여 영역화했다고 주장한다.²¹⁾ 이는 문헌 기록보다 약 100년 전에 이미 고조선이 후퇴하였으며, 일본 열도에서 출토되는 전국연계 유물들을 고조선이 아닌 연(요동군)과 교류했던 결과물이라는 맥락²²⁾으로 귀결된다.



도면 4. 하북지역과 요서지역의 전국연묘 출토유물 비교

21) 石川岳彦, 2011, 「青銅器と鐵器普及の歴史的背景」, 『彌生文化の考古學』3(多様化する彌生文化), 同成社; 石川岳彦, 2016, 「東北アジア青銅器時代の年代」, 『季刊 考古學』135; 小林青樹, 2016, 「遼寧青銅器文化」, 『季刊 考古學』135.

22) 鄭仁盛, 2016, 「燕系 鐵器文化의 擴散과 그 背景」, 『嶺南考古學』74.

그렇지만 연대 상향론자들이 주요 근거로 활용했던 하북지역 燕下都의 성내 귀족묘(구녀대M16)가 보고문(河北省文物研究所 1996)과 달리 유사 유물 조합을 나타내는 중산왕묘(착묘: 기원전 313년)보다 늦게 조영되었으며,²³⁾ 이보다는 이른 성외 귀족묘(해촌M2)가 기원전 4세기 말엽 전후로 편년되는 것을 감안하면²⁴⁾ 이와 거의 같은 유물 조합을 나타내는 요령지역의 연묘들은 그보다는 늦은 기원전 300년경 이후 조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국연이 요하 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은 역시 기원전 300년경 이후라고 해야 한다.

3. 조연전쟁 이후 고조선과 전국연의 경계

1) 전쟁 이후 요동지역과 서북한지역의 물질문화와 그 담당자

『魏略』에는 전쟁 후에 연이 ‘만변한’을 경계삼아 고조선과 대치하였다고 하며, 『史記』 흉노열전에는 연이 동호를 몰아내고 조양에서 양평까지 장성을 축조하고 5군(상곡군·어양군·우북평군·요서군·요동군)을 설치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鹽鐵論』 벌공편을 보면 위의 두 기록은 전국연이 ‘동호’와 ‘조선’을 공략하여 요동 방면으로 진출했던 것을 압축하여 표현했던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전국연이 요동 방면으로 어디까지 진출하였으며, 전쟁 후의 고조선은 어떤 재편 과정을 거쳤는지 규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전국연이 요하 이동지역으로 어디까지 진출했는지는 요중지역의 전국연묘와 전국연의 유물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앞서 소개했던 요양 서왕자와 심양 열애리의 전국연묘 이외에도 요양 일대에는 망수대묘, 신성촌묘 등과 같은 전국연계 분묘들이 확인된 바 있다.²⁵⁾ 이를 대표하는 서왕자묘는 도호·도정·도두·도반 등의 도제예기와

23) 石川岳彦, 2001, 「戰國期における燕墓葬について」, 『東京大學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16.

24) 趙鎮先, 2015, 「燕下都의 造營과 都城 機能의 變遷」, 『한국고고학보』96.

25) 이종수, 2014, 「요하 평원지역 ‘燕유적’의 특징과 사용집단에 대한 재검토」, 『東北亞歷史論叢』44.

‘연식력’이라고 하는 취사용기까지 출토되어 전형적인 귀족묘의 출토유물 조합을 갖추었다. 서왕자묘와 열애리묘의 조영 연대는 기원전 3세기 전반이다. 그러므로 전국연의 지배층이 요중지역에서 분묘들을 조영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중지역에는 전국연의 요동군이 설치되었음을 알려주는 명문 자료가 상당수 출토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인 요양 하맥와 매납유적 출토 ‘襄平’명 포전과 요양 삼도호 취락유적 출토 ‘昌平’명 도옹편이다. 그러므로 문헌 기록에서 보이듯이 연 요동군의 중심지로 ‘양평’이 있었으며, 왕망 정권 당시에는 한때 ‘昌平’으로 개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대안 백성자 유적에서는 전형적인 전국연의 청동무기와 철검 등이, 요양과 심양 일대에는 반와당이 적지 않게 출토된 바 있어 전국연의 군대나 지배층이 거주했던 건물들이 있었음도 알 수 있다.²⁶⁾



도면 5. 요동지역 전국연묘 출토유물과 ‘양평’ 관련 자료

이와 달리 요중지역을 제외하면 요동 동부지역이나 한반도의 서북지역에서 이른 시기의 전국연계 분묘와 건물이 확인된 바 없다. 전국연계 유물들이 출토되는 유적

26) 邢愛文 主編, 2009, 『遼陽博物館館藏精品圖集』, 遼寧大學出版社.; 李曉鐘, 2008, 「瀋陽地區戰國秦漢考古初步研究」, 『瀋陽考古文集』1.

들은 상당수에 달하지만 대부분은 세형동검문화 유적에서 토착 유물과 공반되어 소량 출토되는 정도이며, 중원계통 유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진한대의 유물 등과 함께 출토되고 있어 기원전 3세기초 燕의 요동지역 진출 사실과 관련되기보다 기원전 3세기말 秦의 전국통일 과정에서 유입된 전국연계 유이민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테면 중국학계에서 전국연이 청천강유역에 진출하였음을 주장하는 근거로 종종 제시하는 박천 단산리(조선유적유물도감 1989)의 반와당은 전국연계로는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문양이 간략화된 것인데다 燕下都의 반와당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어서²⁷⁾ 전국연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평기와도 서북한지역의 한대 토성에서 종종 출토되는 것이어서 전국연의 진출이나 영역지배와는 관련 없는 유물이다. 그러므로 전국연의 요하 방면 진출은 요중지역이나 요동반도 서부지역에 한정되었으며, 요동 동부지역이나 한반도의 서북지역에는 고조선계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국연에 밀려 후퇴했던 고조선의 주민들은 요동 동부지역과 한반도의 서북지역까지 이동했다. 물론 요동 동부지역과 서북한지역은 요중지역의 정가와자유형이 이미 과급되어 있어 고조선의 관계망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전쟁 이후 기존 연맹체는 상당부분 와해되어 요하 방면 유이민과 요동 동부~서북한지역의 토착민이 결속되어 다른 연맹체로 재편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전국연의 군사적인 위협은 토착세력의 결속력을 높여주는 외적 배경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미 확산되어 있던 정가와자유형의 관계망은 토착세력이 서로 교류하며 고조선이 재편되는 내적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직후 요동 남부지역과 요동 동부~서북한지역은 토착적인 세형동검문화의 유물구성에서 차별적인 양상이 뚜렷하여 단일 정치체의 영역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요동 남부지역은 대런 지구를 중심으로 검신 양쪽이 평행한 직인형동검(윤가촌식동검)이 사용되고 점토대토기가 확인되지 않는 것에 비해 요동 동부지역은 본계-단동지구를 중심으로 검신 하부가 상부에 비해 불룩한 유견식동검(상보촌식동검)이 사용되며 점토대토기가 출토되기 때문이다.

지형이나 문화 복합 측면을 보더라도 요동 남부지역은 요중지역의 요동군과 해안

27) 吳馨軍, 2014, 『燕下都瓦當』, 古宮出版社.

교통로로 쉽게 왕래하는 지역으로 중원계통 유물이 함께 출토되는 예가 많은 것에 비해 요동 동부지역은 천산산맥 일대의 자연계선으로 인해 요중지역의 요동군과 쉽게 왕래할 수 없는 지역으로 서북한지역과는 청동무기류와 다뉴경의 양식적인 측면에서 계승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물론 서북한지역의 경우에는 한국식 세형동검이 보이지만 요령식 세형동검(상보촌식 동검)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요령식 세형동검문화와 한국식 세형동검문화의 접이지대적 성격을 나타낸다.²⁸⁾



도면 6. 기원전 3세기대 요동 동부~서북한지역의 세형동검문화(고조선계) 유물

서북한지역의 고조선계 세형동검문화 관련 자료들은 공개되지 않은 것이 많아 구체적인 문화상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요동 동부지역과 서북한지역의 문화 연속 및 계승 관계는 전쟁 이후의 문화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연전쟁 이후의 고조선은 요동 동부지역과 서북한지역을 결속시켜 주는 세형동검문화(상보촌유형)의 관계망을 바탕으로 한 연맹체로 재편되었다고 생각된다. 요동 남부지역의 경우에는 전국연의 요동군과 고조선의 직접지배를 받지 않은 지역으로 생각되나 지리적인 측면이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두 세력의 각축장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28) 이후석, 2014, 「遼東~西北韓地域의 細形銅劍文化和 古朝鮮」, 『東北亞歷史論叢』44.

2) 전쟁 이후 고조선과 전국연의 물질문화 범위와 경계

조연전쟁 이후 기원전 3세기대 요동지역의 물질문화는 요중지역의 전국연계 중원문화와 요동~서북한지역의 세형동검문화로 확연하게 구별된다. 요중지역은 요하 평원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연의 요동군이 설치됐던 지역이며, 요동~서북한 지역은 고조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지역으로 요동 남부지역의 세형동검문화(윤가촌유형)와 요동 동부~서북한지역의 세형동검문화(상보촌유형)로 물질문화가 분화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요동 남부지역은 고조선의 직접적인 지배영역이었는지 단정하기에는 요동~서북한지역과 문화적인 상이성이 작지 않다. 다만 진한교체기에 들어오면 위만조선과 관련되는 토기류가 대련 일대에서 일부 출토되고 있어²⁹⁾ 이때 고조선의 관계망은 일정하게 유지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고조선의 지배 영역은 일단 천산산맥 이동의 요동 동부지역과 한반도의 서북지역으로 볼 수 있다.

요동 남부지역의 윤가촌유형과 요동 동부지역의 상보촌유형은 수암 일대를 관통하여 남류하는 대양하의 서변에서 물질문화가 동서 양쪽으로 구별된다. 두 지역의 세형동검문화는 일정하게 교류했을 법도 한데, 기원전 3세기대 세형동검문화의 교류 흔적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양하의 상류 일대는 천산산맥의 험준한 구릉들에 가로막혀 있긴 하나 요중지역의 해성하나 대청하와 연결되는 수변 교통로를 통해 서로 왕래하는 것이 가능한데, 전한 초기 무렵의 전국연계 유이민과 관련되는 생활유적에 해당되는 수암 핑신촌 유적(鞍山市岫巖滿族博物館 2009)은 이와 같은 지리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29) 鄭仁盛, 2014, 「연식토기문화의 확산과 후기고조선의 토기문화」, 『백산학보』100.

본계 일대에서 널리 확인되나 고조선계 지배층의 분묘에서 세형동검문화 유물들과 공반되는 것이어서 문화 교류의 흔적으로 판단된다. 세형동검문화는 요양과 본계의 사이에서 북류하여 태자하로 합수되는 탕하 인근까지 분포한다. 탕하와 대양하의 중간지대는 흑산(해발 1181m) 일대의 험한 산지여서 현재에도 교통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세형동검문화 유적은 수암 초자하 유적에서 확인된 바 있다. 전국연계 중원문화와 세형동검문화는 앞서 언급했던 대청하-해성하의 상류와 대양하의 상류 일대를 공백지대로 서로 접촉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고조선계 세형동검문화(상보촌유형)와 전국연계 중원문화는 무순(시)과 본계(시)를 연결하는 선과 ‘탕하-해성하-대청하-대양하’의 상류 삼각지대를 연결하는 선이 물질문화의 경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조선과 전국연(요동군)의 경계지대를 설정할 수 있겠는데, 결국 천산산맥의 서변 일대를 거의 벗어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³⁰⁾

이와 같은 문화 양상으로 『魏略』에서 고조선과 전국연의 경계라고 기술되어 있는 ‘만반한’을 찾는다면 자연적인 완충지대이자 문화적인 공백지대면서 지리적인 측면에서 교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탕하-해성하-대청하’의 상류 삼각지대와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다. 만반한은 ‘양평’(현재 요양)의 남쪽 또는 동쪽에 위치했을 것이므로 문헌 기록과도 상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학계의 경우 『漢書』地理志에 기술되어 있는 요동군의 18개 속현중에 文縣과 番汗縣이 함께 열거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만반한’을 문현과 번한현의 연칭으로 이해하여 왔다.³¹⁾ 다만 세부적으로는 문현을 개주 부근으로 보고 번한현을 그 인근 일대에서 찾는 입장³²⁾과 번한현을 청천강의 부근³³⁾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대체로 전자는 중심지 이동설의 입장이며, 후자는 평양중심설의 견해이다.

30) 朴淳發, 1993, 「우리나라 初期鐵器文化의 展開過程에 對한 約간의 考察」, 『考古美術史論』3, 忠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朴淳發, 2004, 「遼寧粘土帶土器文化의 韓半島 定着 過程」, 『錦江考古』創刊號, 忠清文化財研究院.

31) 李丙燾, 1956, 「衛氏朝鮮興亡考」, 『서울대학교 論文集』4(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千寬宇, 1975, 「三韓의 成立過程」, 『史學研究』26(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徐榮洙, 1988, 「古朝鮮의 위치와 疆域」, 『韓國史市民講座』2; 盧泰敦, 1990,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對한 연구」, 『韓國史論』23, 서울大 國史學科.

32) 徐榮洙, 1988, 「古朝鮮의 위치와 疆域」, 『韓國史市民講座』2; 盧泰敦, 1990,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對한 연구」, 『韓國史論』23, 서울大 國史學科; 朴준형, 2014, 「연의 고조선 공격과 군현 설치」,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33) 李丙燾, 1956, 「衛氏朝鮮興亡考」, 『서울대학교 論文集』4(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송호정, 2010, 「古朝鮮의 位置와 中心地 문제에 對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58.

여러 견해 중에 평양중심설의 시각에서 변한현을 청천강의 부근으로 보게 되면 문헌과는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되어 천산산맥을 횡단하여 요동 남부지역과 서북한지역이 모두 고조선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³⁴⁾ 조연전쟁 직후 요동 남부지역과 서북한지역의 교류 또는 주민 이동 흔적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물질문화의 구체적인 양상 역시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중심설의 입장에서 고조선과 전국연의 실질적인 경계를 근래까지 청천강유역으로 보게 된 것은 한국식 세형동검문화만을 고조선의 물질문화로 인식하는 연구 전통때문으로 생각된다. 사실 북한학계와 중국학계의 관련 유적조사 자료들을 국내에서 쉽게 활용하지 못한 1990년대 이전에는 만변한이 청천강의 하류 일대로 보인다는 문헌 연구 결과와 한국식 세형동검문화의 분포권과 명도전의 분포권이 청천강유역을 경계삼아 서로 구별되어 나타나는 문화 양상을 매우 중시했다.³⁵⁾ 그리하여 조연전쟁 이후 고조선의 물질문화를 청천강의 이남지역에서 유행했던 한국식 세형동검문화로 보는 것은 문헌사료와 고고학적 문화 양상을 모두 만족하는 합리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북한학계에서 요하유역의 초기세형동검문화(요령식 세형동검문화)가 한반도의 서북지역으로 파급되어 청천강의 이남지역에서 전형적인 한국식 세형동검문화로 계승되었다고 주장함에 따라³⁶⁾ 이를 조연전쟁의 결과물로 이해하고 이에 동조하게 된다.³⁷⁾

그렇지만 1990년대 이후 한국식 세형동검문화와 요하유역의 초기세형동검문화(요령식 세형동검문화)는 시기적으로나 형식학적으로 직접적인 계승 관계하에 있지 않고,³⁸⁾ 시기적·지역적으로 병행하는 약간 다른 문화라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³⁹⁾ 요중지역(심양 일대)의 후기비과형동검문화(정가와자유형)가 한반도의 중서부지역에 유입되어 한국식 세형동검문화가 성립하였거나⁴⁰⁾ 요동지역의 초기세형동검문화(요령

34) 盧泰敦, 1990,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23, 서울大 國史學科; 박준형, 2014, 「연의 고조선 공격과 군현 설치」,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35) 尹武炳, 1972, 「韓國 靑銅遺物の 研究」, 『白山學報』12(1989, 『韓國靑銅器文化研究』, 藝耕産業社).

36) 박진옥, 1987, 「초기좁은숫단검문화의 내용과 발전과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1987-1; 박진옥, 1988, 「비과형단검문화의 발원지와 창조자에 대하여」, 『비과형단검문화에 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37) 宋鎬晟, 2003, 「요동서북한지역에서 세형동검문화의 발생과 고조선의 국가형성 연구」, 『韓國上古史學報』40.

38) 이진무, 1990, 「초기철기시대 유적」, 『북한의 문화유산』 I, 고려원.

39) 趙鎭先, 2005, 「북한지역 세형동검문화의 發展과 性格」, 『韓國上古史學報』47; 李厚錫, 2008, 「中國 東北地域의 細形銅劍文化 研究 - 遼寧式細形銅劍을 중심으로」, 『崇實史學』21.

40) 李健茂, 1994, 「韓國式銅劍文化的 性格 - 成立背景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靑銅器文化 - 유물을 통해 본 사회상』, 國立文化財研究所; 趙鎭先, 2005, 『細形銅劍文化的 研究』, 學研文化社.

식 세형동검문화)와는 무관하게 한반도의 서북지역에서 자체적인 변화과정을 거쳐 한국식 세형동검문화로 이행하였다는⁴¹⁾ 견해들이 주목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전쟁 이전 고조선의 중심지로 요중지역의 정가와자유형에 주목하는 한편, 한국식 세형동검문화를 전쟁 이후 고조선 중심지의 이동 결과물로 보지 않으려는 견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⁴²⁾

한편 북한학계에서 전국연계 유물들이 혼합되어 출토되는 요하~청천강유역의 초기 철기문화를 세죽리-연화보유형(문화)으로 규정하고 전쟁 이후 등장하는 고조선의 물질문화로 인식하였지만⁴³⁾ 중국학계와 일본학계를 비롯하여 남한학계의 평양중심설에서는 주로 전국연계 유이민과 토착민에 의한 복합문화로 이해하고 특히 전국연계 주민들과 관련시켜 본다.⁴⁴⁾

그렇지만 천산산맥 일대를 기준으로 그 이서의 요중지역은 전국연의 요동군에 속한 지역이고, 그 이동의 요동 동부지역은 고조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맥 같은 토착집단이 있던 지역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요동 동부지역에서 명도전을 부장하는 분묘유적들은 모두 토착 세형동검문화와 관련되며,⁴⁵⁾ 한반도의 서북지역에서 명도전이 출토되는 매납유적들도 진한대의 화폐들이 함께 발견되는 예가 많아 대부분이 전국 말기 이후의 혼란기와 관련되는 것인데다⁴⁶⁾ 주로 산간지역의 교통로 부근에 위치하여 모피교역과도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아⁴⁷⁾ 정치적인 것보다는 경제적인 배경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전국연계 철기 역시 매납유구가 아닌 경우 대부분은 토착 세형동검문화에서 출토되고 있어 요동군을 통한 전국연계 물질문화의 수용 양상을 반영하는 것 정도로 이해된다.⁴⁸⁾ 중국학계의 견해를 일부 수용하더라도 세죽리-연화보유형의 표지유적으

41)李清圭, 1993, 「青銅器를 통해 본 古朝鮮」, 『國史館論叢』42;李清圭, 2005, 「青銅器를 통해 본 古朝鮮과 주변 사회」, 『北方史論叢』6.

42)金玟燦, 2014, 「遼寧地域 粘土帶土器文化의 변천과 파급」, 『韓國青銅器學報』15;朴辰一, 2007, 「粘土帶土器, 그리고 青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 『韓國青銅器學報』1(創刊號);李亨源, 2011, 「中部地域 粘土帶土器文化의 時空間的 正體性」, 『湖西考古學』24;이후석, 2014, 「遼東~西北韓地域의 細形銅劍文化와 古朝鮮」, 『東北亞歷史論叢』44;鄭仁盛, 2016, 「燕系 鐵器文化의 擴散과 그 背景」, 『嶺南考古學』74;趙鎮先, 2014, 「中國 東北地域의 青銅器文化와 古朝鮮의 位置 變動」, 『東洋學』56.

43)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편, 1977,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39~143쪽.

44)송호정, 2007, 「세죽리-연화보유형 문화와 衛滿朝鮮의 성장」, 『湖西史學』48;田村晃一, 1994, 「樂浪郡設置前夜の考古學(一)-清川江以北の明刀錢出土遺蹟の檢討-」, 『樂浪と高句麗の考古學』, 同成社;

45)박선미, 2000, 「기원전 3~2세기 요동지역의 고조선문화와 명도전유적」, 『선사와 고대』14.

46)李清圭, 2005, 「青銅器를 통해 본 古朝鮮과 주변 사회」, 『北方史論叢』6; 2014, 「遼東-西北韓의 初期鐵器文化와 衛滿朝鮮」, 『東北亞歷史論叢』44.

47)姜仁旭, 2011, 「古朝鮮의 毛皮貿易과 明刀錢」, 『한국고대사연구』64.

로 지목되는 무순 연화보 유적과 영변 세죽리 유적은 모두 요동군의 장새 밖에 위치하고 있어⁴⁹⁾ 전국연의 지배영역으로 보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설득력이 없다.

청천강의 이남지역에서 유행했던 한국식 세형동검문화에 대비되는 천산산맥 일대의 물질문화는 요하유역까지 포괄하는 세죽리-연화보유형으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요동 동부지역과 서북한지역을 포괄하는 요령식 세형동검문화(상보촌유형)로 이해해야 한다.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하 방면에서 한반도의 서북지역으로 이동하였다면 요동지역의 물질문화가 서북한지역에 등장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연전쟁 후의 고조선과 전국연의 경계 역시 청천강유역이 아닌 천산산맥 서변 일대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맺음말

이와 같이 고조선과 전국연의 경계 변화는 기본적으로 『魏略』과 『史記』, 또는 『鹽鐵論』의 관련 기록을 중시해야 하겠으나 서술 내용이 소략하고, 그나마도 일부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인해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왔다. 그러므로 고고학적 물질문화의 경계를 찾아 문헌 기록과 대비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문헌 사료만을 통해 보면 燕은 전성기인 昭王 시기(기원전 311~279년) 동북 방면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동호’는 장성 이복으로, ‘조선’은 만변한 이동으로 각각 물러나게 하였는데, 기술 내용으로 보아 조연전쟁 당시 고조선과 전국연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는 ‘연↔(동호)↔요수↔양평↔만변한↔조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먼저 전쟁 전의 기원전 4세기대 하북지역과 요서지역의 물질문화 분포권을 확인한 후 그 담당자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으며, 이

48) 박준형, 2014, 「고조선의 평양으로 이동과 예맥사회의 변화」,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출판사; 이후석, 2014, 「遼東~西北韓地域의 細形銅劍文化和 古朝鮮」, 『東北亞歷史論叢』44.

49)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14, 『遼海記憶：遼寧考古六十年重要發現(1954~2014)』, 遼寧人民出版社.

후 전국연과 고조선의 경계가 어디인지 논하였다. 하북지역의 전국연은 이미 기원전 4세기 전반경에 연산산지의 용적집단(옥황묘문화)을 동화시키면서 난하유역으로 진출하였으며, 요서지역의 고조선계 예맥집단(동대장자유형)은 건창 일대를 중심으로 성장하여 전국연은 물론 요중지역의 고조선(정가와자유형)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요서지역과 요중지역의 수장층은 권력 기반을 달리하여 같은 지역정치체로 보기 어렵지만 당시 고조선의 정치체제가 연맹체적 관계하에 있는 초기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인의 시각에서 보기에 같은 정치체로 보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전쟁 전의 고조선과 전국연의 경계는 하북-요서 접경지역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쟁 후의 기원전 3세기대 요동지역과 서북한지역의 물질문화 분포권을 확인한 후 그 담당자를 추론하였는데, 요중지역에는 전국연의 물질문화가 전면 확산되고 있어 문헌 기록대로 요동군이 설치되었으며, 요동 동부지역과 서북한지역은 요령식 세형동검문화(상보촌유형)로 결속되어 있어 모두 고조선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고조선이 중심지를 상실하고 요하 방면에서 한반도의 서북 방면으로 이동하였다면 요동지역의 물질문화가 서북한지역에 등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전쟁 후의 고조선과 전국연의 경계는 청천강유역이 아닌 천산산맥의 서변 일대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요동군의 '양평'(요양) 남쪽이자 문헌과도 멀지 않은 '탕하-대칭하-해성하'의 상류를 연결하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평양중심설의 입장에서 고조선과 전국연의 실질적인 경계를 청천강유역으로 설정했던 것은 그 이남지역에서 유행했던 한국식 세형동검문화만을 고조선의 물질문화로 인식하였으며, 그 이북지역에서 전국연계 물질문화(세죽리-연화보유형)가 확산되는 것을 전국연의 영역화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서북한지역은 토착적인 한국식 세형동검문화와 요동지역에서 들어왔던 요령식 세형동검문화가 공존하는 문화 접이지대였고, 요동 동부지역은 요령식 세형동검문화(상보촌유형)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전국연계 철기문화를 일부 수용했을 따름이다.

〈토론문〉

고고학을 통해 본 만반한

- 고조선과 연나라의 경계 변화 -

김종서 (한국과 세계의 한국역사 교육을 바로잡는 사람들의 모임)

고조선과 연나라 국경 지역인 만변한의 실제 위치

김종서 (한국과 세계의 한국역사 교육을 바로잡는 사람들의 모임)

본문 대부분은 필자의 선행 연구서인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9권, 『한국사 교과서 바로잡기 1000장면』 1~2권, 『신시·단군조선사 연구』, 『단군조선 영토연구』, 『기자·위만조선 연구』,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부여·고구려·백제사 연구』, 박사학위 논문인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 비정 연구』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를 달아서 출전을 밝혀야 하나 시간 부족 관계로 별도의 각주를 달지 않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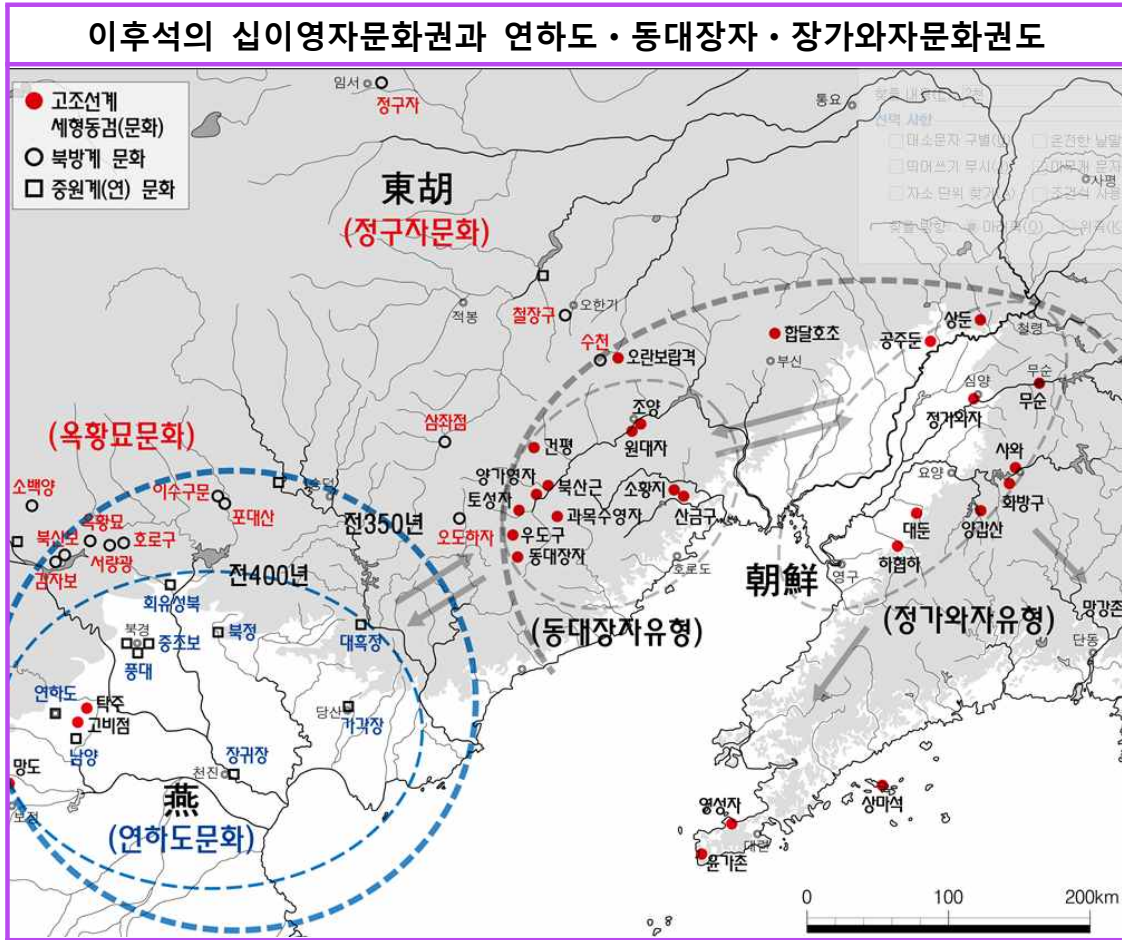
1. 이후석 박사의 ‘고고학을 통해 본 만변한’에 대해

1) 한국고대사 연구사에 큰 획을 긋는 연구로 높이 평가해야

이후석 박사의 발표문 요지는 대략

- ① 십이대영자문화(十二臺榮子文化)는 기원전 9~4세기경 노로아호산(努魯兒虎山) 이남에서 요서지역과 요동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토착계 청동기문화로서, 요령식동검(또는 비파형동검)과 이중구연점토대토기를 표지 유물로 하는 예맥이나 고조선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정치체로서 동호와는 무관하게 보는 견해들이 증가하고 있다.

② 이 십이대영자문화는 ㉠대릉하 상류 유역에 있는 요녕성(遼寧省) 건창현(建昌縣)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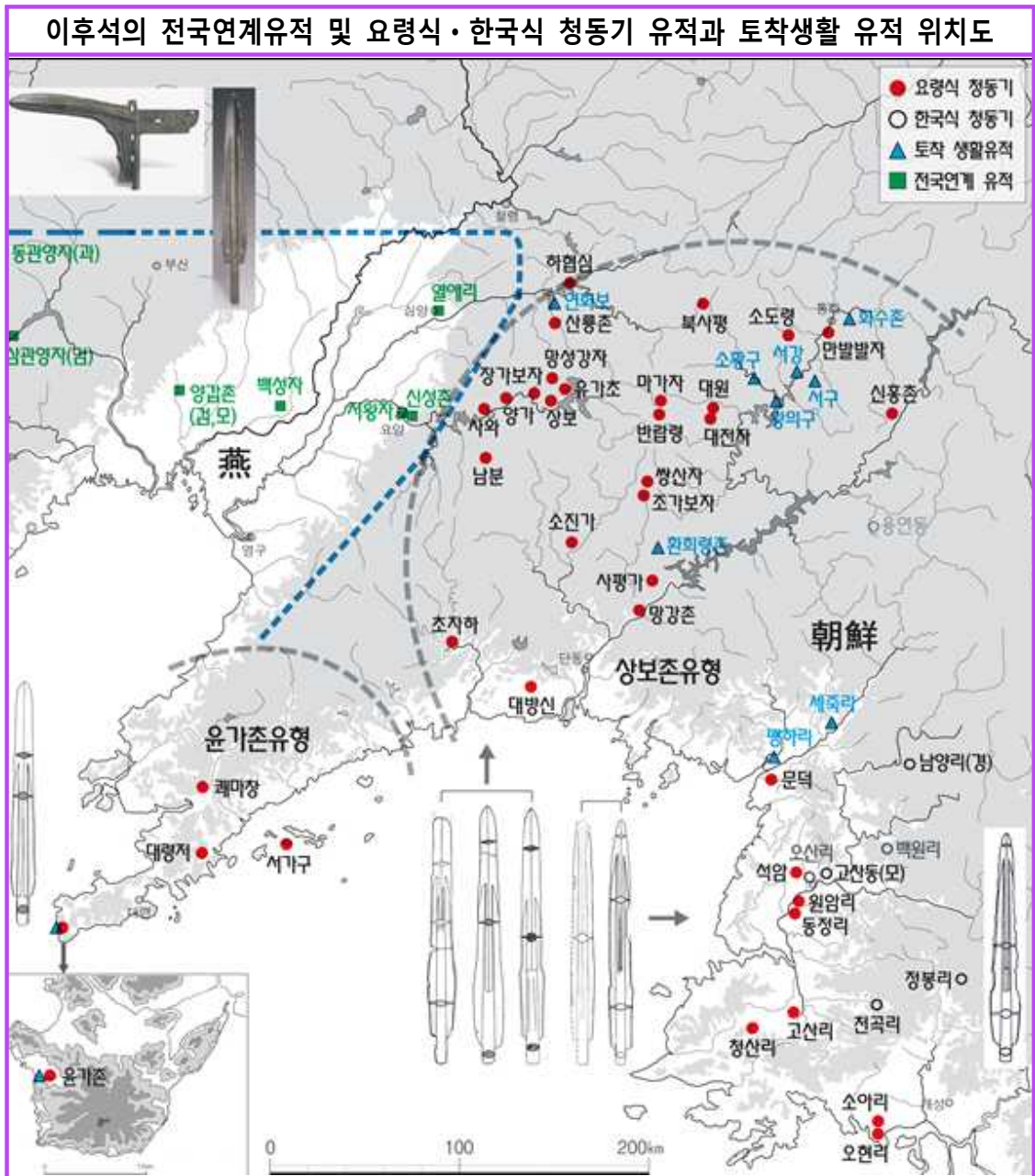


동대장자(東大杖子) 유적·유물을 중심으로 대릉하 유역·발해 북동부 지역에 형성된 동대장자유형문화권의 예맥집단 문화와 ㉡요녕성 심양시(瀋陽市) 정가와자(鄭家窪子) 유적·유물을 중심으로 요중(遼中) 지역에 형성한 정가와자유형문화권의 고조선집단문화로 분화되었는데, ㉢동대장자유형문화권과 정가와자유형문화권을 모두 고조선에 포함시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연(燕)나라 소왕(昭王, 서기전 311년 ~ 서기전 279년 재위) 때에 연나라 장수 진개의 공격으로 고조선(필자는 중조선)이 서방 2,000리를 상실하여, 중국 연나라와 고조선의 국경 지역인 만변한은 천산산맥(千山山脈) 서변 일대가 되었다. 라는 것이다.

이후석 박사는 연나라 요동군 위치를 천산산맥(千山山脈) 서변 일대로부터 그 서

쪽의 요중(遼中) 지역으로 보고, 천산산맥(千山山脈)과 그 남쪽지역을 고조선(필자는 중조선·후조선)으로 보는 근거로 다음의 ‘전국연계유적 및 요령식·한국식 청동기 유적과 토착생활유적 위치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유물·유적의 분포 현황을 들고 있다.



이후석 박사는 요동군 양평현과 만변한이 요중 지역에 있었던 근거로 요서(遼西)·요중(遼中) 지역의 전국시대 연계(燕系) 유적을 들었다. 이어서 이병도·노태돈·

송호정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의 ‘요동군 양평현 이 요양(遼陽)’이라는 주장을 따르고 있다.

대릉하유역·발해 북동부 지역의 십이대영자문화(十二臺榮子文化) → 동대장자(東大杖子)유형문화권·정가와자유형문화권으로 대표되는 요서(遼西)·요중(遼中) 지역 문화권이 고조선계 문화권이었고, 고조선이 연나라 진개의 동침으로 이 요서(遼西)·요중(遼中) 지역을 잃고 천산산맥(千山山脈)과 그 남쪽으로 위축되었다는 이후석 박사와 같은 학자들의 연구결과는 요하 동쪽만이 고조선 지역이고, 요하 서쪽을 산융·동호 영역이었다고 주장해온 순수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에 비하면 큰 진적이고 발전이라고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요동군 영역을 천산산맥(千山山脈) 서변으로부터 요중(遼中) 지역으로 비정함으로서 연(燕)·진(秦)나라가 요동군을 설치한 이후의 고조선(필자의 중조선과 후조선)과 한사군(漢四郡: 낙랑군·임둔군·진번군·현도군), 한이군(漢二郡: 낙랑군·현도군), 한삼군(漢三郡: 낙랑군·대방군·현도군)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천산산맥(千山山脈) 남쪽의 요동반도 대부분과 한반도 북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필자는 위와 같은 학설을 ‘신(新)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 혹은 ‘신(新) 고조선 이동설’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십이대영자문화(十二臺榮子文化)와 요하 서쪽의 동대장자유형문화를 고조선문화라고 증명한 ‘신(新)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은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을 무너트리고, ‘고조선·한사군 재 요서설’이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학설로 정립되는데 큰 공헌을 하는 연구, ‘한국고대사 연구사에 큰 획을 긋는 연구’로 높이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 사대·식민사관의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을 무너트린 고 과학적 연구 성과

필자는 한국고대사 연구와 인식에 있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4대전제로 인하여 ①한국고대사 영역이 요하의 동쪽으로 축소되었고, ②청천강(혹은 압록강) 남쪽의

작은 나라로 위축된 이후, ③중국이 고조선(후조선)을 멸망시킨 후 고대 한국인들을 약 400년 간 식민지배한 역사로 왜곡되어 왔음을 밝혀낸 바 있다.

이 역사왜곡의 4대전제는 “①고대의 요수가 현대의 요하이다. ②요하 서쪽은 산융·동호의 영역이었다. ③연나라 소왕이 장수 진개를 시켜 요하 서쪽의 동호 땅 1,000리를 빼앗고, 조선 땅 2,000리를 빼앗았다. ④고조선은 연장(燕將) 진개(秦開)에게 서·북쪽 영역 2천리를 빼앗기고 청천강(혹은 압록강) 이남의 작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앞에서 간단히 살펴본 ‘신(新)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혹은 신(新) 고조선 이동설)’을 주장해온 학자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한 채,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을 주장해 온 학자들이 범해왔던 역사 연구·분석에서의 심각한 오류, 역사 왜곡사실을 노정(露呈)시키고,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은 성립할 수 없는 학설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낸 큰 공을 세웠다.

왜냐하면 “①십이대영자문화(十二臺榮子文化)는 기원전 9~4세기경에 노로아호산(努魯兒虎山) 이남에서부터 요서 지역과 요동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토착계 청동기문화이었고, ②이 십이대영자문화가 ㉠대릉하 상류 유역에 있는 요녕성(遼寧省) 건창현(建昌縣) 동대장자(東大杖子) 유적·유물을 중심으로 한 요서지역의 동대장자유형문화권과 ㉡요녕성 심양시(瀋陽市) 정가와자(鄭家窪子) 유적·유물을 중심으로 한 요중(遼中) 지역의 정가와자유형문화권으로 분화되었는데, ③십이대영자문화 → 동대장자유형문화·정가와자유형문화를 예맥을 포함한 고조선문화에 포함시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십이영자문화권과 연하도·동대장자·장가와자문화권으로 본 만번한¹⁾



즉, 이후석 박사의 발표문과 ‘이후석의 십이영자문화권과 연하도·동대장자·장가와자문화권도’에서 보듯이 하북성 진황도시 이동지역 즉, 요녕성 호로도시(葫蘆島市)의 건창현(建昌縣)·수중현(綏中縣)과 조양시(朝陽市)의 룡원(凌源)·건평현(建平縣)은 고조선의 서부지역이었다. 그러므로 서기전 9세기부터 서기전 4세기까지의 고조선의 서쪽 국경은 앞에서 본 지도인 ‘십이영자문화권과 연하도·동대장자·장가와자문화권으로 본 만번한’에서 보듯이 건평(建平)·룡원(凌源)·건창(建昌)·수중(綏中)의 서쪽 지역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①고대의 요수가 현대의 요하이다. ②요하 서쪽은 산융·동호의 영역이었다. ③연나라 소왕이 장수 진개를 시켜 요하 서쪽의 동호 땅 1,000리를 빼앗고, 조선 땅 2,000리를 빼앗았다. ④고조선은 서·북쪽 영역 2천리를 빼앗기고 청천강(혹은 압록강) 이남의 작은 나라가 되었다.”는 한국고대사 연구·분석에 있어서의 4대전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립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1) 앞 “이후석의 십이영자문화권과 연하도·동대장자·장가와자문화권” 참조.

(1) ‘고대의 요수가 현대의 요하’ 라는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 주장자들의 논리 전개에 대한 대전제는 성립할 수 없는 허구

중국 연나라는 고조선의 서쪽에 있던 나라이다. 그런데 고조선의 서쪽 국경이 건평(建平)·릉원(凌源)·건창(建昌)·수중(綏中)의 서쪽 지역에 있었으므로 고조선과 중국 연나라의 국경선이었던 고대의 요수 또한 건평·릉원·건창·수중 지역의 서쪽에 있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소진(蘇奏)이 문후에게 연나라 동쪽에 조선·요동이 있다.²⁾고 하였고, 『염철론』에서 “연나라가 요동을 넘어 조선을 공격하였다”³⁾라고 하였으니 요동은 조선과 별개의 국가로서 조선의 서쪽에 있던 나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나라의 동쪽과 조선의 서쪽에 있었던 요동국은 건평(建平)·릉원(凌源)·건창(建昌)·수중(綏中)의 서쪽 지역에 있는 산해관(山海關)·진황도(秦皇島) 및 란하(灤河) 중·하류 유역으로부터 천진(天津)·북경(北京) 등을 영토로 했던 국가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고대의 요수는 요동국의 서쪽에 있던 ‘영정하(永定河)’일 수밖에 없다.

요동국은 앞에서 본 지도인 ‘십이영자문화권과 연하도·동대장자·장가와자문화권으로 본 만변한’에서 보듯이 건평(建平)·릉원(凌源)·건창(建昌)·수중(綏中)의 서쪽 지역에 적색 굵은 직선으로 표시된 ‘요동과 고조선의·연과 고조선의 국경선’의 서쪽으로부터 역수(易水) 북쪽의 연하도(燕下都)를 도읍으로 한 연(燕)나라의 동쪽 국경선이었던 영정하(고대의 요수)사이에 있었을 수밖에 없다.

연(燕)·진(秦)나라가 그 요동국을 동서로 나누어서 요동군과 요서군을 설치했으니 요동군 영역은 산해관(山海關)·진황도(秦皇島)·창려(昌黎)·청룡(靑龍)·천안(遷安)·천서(遷西)·준화(遵化)·흥룡(興隆)·당산(唐山) 등의 지역을 영역으로 했을 수밖에 없다.

또 앞에서 본 지도인 ‘십이영자문화권과 연하도·동대장자·장가와자문화권으로 본 만변한’에서 보듯이 건평(建平)·릉원(凌源)·건창(建昌)·수중(綏中) 지역으로부터 그 동쪽이 전부 ‘예·맥·고조선 영역(십이대영자문화·동대장자유형문화·정가와자유형문화권)’이었다. 그러므로 건평(建平)·릉원(凌源)·건창(建昌)·수중(綏中)의 동쪽 멀리

2) 『史記』 卷六十九 『蘇秦列傳』, “後得見說燕文侯曰 燕東有朝鮮遼東 北有林胡樓煩 西有雲中九原 南有噶沱易水 地方二千餘里”

3) 『鹽鐵論』 卷九 『伐功四十五』, “大夫曰……燕襲走東胡 辟地千里 度遼東而攻朝鮮”

에 있는 요하가 고조선·요동국의 서쪽 국경인 고대의 요수였다는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 주장자들의 논리 전개에 대전제도 성립할 수 없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

(2) ‘요하 서쪽은 산융·동호의 영역’ 이라는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 주장자들의 논리 전개에 대전제도 성립할 수 없는 허구

서기전 9세기 ~ 서기전 4세기의 고조선 영역이 앞에서 본 지도인 ‘십이영자문화권과 연하도·동대장자·장가와자문화권으로 본 만변한’에서 보듯이 건평(建平)·릉원(凌源)·건창(建昌)·수중(綏中)으로부터 동쪽으로 대릉하를 넘어 요하까지의 요서 지역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즉, 요서지역 모두가 고조선 영역이었으므로 요하 서쪽의 요서지역(요녕성 서부지역)이 산융·동호 영역이었다는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 주장자들의 논리 전개에 대전제도 성립할 수 없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

3) 연나라 소왕과 진개가 조선 땅 2,000리를 빼앗고, 만변한에 이르러 국경으로 삼았다는 주장은 허구

우선 앞 “(2) ‘요하 서쪽은 산융·동호의 영역’ 이라는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 주장자들의 논리 전개에 대전제도 성립할 수 없는 허구”에서 산융·동호가 연나라와 고조선 사이에 있을 수 없음을 간단히 말한 바 있으니 추가 언급은 하지 않기로 한다.

연나라와 조선의 역사가 수록된 『사기』, 『전국책』, 『한서』, 『염철론』 어디에도 연나라 소왕(昭王)이 진개로 하여금 조선 땅 2,000리를 빼앗았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중 역사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일 뿐이다. 만들어낸 말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믿어온 것이다.

또한 어환(魚豢)이 『위략』에서 “연(燕)나라가 마침내 장군 진개(秦開)를 보내어 그 서쪽 지방을 공격하여 2,000여리를 빼앗았고, 만변한(滿潘汗)⁴⁾에 이르러 국경으

4) ‘만변한(滿潘汗)’이라는 지명이 없다. 요동군에 ‘변한현(潘汗縣)’의 ‘변한(潘汗)’이 있을 뿐이다. 정양용, 이병도 등은 ‘만변한(滿潘汗)’의 ‘만(滿)’이 요동군 ‘문현(文縣)’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옳지 않다. 어환이 있지도 않는 ‘만변한(滿潘汗)’을 연나라와 조선의 국경이라고 한 것을 보면 어환이 연나라와 조선의 역사·지리에 대하여 잘 모른 것이 분명하다.

로 삼았다. 때문에 조선이 마침내 약해졌다.” 라고 한 기록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기록이 아니다.

필자는 2004년에 발표한 『단군조선영토연구』 · 『기자·위만조선연구』, 2005년에 발표한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 비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2013~2016년에 발표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9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역사의 진실을 밝혀 낸 바 있다.

- ① 연나라 역사서인 『사기』 「연소공세가」에 연나라 진개의 조선 땅 2천리 침탈 기록이 없다는 것,
- ② 조선의 역사서인 『사기』 「조선열전」에 조선이 연나라 진개에게 2천리를 뺏겼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
- ③ 2천리의 넓은 영토를 뺏고 뺏기는 전쟁 기록이 연나라 역사서인 「연소공세가」나 조선의 역사서인 「조선열전」에 없을 수 없다는 것,
- ⑤ 「연소공세가」와 「조선열전」에 연나라와 조선 간의 전쟁 기록은 고사하고 접촉 기록조차 없다는 것,
- ⑥ 『전국책』에도 연나라 진개가 조선 땅 2천리를 빼앗았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
- ⑦ 『전국책』에 연과 조선의 접촉 기록도 없다는 것,
- ⑧ 『전국책』에 연나라가 동호 땅 1천리를 빼앗고, 조선 땅 2천리를 빼앗았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
- ⑨ 진개가 동호 땅 1천리와 조선 땅 2천리 등 3천리를 빼앗았다면 전국시대 최고의 공로를 세운 영웅 중 하나인데 『전국책』에 진개의 이름조차 없다는 것,
- ⑩ 만약 진개가 동호 땅 1천리를 빼앗고, 조선 땅 2천리를 빼앗았다면 전국시대 최고의 영웅이고 공로자이다. 진개에 비하여 공로가 많이 뒤떨어지는 많은 인물들에 대하여서 각각 「열전」을 지은 사마천이 「진개열전」을 짓지 않았을 리 없다는 것,
- ⑪ 「흉노열전」에 진개의 사적에서 진개의 손자 진무양의 사적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사마천의 필법이 아니고 사가, 역사학자들의 필법이 아니라는 것,
- ⑫ ‘현장진개(賢將秦開)’와 같은 표현은 사마천의 필법이 아니라는 것,
- ⑬ 진개의 조선 땅 2천리 침탈과 같은 큰 전쟁 기록이 전쟁 가능일로부터 720여년

(혹은 500여년) 뒤, 그것도 고조선이 없어진 지 500여년 이상 지난 앞에 처음 나타난다는 것,

⑭ 만약 진개가 동호에 인질로 잡혀 갔고, 동호 땅 1,000리를 빼앗은 것이 사실이라면 진개는 연나라 사람이 아니라 조(趙)나라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⑮ 진개가 연나라 사람이라면 진개가 빼앗은 동호 땅 1,000리는 동호에게 빼앗긴 땅을 수복한 것이거나, 연나라 북·북서쪽의 하북성 북서부·산서성 북동부 지역의 1,000리일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진개의 조선 땅 2,000리 침탈 기록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어환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거나 이야기꾼이 지어낸 말을 어환이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 등을 밝혀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요동군은 물론 중국에 ‘만번한(滿潘汗)’이라는 지명이 있었던 적이 없다. 정약용, 이병도 등은 ‘만번한(滿潘汗)’의 ‘만(滿)’이 요동군 ‘문현(文縣)’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근거 없는 말이다. 요동군에 ‘번한현(潘汗縣)’의 ‘번한(潘汗)’이 있을 뿐이다. 어환이 있지도 않는 ‘만번한(滿潘汗)’을 연나라와 조선의 국경이라고 한 것을 보면 어환이 연나라와 조선의 역사·지리에 대하여 잘 모른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사기』, 『한서』, 『진서』 등의 기록을 미루어 볼 때, 조선과 연·진(秦)의 국경선은 요동군 만번한이 아니라 요동군 양평현에 있던 갈석산일 수밖에 없다. 물론 번안현이 갈석산 보다 서북·북쪽에 위치한 군현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4) 연(燕)·진(秦)·서진(西晉) 장성의 동쪽 끝인 양평과 갈석산은 산해관

연(燕)·진(秦)나라와 고조선(필자는 중조선)의 국경을 알 수 있는 기록을 찾아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요동국은 연나라와 조선 사이에 있던 국가

소진(蘇奏)이 문후에게 연나라 동쪽에 조선·요동이 있다.⁵⁾고 하였고, 『염철론』

5) 『史記』 卷六十九 『蘇秦列傳』, “後得見說燕文侯曰 燕東有朝鮮遼東 北有林胡樓煩 西有雲中九原 南有噶沱易水 地方二千餘里”

에서 “연나라가 요동을 넘어 조선을 공격하였다”⁶⁾라고 하였으니 요동은 조선과 별개의 국가로서 연나라의 동쪽·조선의 서쪽에 있던 나라, 연나라와 조선 사이에 있던 나라이다.

(2)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요동군 양평현에 있던 갈석산

- ① 『사기』 「흉노열전」에 “연(燕)나라 또한 조양(造陽)으로부터 양평(襄平)에 이르기까지 장성을 쌓고, 상곡(上谷)·어양(漁陽)·우북평(右北平)·요서(遼西)·요동군(遼東郡) 설치하였다.”⁷⁾라고 하였고,
- ② 『사기』 「몽념열전」의 “(몽념이) 장성을 쌓는데 지형과 험한 요새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장성은 임조(臨洮)에서 시작하여 요동(遼東)에까지 이르렀다.”⁸⁾라고 하였으며,
- ③ 『사기』 「진시황본기」에 “(장성이) 북쪽으로는 황하에 의지해 요새를 삼고 음산으로 이어서 요동에까지 이르렀다.”⁹⁾라고 하였고,
- ④ 『사기』 「진시황본기」에 “(진시황이) 천하를 36개 군으로 분할하였는데 (진나라의 전체) 영토는 동쪽으로 바다와 조선에 이르렀고,……(장성이) 북쪽으로는 황하에 의지해 요새를 삼고 음산으로 이어서 요동에까지 이르렀다.……시황 재위 33년(서기전 214년) 시황이 갈석산에 가서 연(燕)나라 사람(燕人) 노생(盧生)으로 하여금 이문(羨門)과 고서(高誓)를 찾아보도록 하였다.……2세 황제가 동쪽의 군현들을 순행(순수)하였는데, 이사가 수행하였다. 갈석에 이르러서는 바다를 따라서 남쪽의 회계에 이르렀다.”¹⁰⁾고 하였으며,
- ⑤ 『한서』 「지리지」 요동군조에 “요동군에 양평현(襄平縣)이 있다.”¹¹⁾고 하였고,
- ⑥ 『진서』 「당빈전」에 “당빈(唐彬)이……옛 영토 1,000여리를 수복하였다(물리치고 개척하였다). 진(秦)나라 때의 장성(長城)과 요새(要塞)를 다시 복원하니

6) 『鹽鐵論』 卷九 「伐功四十五」, “大夫曰……燕襲走東胡 辟地千里 度遼東而攻朝鮮”

7) 『史記』 卷一百十 「匈奴列傳」, “其後燕有賢將秦開 爲質於胡 胡甚信之 歸而襲破走東胡 東胡卻千餘里……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

8) 『史記』 卷八十八 「蒙恬列傳」, “築長城因地形用制險塞 起臨洮至遼東”

9) 『史記』 卷六 「秦始皇本紀」, “北據河爲塞 並陰山至遼東”

10) 『史記』 卷六 「秦始皇本紀」, “分天下以爲三十六郡 ……地東至海暨朝鮮 西至臨洮羌 中南至北嚮戶 北據河爲塞 並陰山至遼東……三十二年 始皇之碣石 使燕人盧生求羨門高誓……二世東行郡縣 李斯從 到碣石 並海 南至會稽”

11) 『漢書』 卷二十八下 「地理志」, “遼東郡 [秦置屬幽州] …… 縣十八 襄平 [有牧師官 莽曰昌平] ”

온성(溫城)으로부터 갈석산(碣石山)에 이르도록 산(山)과 계곡(溪谷)에 길게 연(連)이어서 뻗친 장성(長城)의 길이 또한 3,000리나 되었다.”¹²⁾라고 하였다.

위 ㉔~㉖에서 『사기』 「흉노열전」에서 “연나라 조양(造陽)으로부터 양평(襄平)에 이르기까지 장성을 쌓았다고 하였고, 『사기』 「몽념열전」에서 임조(臨洮)에서 요동(遼東)까지 장성을 쌓았다고 하였으며, 『사기』 「진시황본기」에 장성이 요동에까지 이르렀다고 하였고, 『한서』 「지리지」 요동군조에 요동군에 양평현(襄平縣)이 있다고 하였으니, 연(燕)·진(秦)나라 장성의 동쪽 끝은 요동군 양평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진서』 「당빈전」에 “당빈이 진나라 때의 옛 영토 1,000여리를 수복하고 진(秦)나라 때의 장성(長城)과 요새(要塞)를 다시 복원한 것이 온성(溫城)으로부터 갈석산(碣石山)에 이르도록 3,000리나 되었다.”고 하였다. 이 기록으로 당빈이 복원한 장성이 진나라의 만리장성이고, 당빈이 수축한 장성의 동쪽 끝 지점인 갈석산이 연·진 장성의 동쪽 끝인 요동군 양평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기』 「진시황본기」에 “진나라 영토는 동쪽으로 바다와 조선에 이르렀다.”고 하였고, “진시황이 갈석산에 가서 연(燕)나라 사람(燕人) 노생(盧生)을 만났다.”고 하였으니 진시황이 노생을 만난 갈석산은 조선에 있던 땅이 아니라 연나라 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갈석산이 연나라에서 2,000리 멀리 떨어진 예·맥·조선 땅에 있었다면 연나라 사람 노생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 노생이나 예·맥 사람 노생을 만났다고 하였을 것이다.

또 “2세 황제가 동쪽의 군현들을 순행하여 갈석에 이르렀고, 갈석으로부터는 바다를 따라서 남쪽으로 가서 회계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니 갈석산은 바닷가에 있는 산이고, 동쪽의 군현들 중에 가장 동쪽 끝 지역에 있는 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볼 것이 많은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 국가 최고 지도자라면, 특히 자신의 제국 영토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볼 것이 많은지 등을 확인하고자 순행하는 황제라면 당연히 자신의 영토 맨 동쪽 끝 지점에 있는 장성에 올랐을 것이다. 천하를 통일한 최초의 황제, 제국의 2세 황제라는 자부심도 만끽하고, 장성을 지키는 장졸들을 위무(慰撫)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12) 『晉書』 卷四十二 「唐彬傳」, “唐彬 ……遂開拓舊境 卻地千里 復秦長城塞 自溫城泊于碣石 綿互谷且三千里 分軍屯守 烽堠相望”

갈석산이 연(燕)나라 땅 끝 지점이었고, 진나라의 동쪽 끝 지점이었으며, 조선의 서쪽경계선에 있는 땅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사기색은』 등의 여러 사서에 “『태강지리지』 13)에 ‘낙랑군 수성현(遂城縣)에 갈석산(碣石山)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게 된 것이다.

갈석산(碣石山)의 갈석(碣石)은 ‘비석과 같이 수직으로 서 있는 거대한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갈석(碣石)’이라는 연·진·한·서진의 동쪽 영토 중에 바닷가에 있으면서 ‘갈석(碣石)’이라는 이름을 가질 만한 산은 진황도시·호로도시 수중현에 있었던 갈석산{갈석산(碣石山, 해발 695m), 조산(祖山, 해발 1,428m), 장수산(長壽山, 해발 약 907m)} 밖에 없다. 이 갈석산에서 동쪽으로 바다를 따라서 한반도의 평양에 이르기까지 갈석산으로 불릴 만한 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5) 요서·요동지역의 전국시대 연나라 문물 및 한대 유물의 해석 문제

이후석 박사가 제시한 ‘도면1’의 요양(遼陽) 하맥와(下麥窩) 매납유적(遺蹟) 출토 ‘양평(襄平)’명(銘) 포전(布錢)은 요양이 요동군 양평현이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고문자유편(古文字類編)』에서 중국 고대 글자들을 살펴본 결과 ‘도면1’의 글자는 전국시대에 사용되던 ‘양평(襄平)’의 고자(古字)가 아니다. 설사 새겨진 글자가 ‘양평(襄平)’이라는 글자라고 하더라도 요동군 양평현의 위치를 증명하는 유물은 될 수 없다. 화폐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통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작한 곳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되고, 저장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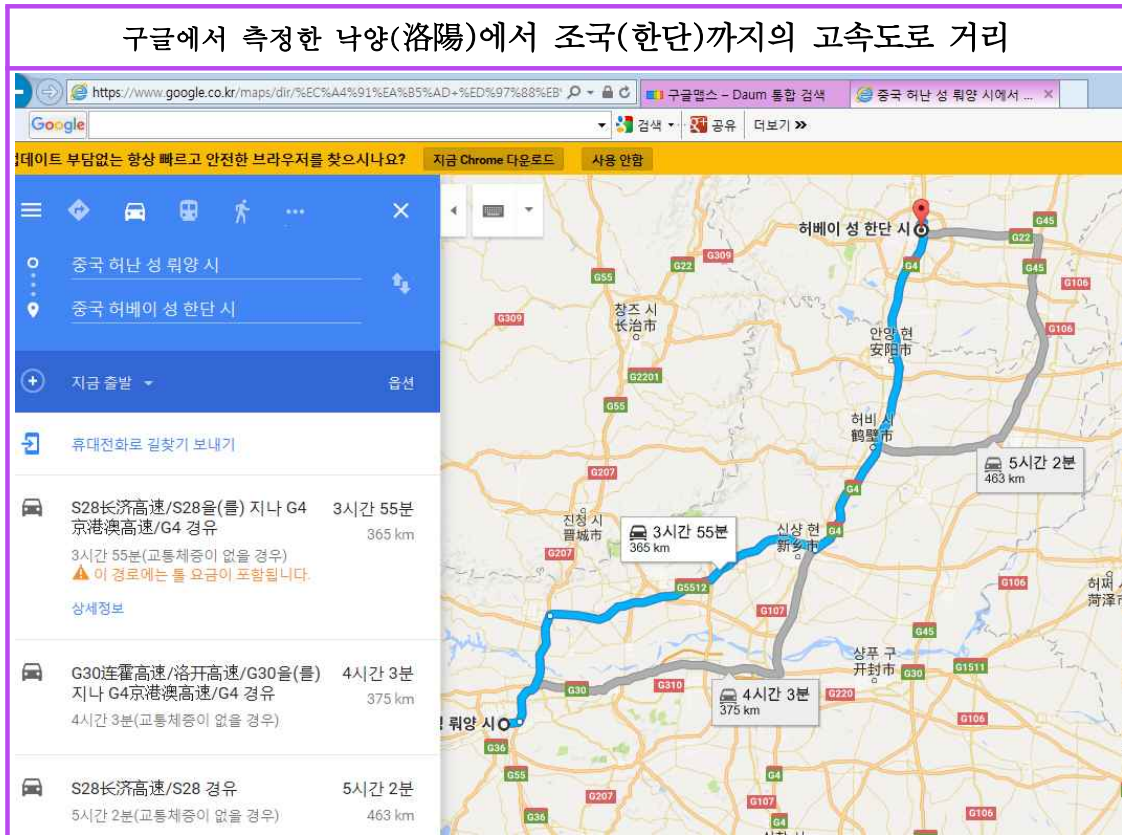
13) 태강(太康)은 서기 280~289년에 사용된 서진의 연호이다.



또 요양(遼陽)의 삼도호(三道濠) 취락유적지에서 출토된 ‘창평(昌平)’명(銘) 도옹편(도면2)의 ‘평창(平昌)’은 왕망의 신(新)나라 때의 요양이 요동군 평창현(平昌縣)이었기 때문에 새겨진 글자가 아니다. 중국에 수백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수많은 현들이 있었음에도 현 명칭을 새긴 그릇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 20여년도 사용하지 않은 ‘창평현(昌平縣)’의 현명을 새긴 옹기 유물이 있다는 것은 확률상으로 너무나 희귀하다. ‘평창(平昌)’은 ‘평안하고(平) 창성하라(昌)’ 혹은 ‘평안하고(平) 번창하게 해주세요(昌)’ 등의 의미를 가진 기원문(길상구吉祥句)으로 새겨 넣은 것일 뿐이다.

또한 ‘이후석의 전국연계유적 및 요령식·한국식 청동기 유적과 토착생활 유적 위치도’에서 보는 요서(遼西)·요중(遼中) 지역의 전국시대 연계(燕系) 유물·유적과 진(秦)·한대(漢代)의 유물·유적은 전국시대의 전란을 피하여 고조선(필자의 중조선)으로 망명해온 연(燕)·제(齊) 사람들, 진시황의 만리장성 축조·진(秦)의 멸망과 초한(楚漢) 쟁패(爭霸)·한(漢)나라 건국 초의 공신 척살과 반란 등으로 이어지는 혼란을 피하여 온 수만 명의 망명자들과 그 자손들, 연(燕)·진(秦)·한(漢) 문물문화를 수입·채용한 고조선 토착인들이 남긴 유물·유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6) 고대 도로와 현대 도로의 비교 방법으로 고증한 요동군의 실제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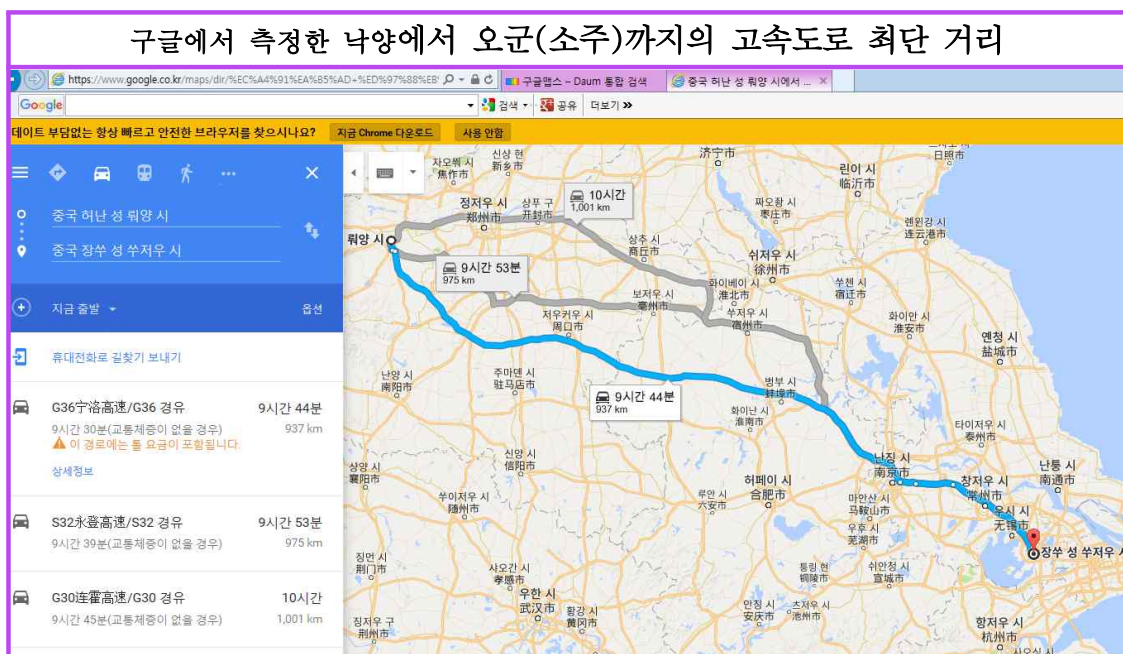
앞 1) ~ 5)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결론을 ‘수학적(수학으로 계산하는) 위치 고증 방법’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필자가 창안한 ‘수학적 위치고증 방법(①고대 도로와 현대 도로의 길이를 비교하여 위치를 찾는 방법, ②지도상의 단순거리를 비교하여 위치를 찾는 방법, ③도로굴곡지수와 수평직선거리를 산출하여 위치를 찾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인 ‘고대 도로와 현대 도로의 길이를 비교하여 위치를 찾는 방법’으로 요하 동부 지역이 요동군 영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간단히 설명하기로 하겠다.

『후한서』 「군국지」 에 “조국 [조국은 진나라 한단군으로 고제가 이름을 고친 것이다. 낙양 북쪽 1,100리에 있다.] 에 다섯 개의 성(현)에...한단(邯鄲)...14)라고 하였다.

후한의 후국인 조국은 본래 진나라가 설치한 한단군이었는데, 고제가 ‘한단군’을 ‘조국’으로 고쳤고, 후한의 도읍인 낙양(洛陽) 동북쪽 1,100리에 있다고 하였다. 필자

14) 『後漢書』 卷三十 「郡國二」 <冀州> “趙國”，“趙國 [秦邯鄲郡高帝改名雒陽北千一百里] 五城…邯鄲…”

가 고증한 한대(漢代)의 1리는 약 0.421km이므로 1,100리에 0.421을 곱하면 463.1km가 된다. 그런데 위 “구글에서 측정한 낙양(洛陽)에서 조국(한단)까지의 고속도로 거리” 지도에서 보듯이 ‘구글에서 측정한 낙양(洛陽)에서 조국의 치소인 한단까지의 고속도로 거리’는 375km이었다. 한대의 낙양에서 조국 간의 거리인 463.1km(1,100리)를 375km로 나누면 약 123.49%가 된다. 100%에서 123.49%를 뺀 23.49%가 한대의 도로를 현대의 고속도로 건설로 단축시킨 ‘도로 단축율’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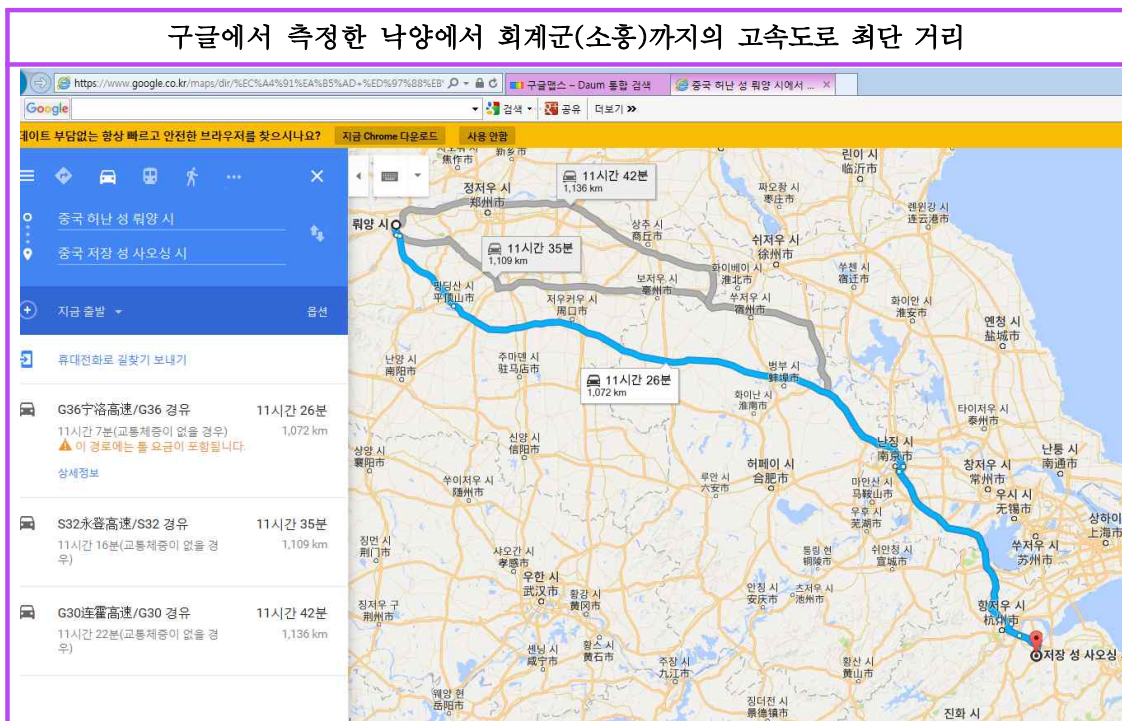
『후한서』 「군국지」에, “오군(吳郡)은 순제(126~144)가 회계군 땅을 나누어 설치했는데, 낙양에서 동쪽으로 3,200리 떨어진 곳에 있다. 13성(城)에...오본국...”¹⁵⁾ 라는 기록이 있다.

이 낙양과 오군 치소까지의 거리 3,200리에 한대(漢代)의 1리인 0.421km의 0.421을 곱하면 1,347.2km가 된다. 그런데 위 “구글에서 측정한 낙양에서 오군(소주)까지의 고속도로 최단 거리” 지도에서 보듯이 ‘구글에서 측정한 낙양(洛陽)에서 오군의 치소인 오현(소주)까지의 고속도로 최단 거리’는 937km이었다. 한대의 낙양에서 오군 치소까지의 거리인 1,347.2km(3,200리)를 937km로 나누면 약 143.78%가 된

15) 『後漢書』 卷三十二 「郡國四」 <揚州> “吳郡” “吳郡 [順帝分會稽置 雒陽東三千二百里] 十三城...吳本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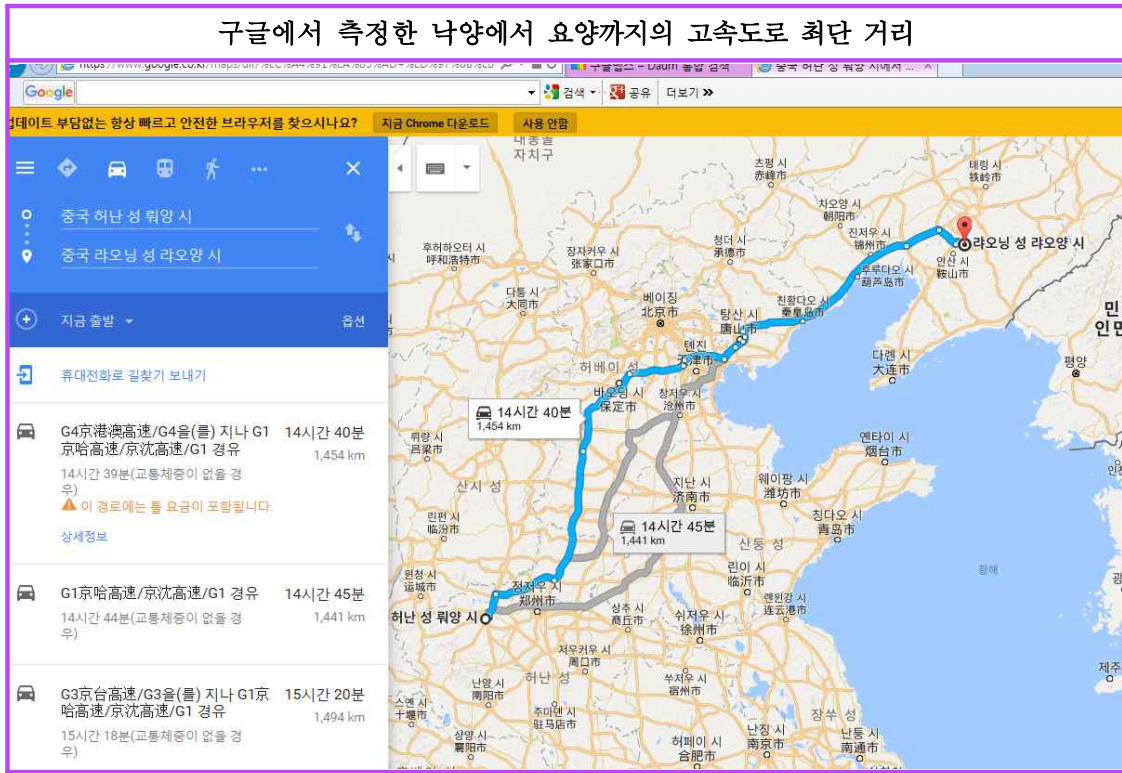
다. 100%에서 143.78%를 뺀 43.78%가 현대의 도로를 현대의 고속도로 건설로 단축시킨 도로의 길이 이다. 이 줄어든 도로의 길이를 낙양과 오군간의 현대도로를 현대도로로 단축시킨 ‘도로 단축율’이라고 한다.

『후한서』 「군국지」 에, “회계군은 진나라가 설치했고, 그 치소는 본래 오현에 있었다. (회계군을 분할하여) 오군을 설치하자 회계군 치소를 산음으로 옮겼다. 회계군은 낙양에서 동쪽으로 3,800리 떨어진 곳에 있다. 14성(현)에...”¹⁶⁾라는 기록이 있다.



이 낙양과 회계군 치소까지의 거리 3,800리에 현대(漢代)의 1리인 0.421km의 0.421을 곱하면 1,599.8km가 된다. 그런데 위 “구글에서 측정한 낙양에서 회계군(소흥)까지의 고속도로 최단 거리” 지도에서 보듯이 ‘구글에서 측정한 낙양(洛陽)에서 회계군의 치소인 산음(소흥)까지의 고속도로 최단 거리’는 1,072km이었다. 현대의 낙양에서 회계군 치소까지의 거리인 1,599.8km(3,800리)를 1,072km로 나누면 약 149.24%가 된다. 100%에서 149.24%를 뺀 49.24%가 현대의 도로를 현대의 고속도로 건설로 단축시킨 도로의 길이 이다. 이 줄어든 도로의 길이를 낙양과 오군간의 현대도로를 현대도로로 단축시킨 ‘도로 단축율’이라고 한다.

16) 『後漢書』 卷三十二 「郡國四」 <揚州> “會稽郡”, “會稽郡 [秦置...本治吳 立吳郡 乃移山陰 雒陽東三千八百里] 十四城 戶二十萬三千九十九 口四十八萬一千一百九十六”



『후한서』 「군국지」 에, “요동군 [진나라가 설치했다. 낙양 동북쪽 3,600리에 있다.] ……현이 18개, 양평현”¹⁷⁾라고 하였다. 낙양에서 동북 방향으로 3,600리를 가면 요동군이 있다는 위 『후한서』 「군국지」 의 3,600리에 한대의 1리 길이인 0.421km를 곱해주면 1,515.6km가 된다.

위 “구글에서 측정한 낙양에서 회계군(소흥)까지의 고속도로 최단 거리” 지도에서 보듯이 ‘구글에서 측정한 낙양(洛陽)에서 요녕성 요양시(遼陽市)까지의 고속도로 최단 거리는 1,441km이었다. 이 1,441km를 한대(漢代)의 1리 길이인 0.421km로 나누어 주면 3,422.8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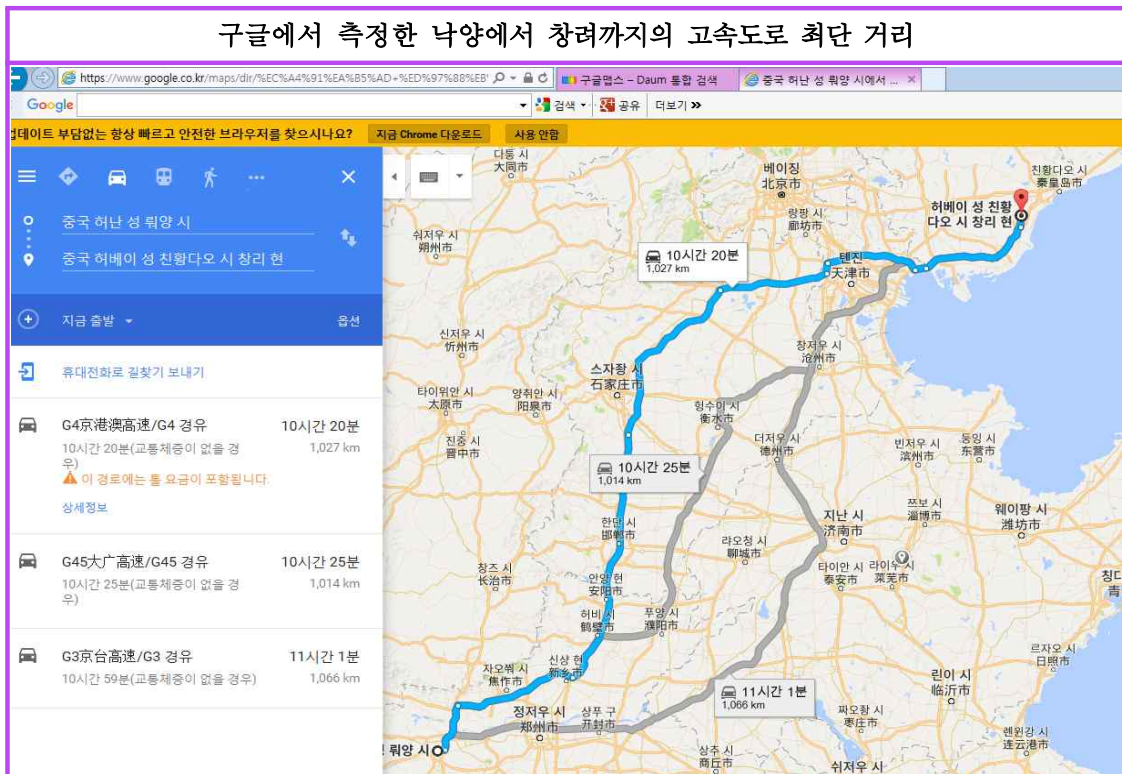
낙양과 조국의 치소인 한단 간의 도로 단축율 23.49%에 기본 도로 1을 더하면 도로환원을 123.49%가 된다. 위 1,441km(3,422.8리)에 도로환원을 123.49%를 곱해주면 1,779.49km(4,226.8리)이다. 낙양과 요양 간의 한대 도로가 낙양과 한단 간의 한대 도로처럼 평탄화 직선화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동군 치소는 626.8리를 더 서남쪽으로 가서 있어야 한다. 요동군의 낙양 쪽 경계선은 치소보다 더 서남쪽 멀리, 요양으로부터 626.8리 보다 서남쪽 더 먼 곳에 있었을 것이다.

17) 『後漢書』 卷三十三 「郡國五」 <幽州>, “遼東郡 [秦置 遼陽東北三千六百里] ……縣十八 襄平 [有牧師官莽曰昌平] ”

그러나 낙양과 한단 간의 1,100리는 고대 중국의 중심지이었으므로 도로는 더욱 직선 화되고, 평탄화 되었을 것이다. 때문에 낙양에서 동북 방향으로 3,600리를 가는 요동군 치소는 낙양에서 32,00리를 가는 낙양과 오군(소주) 간의 한대 도로처럼 평탄화·직선 화되어 있었거나 낙양과 회계군 간의 한대 도로처럼 평탄화·직선화되어 있었을 것이다.

낙양과 오군 치소 간의 도로환원율은 143.78%이다. 1,441km(3,422.8리)에 낙양과 오군 치소인 소주 간의 도로환원율을 143.78%를 곱해주면 약 2,071.87km(4,921.3리)이다. 낙양과 요양을 이은 한대도로가 낙양과 소주를 이은 도로와 똑같이 평탄화·직선 화 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낙양에서 동북쪽으로 3,600리를 가서 있던 요동군의 치소는 서남쪽으로 1,321.3리(4,921.3리 - 3,600리)를 더 가서 있었을 것이다.

낙양과 회계군 간의 도로환원율을 149.24%를 이용한 위치고증은 생략하기로 한다.



후한 영제(168~188) 때 학자인 응소는 요서군·요동군·낙랑군·현도군이 실존 할 당시의 학자이다. 그 응소가 요동군 험독현(險瀆縣)이 조선의 도읍인 왕험(王險) 이라고 하였고,¹⁸⁾ 동진(317~420) 효무제(376~396) 때 학자인 서광이 “창려(昌黎) 에 (요동군) 험독현(險瀆縣)이 있었다.”¹⁹⁾고 하였다.

18) 『漢書』卷二十八下「地理志」<遼東郡>，“險瀆 [應劭曰 朝鮮王滿都也 依水險 故曰險瀆] ”

낙양(洛陽)에서 하북성(河北省) 진황도시(秦皇島市) 창려(昌黎)까지 고속도로로 최단거리를 달릴 경우 위 ‘구글에서 측정한 낙양에서 창려까지의 고속도로 최단 거리’ 지도에서 보듯이 1,014km이다. 이 1,014km를 한대(漢代)의 1리 길이인 0.421km로 나누어 주면 2,408.55리이다. 이 1,014km(2,408.55리)에 낙양과 오군 치소인 소주 간의 도로환원을 143.78%를 곱해주면 약 1,457.93km(3,463리)이다. 거리측정 시점과 종점, 편차, 오차 등을 감안하면 낙양과 요동군 간의 거리인 3,600리와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즉, 응소가 요동군 험독현(險瀆縣)이 조선의 도읍인 왕험(王險)이라고 한 말, 동진 효무제 때 학자인 서광이 “창려(昌黎)에 (요동군) 험독현(險瀆縣)이 있었다.”고 한 말이 역사적 사실을 증언한 말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맺음말

필자는 고조선과 한사군이 실존할 당시에 씌어진 중국 역사지리 기록들을 철저히 연구·분석하고 ‘수학적 위치 고증 방법(①고대 도로와 현대 도로의 길이를 비교하여 위치를 찾는 방법, ②지도상의 단순거리를 비교하여 위치를 찾는 방법, ③도로굴 곡지수와 수평직선거리를 산출하여 위치를 찾는 방법)’을 창안하여 제·연·조나라 등의 영토 크기, 만리장성이 실제 길이 및 실제 위치, 한사군을 포함한 한나라 북·동북지역에 있었던 군국들의 실제 위치를 고증한 바 있다. 또한

- ① 고대의 요수가 영정하라는 것.
- ② 전국시대의 요동국(연·진·한대의 요동·요서군)이 북경·천진·당산·진황도시 지역에 있었고, 현도군은 란하 중류유역, 낙랑군은 대릉하 유역, 임둔군은 발해 북안 호로도시와 그 인근지역, 진번군은 대릉하 유역의 북·북동·동쪽 지역 중의 한 지역에 있었다는 것.
- ③ 산융 → 동호 → 선비·오환은 조나라 북쪽인 산서성 중·북부와 연나라 북쪽인 하북성 서북부 및 그 이북의 내몽고 지방에 있었다는 것.
- ④ 진황도시·호로도시 수중현에 있었던 갈석산{갈석산(碣石山), 조산(祖山), 장수

19) 『史記』卷一百十五「朝鮮列傳」의 “都王險”에 대한 『史記索隱』의 주석 “徐廣曰 昌黎有險瀆縣也”

산(長壽山)}이 전국시대 후기 연(燕)나라가 요동국을 멸하고 쌓은 장성의 동쪽 기점(起點)인 요동군 양평이었고, 연나라를 멸한 진시황이 자신이 통일한 전국을 시찰(순수)하면서 올랐던 갈석산이었으며, 서진(西晉)의 당빈(唐彬, 서기 235 ~ 294년)이 수축한 만리장성의 동쪽 기점이었다는 것

등의 수많은 역사의 진실을 객관적, 실증적으로 밝혀낸 바 있다.

따라서 '신(新)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은 반드시 이러한 필자의 연구 내용을 전제로 하여 '고조선·한사군 재 요서설'로 발전하여야 하고, 순수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은 성립할 수 없는 학설로 폐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1) 김종서의 고조선과 연나라 국경 지역인 만변한의 실제 위치 및 보기

(1) 만리장성 관련 역사·지리 기록과 장성 유물로 본 만변한의 실제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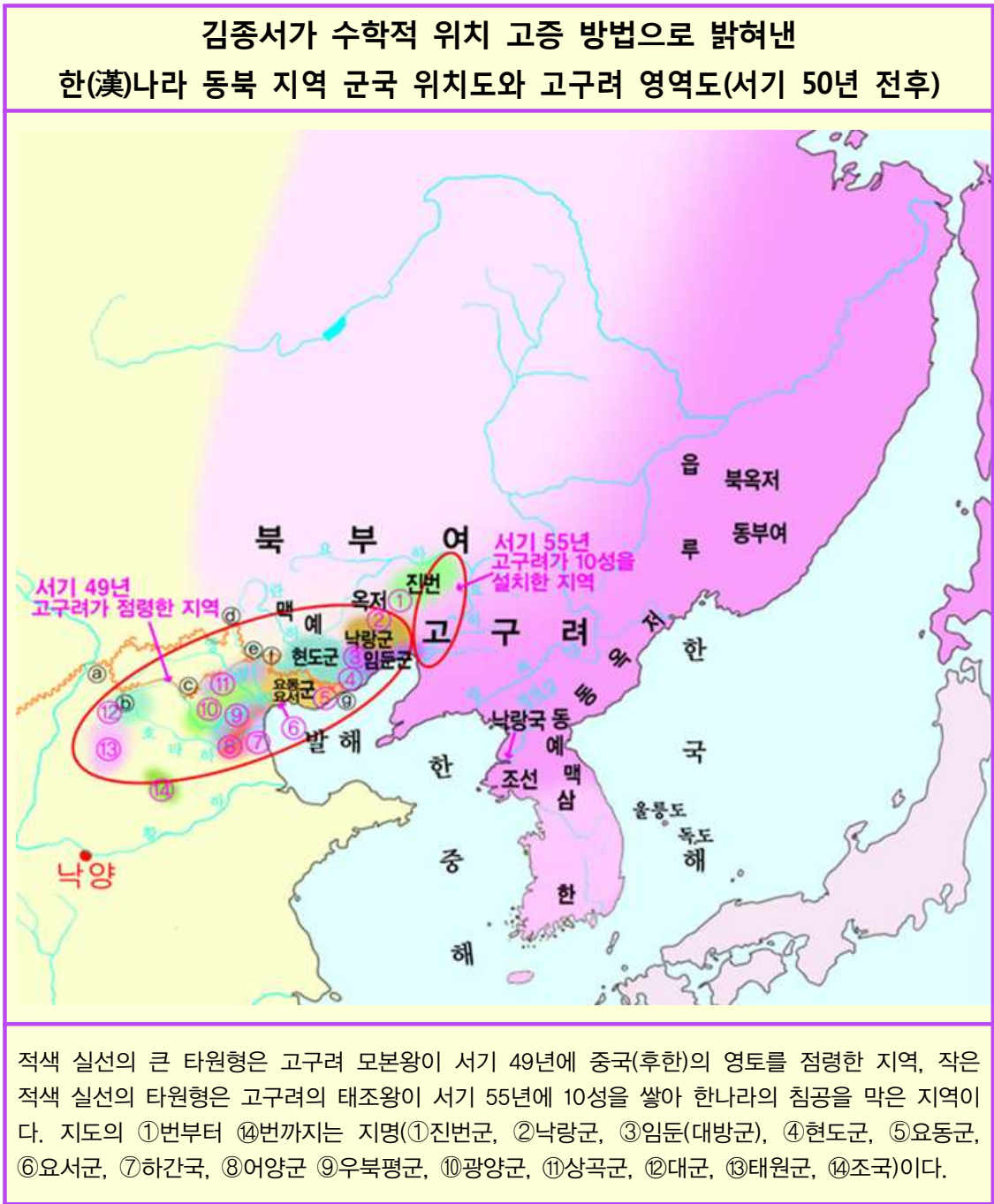
연(燕)·진(秦)나라 영토의 가장 동쪽 끝 지역이 요동군이고, 그 요동군의 가장 끝 지역이 만리장성이 시작하는 갈석산이다. 그 갈석산이 요동군에 속한 18개 현(縣) 중에 무슨 현에 속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① 『사기』 「진시황본기」의 “(장성이) 북쪽으로는 황하에 의지해 요새를 삼고 음산으로 이어서 요동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기록, ② 『사기』 「몽념열전」의 “(몽념이) 장성을 쌓았는데……장성은 임조(臨洮)에서 시작하여 요동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기록, ③ 『사기』 「흉노열전」과 『한서』 「흉노전」의 “연나라 또한 조양으로부터 양평에 이르기까지 장성을 쌓고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군을 설치하여 호(胡)의 침입을 막았다.”라는 기록, ④ 『진서』 「당빈전」의 “온성으로부터 갈석산에 이르도록 산과 계곡을 길게 연이어서 장성을 수축했다.”는 기록, ⑤ 『진서』 「지리상」의 “낙랑군……수성현 [(수성현은) 진나라가 쌓은 장성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기록, ⑥ 북송(北宋) 구양민(歐陽忞)의 『여지광기』에 “진(晉)나라의 『태강지지』에 이르기를 ‘진(秦)나라가 쌓은 장성이 갈석(礪石)으로부터 시작되는 곳’이라고 하였다.”는 기록, ⑦ 남송(南宋) 왕응린(王應麟, 서기 1223~1296년)의 『통감지리통석』에, “진(晉)나라의 『태강지지』에 이르기를 ‘진(秦)나라가 쌓은 장성이 갈석으로부터 시작되는 곳’”이라는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미루어 볼 때 연(燕)·진(秦)나라 영토의 가장 동쪽 끝에서 쌓기 시작한 장성의 기점은 갈석산으로 오늘날의 진황도시의 갈석산(礪石山)·조산(祖山)·장수산(長壽山)으로 연결된 갈석산(礪石山)이고, 그 갈석산이 요동군 양평현·번한현과 낙랑군 수성현에 걸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십이영자문화권과 연하도·동대장자·장가와자문화권으로 본 만번한

앞 “1. 이후석 박사의 ‘고고학을 통해 본 만번한’에 대해”에서 논한 와 같이 위 “십이영자문화권과 연하도·동대장자·장가와자문화권으로 본 만번한” 지도에서 보이는 고조선계 유물·유적분포로 보았을 때, 고조선과 요동국의 경계선은 건평·릉원·건창·수중으로 이어지는 선 서쪽, 즉 ‘십이영자문화권’의 서쪽 선과 연하도문화권 동쪽 선의 중간 지역으로 적색 굵은 직선을 긋고 국경선이라고 표시한 선이나 그 주위에 있었을 것이다.

이들 역사지리 기록들을 철저히 연구·분석하면 한국 고대사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후한의 도읍인 낙양 북·동북쪽에 있는 군(郡)·국(國)들인 광양군, 대군, 상곡군, 어양군, 요동군, 요동속국, 요서군, 우북평군, 중산국, 탁군 등의 실재했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 당연히 한사군(낙랑군, 임둔군, 진번군, 현도군)과 대방군의 정확한 위치 또한 찾아 낼 수 있다.



그러나 필자 이전에는 『후한서』 『무릉서』 『구당서』 등의 거리·방향 기록을 가지고 한사군·요동군·요서군 등의 위치를 찾는 연구를 수행한 학자가 없었다. 때문에 필자가 두 지점 간의 수평직선거리와 도로굴곡지수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위치를 찾는 방법을 창안하여 2004년에 발표한 『단군조선영토연구』에서 만리장성의 실제 길이, 제(齊)·조(趙)·연(燕)나라 영토의 실제 크기를 고증한 바 있다. 이어서 이 방법으로 2005년에 발표한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와 박사학위 논문인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 비정 연구』에서 한사군을 포함한 중국 북·동북지역 군국들의 실제했던 위치를 고증한 바 있다.



필자는 좀 더 완벽한 위치 고증 방법을 창안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①고대 도로와 현대 도로의 길이를 비교하여 위치를 찾는 방법, ②지도상의 단순거리를 비교하여 위치를 찾는 방법 이다. 필자는 이 ①고대 도로와 현대 도로의 길이를 비교하여 위치를 찾는 방법, ②지도상의 단순거리를 비교하여 위치를 찾는 방법, ③도로굴곡지수

와 수평직선거리를 산출하여 위치를 찾는 3가지 방법을 ‘수학적 위치 고증 방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3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한사군(낙랑군, 임둔군, 진번군, 현도군)과 대방군, 광양군, 대군, 상곡군, 어양군, 요동군, 요동속국, 요서군, 우북평군, 중산국, 탁군 등의 실재했던 위치를 찾아냈다. 그 위치가 위 ‘김종서가 수학적 위치 고증 방법으로 밝혀낸 한(漢)나라 동북 지역 군국 위치도와 고구려 영역도(서기 50년 전후)’에서 보이는 “①진번군, ②낙랑군, ③임둔군(대방군), ④현도군, ⑤요동군, ⑥요서군, ⑦하간국, ⑧어양군, ⑨우북평군, ⑩광양군, ⑪상곡군, ⑫대군, ⑬태원군, ⑭조국로 표시된 지역이다.

필자는 거리 측정의 수단인 고대 도량형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분석을 행한 바 있다. 즉,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6권에서 자(척), 장, 등의 유물을 철저히 연구·분석하여 한(漢)나라의 길이 단위인 분(分), 촌(寸), 척(尺), 장(丈), 인(引), 보(步), 리(里) 등의 정확한 길이를 고증할 수 있었다. 한(漢)나라 때의 1분(分)의 길이는 약 0.23cm, 1촌의 길이는 약 2.34cm, 1척의 길이는 약 23.4cm, 1장(丈)의 길이는 약 2.34m, 1인(引)의 길이는 약 23.4m, 1보(步)의 길이는 6척으로 약 140.4cm, 1리(里)의 길이는 약 421.2m(0.4212km)이었다.

또 당(唐)나라 때의 1척은 29.29cm이었고, 1보(步)는 5척으로 약 149.95cm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면 150cm(1.5m)가 되었으며, 1리(里)는 300보(步)로서 540m(0.54km)라는 것을 증명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우(虞)나라의 순(舜) 임금의 표준 도량형기 제작 및 사용으로부터 하(夏)나라 우(禹) 등 거리 측량 등을 비롯한 중국 고대의 거리 측정의 역사, 고대로부터 정확한 거리 측정에 의한 교통, 유통, 농지 분배, 군사 작전 등이 행해 졌음을 확인한 바 있다.

혹 고대에 거리 측정이 정확한 이루어 졌을까? 의심하는 자가 있을 수 있기에 간단한 설명을 추가하기로 한다.

인간의 삶은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빼면 존재할 수 없다. 먹을 것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무게를 달거나 부피를 재야하고, 옷을 만들거나 옷감을 팔고 사려면 옷감의 길이와 넓이를 재야하고, 먹을 것을 재배하는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배하거나 팔고 사려면 길이와 넓이를 측정해야 한다.

국가에서 국민이나 공로자에게 토지를 분배하려면 토지의 길이와 넓이를 측정해야 하고, 토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려면 해당 국민이 소유하거나 경작하는 토지의 넓이(가로 세로 길이)를 정확히 알아야하고, 곡물이나 옷감 등을 세로 받으려면 길이, 부피, 무게를 정확히 측정해야한다.

따라서 사경제나 국가경제의 기본이 되는 길이를 재는 자(도度), 부피를 재는 되나 말, 무게를 재는 저울 등의 도량형에 대한 공신력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믿음의 시작이고, 통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도량형의 중요성 때문에 중국의 상고시대인 요堯(서기전2358~서기전2263년) 임금·순舜(서기전2255~서기전2213년) 임금 시대에 이미 ‘중국의 열국들(천자국과 제후국들)’이 함께 길이를 재는 ‘자(도度)’, 부피를 재는 ‘되와 말(량量)’, 무게를 재는 ‘저울(형衡)’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사용한 것이다.

또한 통일된 도량형기의 중요성 때문에 은대殷代(서기전1766~서기전1117년)에 상아로 만들어 사용하던 ‘자(척尺)’ 유물이 2개나 출토된 것이고, 전국시대의 철척이 남아있는 것이며, 전국시대 제齊, 초楚, 진秦, 한韓 등의 국가에서 제작하여 사용하던 표준 도량기陶量器들이 다량으로 출토된 것이며, 진시황이 표준도량기 제작을 명하였고, 왕망이 신나라를 건국하자마자 표준도량기를 만든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토지를 측정하고 경계선을 긋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농민은 할당받은 토지를 경작하여 얻은 생산물로써 생활을 유지하고, 국가에 대한 각종 조세도 담당해야하기 때문이다. 그 토지의 크기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수많은 불평과 분쟁을 야기할 것이고, 백성들의 불만이 폭증하면 국가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각 지역에서 각 국경선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각 지역과 각 지역 간의 거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전쟁에서 적을 공격하거나 방어하거나 구원 할 때 이동 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곡식과 과일·채소·수산물 등을 운송함에 있어서도 먼저 이동거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동거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과일·채소·수산물과 같이 유통기간이 짧은 농수산물은 운반 도중에 부패하여 손실을 가져온다. 또한

어떤 한 지역에서 다른 한 지역 간의 거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양곡, 군량미의 운반 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 이는 양곡의 가격 폭등을 가져와 양곡을 사먹는 사람들의 굶주림과 경제적 손실로 귀결되고, 군량미의 보급을 예측할 수 없어 전쟁에 투입된 군사들을 굶주리게 하고 전투력을 약화시켜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

(4) 맺음말

① 『사기』 『전국책』 『한서』 『무릉서』 『후한서』 『삼국지』 등처럼 고조선이나 한사군, 연(燕)·진(秦)·한(漢)이 실존할 당시에 기록된 역사·지리 기록에 대한 철저한 고증, ②고고학적 유물·유적에 대한 객관적 연구·분석, ③한사군 등의 한(漢)나라 군(郡)·국(國)들이 실존할 당시에 정밀하게 측정한 도읍과 각 군국간의 거리 기록을 수학적 위치 고증 방법으로 고증한 요동군의 동·동북쪽 경계선과 현도군의 남·서쪽 경계선이나 낙랑군 수성현의 서쪽 경계선이 만나는 곳은 모두 하북성 진황도시 산해관과 요녕성 호로도시(葫蘆島市) 수중현(綏中縣) 만가진(萬家鎭)을 가리키고 있었다.

따라서 연(燕)·진(秦)과 전한(前漢) 전기의 연(燕)·진(秦)·한(漢) 동쪽 국경선인 요동군 양평현·번한현은 하북성 진황도시 산해관과 요녕성 수중현 만가진 및 그 북쪽 지역일 수밖에 없다. 그 경계선은 앞의 ‘십이영자문화권과 연하도·동대장자·장가와자문화권으로 본 만번한’에서 보이는 ‘십이영자문화권’의 서쪽 선과 연하도문화권 동쪽 선의 중간 지역으로 적색 굵은 직선을 긋고 국경선이라고 표시한 선이나 그 주위에 있었을 것이다.

이제 ‘고조선·한사군 재 요서설’은 고조선과 한사군이 실존할 당시에 씌어진 역사 지리 기록에 반하는 학설이고, 유물·유적에 대한 연구·분석 결과와도 양립할 수 없는 학설이며, 수학적 위치 고증 방법으로 고증한 연구 분석·결과에도 반하는 학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더 이상 연(燕)·진(秦)·한(漢)과 고대 한국의 국경선 이었던 요동군 양평현이나 만번한의 위치를 한반도나 요하 동쪽 지역이라고 찾고 주장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81 임광빌딩
Tel. 02)2012-6000 www.nahf.or.kr